

복된 기억의
성자 파이시이 스비아토고레츠
말씀

제3권
영적 투쟁

목차:

서문	5
제1부. 생각의 싸움에 대하여	7
제1장.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 대하여	8
선한 생각의 힘	8
“왼쪽”에서 오는 생각은 가장 큰 병이다	9
선한 생각은 사람에게 영적 건강을 가져다줍니다	12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본다	15
거룩해진 사람의 생각과 악한 사람의 생각	16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7
제2장. 모독적인 생각에 대하여	19
어떤 생각이 모독적인가	19
모독적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20
모독적인 생각에 대한 경멸	22
어떤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모독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가	24
제3장. 생각에 대한 신뢰	25
생각에 대한 신뢰 — 유혹의 시작	25
생각을 믿는 것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진다	26
기이한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27
자신의 상상력에 병든 사람들	30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31
제4장. 생각과의 싸움에 대하여	35
선한 생각을 가꾸기	38
마음과 영혼의 평화	39
의심스러운 생각 뒤에는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40
생각과의 대화	43

생각과의 결합	44
제2부. 정의와 불의에 대하여	45
제1장. 불의를 받아들이는 법	45
불의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45
불의를 받아들임에서 오는 기쁨	47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유익한 일	50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는 것	52
거룩한 위선	53
제2장. 자기합리가 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낸다는 것	55
자기 변명은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55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그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57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59
네가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61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62
자기합리는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	63
[타인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자	64
제3장. 신적 정의와 인간적 정의에 대하여	66
하나님의 정의	68
수도사가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삶을 위해 간직해 두시는 것입니다	69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냈습니다	72
제3부. 죄와 회개에 대하여	76
제1장. 죄가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대하여	76
마음의 정화	76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78
자유의지에 의한 죄	79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합시다	80
우리 삶 속의 유혹	82
죄인들에게는 겸손을 위한 많은 재료가 있다	83
제2장. 양심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이유	85
우리의 양심을 시험해 보자	85
마비된 양심	87
왜곡된 양심	88
거짓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90
타락하지 않은 양심은 틀림없는 깨달음을 준다	92
제3장.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를 아는 것의 필요성	93
자아 탐구	93
우리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95
적을 한곳에 묶어두고 타격을 가해야 한다	96
다른 사람들을 마치 거울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97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을 갖게 됩니다	98
우리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99
제4장.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점	10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101
죄악에 대한 자각과 영적 투쟁에서의 성공	103
우리의 회개를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104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	105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기 책망입니다.....	107
돌보기를 통한 영적 수행	109
제5장. 회개가 지닌 위대한 힘에 대하여	110
“자신 안으로 들어와...”	110
회개의 눈물	111
끝없는 회개의 수고	113
삶의 변화	114
“...내 죄가 내 앞에 드러나도”.....	116
강요된 회개.....	117
회개는 사람에게 신성한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118
제4부. 어둠의 흑암의 세력.....	119
제1장. 주술에 대하여	119
주술사들은 또한 다양한 악마적인 “성물”들을 이용합니다.....	121
주술을 행하는 자들은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한다	123
악마적인 주술 행위	124
악마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126
어떤 경우에 주술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127
주술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128
주술사들과 악마들의 공모	130
제2장.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하여	131
악마적인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귀신에 들릴 수 있다.....	133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성물에도 반응한다	135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136
귀신 들린 자들을 돕는 일	139
경책에 대하여	142
귀신 들린 이들의 순교자 같은 삶	144
제3장. 무서운 미혹	145
수행과 미혹	145
상상에 대한 주의.....	147
마귀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49
꿈은 거짓이다	150
환상에 대한 주의.....	152
미혹된 사람의 특징	153
환상과 광기	154
미혹된 이들에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55
미혹된 자들의 값싼 은사.....	157
미혹된 자의 교정.....	158
제4장.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한 자”	159

오순절파의 미혹에 대하여	159
불 위를 걷는 이들에 대하여	160
환생	161
힌두교의 고행 수행에 대하여	162
힌두교는 많은 해를 끼쳤다	164
사람들은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가	165
정교회로의 귀환	168

제5부. 고백의 힘에 대하여.....169

제1장.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169
고백을 통해 사람은 해방된다	169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바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172
영적 삶에는 영적 지도자가 필수적이다	173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에게 보내십시오	174
“치료하는 영적 지도자”	175
가정 내 영적 지도자	176
고해 신부 변경	177
제2장. 올바르게 고해성사하는 법	179
자신의 상처를 다시 감아야 한다	179
고백의 필요성	180
올바른 고해	181
고백 중에 자신을 변명함으로써 우리는 양심을 무겁게 만듭니다	183
고백 후	184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	185
영적 지도자와의 올바른 관계	187
제3장. 고해 신부는 영혼의 의사라는 점에 대하여	189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	189
영적 지도자의 고찰과 경험	190
신자가 성찬을 얼마나 자주 받을지는 그의 영적 지도자가 결정한다	191
금식에 관하여	192
허락의 기도	194
제4장.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	195
영혼을 다루는 기술은 미묘한 일입니다	195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196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대하는 법	198
뻔뻔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199
자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가 된다	202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203
고해 신부님의 고해자에게 대한 사랑	204

서문

죄가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복된 기억을 간직한 파이시이 장로께서는 회개와 고해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회개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셨는지는 그의 『말씀』 제2권 마지막 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개와 고해는,”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악마에게 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악마에게 권리를 주며, 그 결과 악마는 세상을 괴롭힙니다.”

파이시이 장로의 도움으로 많은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고해 성사에 참여하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련하며, 이미 이 생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착하잖아요!”라고 파이시이 신부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제가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는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장로의 위대한 사랑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가 접촉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열매 맺지 못하는 흙을 경작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스타르체 파이시의 『말씀』 제3권은 우리 교구의 새로운 주교이신 카산드리아의 니코디모 대주교님의 축복으로 출간됩니다. 이 권에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선한 염려를 품고, 자신을 얹매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투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장로의 가르침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낡은 사람, 즉 장로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사는 악한 세입자”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파이시 신부님은 그 악한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우리는 “그의 집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한다—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의 시작은 악한 생각이다. 따라서 장로의 영적 유산 중에서 생각에 관한 가르침을 선별하여 본 책의 첫 번째 부분에 수록했다. “생각은,” 장로가 말했듯이, “우리 영적 상태의 지표이다.” 선한 생각은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어,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이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선한 생각을 가꾸면, 그의 마음과 정신이 정화되며 그 안에 신성한 은총이 깃듭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불의를 참아내고 이를 영적으로 대할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종종 이 진리는 영적인 사람들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심지어 “자신만의 복음을 지어내”는 지경에 이르러,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리는 영적인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사랑, 고귀함, 희생 정신을 품고 있는” 신성한 진리의 동참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죄에 대해 다룹니다. 인간의 지상 생활은 죄로 인해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하지만, 영적 투쟁을 통해 우리의 삶은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신성한 법”인 자신의 양심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끝없는 회개의 수고”로 이어지며, 영혼에게 신성한 위로로 준다.

제4부에서 파이시 신부는 마법사, 초능력자, 예지자 및 그 밖의 미혹된 자들 같은 복종하는 도구들을 통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규탄한다. 장로는 어둠의 세력 자체가는 무력하지만, 사람이 어떤 중대한 죄를 범하여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함으로써 악마의 영향력에 노출될 때 비로소 그 세력이 인간에게 파괴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은 죄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며, 즉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고해성사를 받고, 교회의 의식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고해 성사에 전념하고 있다. 장로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기독교인에게 고해가 필수적이며, 안전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파이시 신부님은 정신과 의사의 활동과 영적 지도자의 사역(오늘날 이 둘은 때때로 혼동되곤 합니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으며,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줍니다.

이전 권들과 마찬가지로, 파이시 신부님은 자신에게 제기된 질문들에 간결하게 답변합니다. 장로님의 답변은 특정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아니며,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위안이자 기쁨입니다.”

각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담자의 영적 투쟁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간파한 장로는, 영적 필요에 따라 그 사람과 대화하며 필요한 “영적 비타민”을 공급해 줍니다. 종종 파이시 신부님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말의 의미를 밝혀 주기도 합니다. 장로는 긍정적인 본보기가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게 시간이 있었다면, 정직하게 삶을 살아온 몇몇 사람들, 즉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젊은이들과 소녀들, 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 대해 글을 썼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선한 본보기를 통해 죄를 유행처럼 퍼뜨린 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종종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보여줄 때, 악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장로님께서 답변하신 질문들은 수녀들이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시 신부님의 답변은 “선한 수련”을 실천하고 있거나 그 수련을 시작하

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수도사와 평신도 모두에게,” 장로는 자신의 편지 중 하나에서 말합니다, “똑같은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낙원도 [모두에게] 하나뿐입니다.” 이 외에도 파이시 신부님은 높은 영적 삶을 살며 자신에게 미묘한 영적 수련을 행하는 평신도들이 있다고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본 책의 원고를 기꺼이 읽어 주시고, 조언을 통해 출판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선한 회개를 허락하사,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다정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선한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소서,”라고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2001년 2월 11일

탕자의 주간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신학자 요한 수도원의 수녀장 필로페아 수녀와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

— 게론다, 동물들은 어떤 사람에게 선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는 건가요?

— 동물들에게는 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가슴 아파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은 은총의 향기를 느끼며 아담에게 봉사했습니다. 타락 이후로 자연은 인간과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기, 불쌍한 토끼 한 마리를 보세요: 그 눈빛은 늘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불안하게 뛰고 있어요. 불쌍한 녀석은 잠을 전혀 못 자고 있네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작고 아무 잘못도 없는 생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하지만 사람이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 동물들은 다시 두려움 없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제1부.

생각의 싸움에 대하여

“선한 생각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은 정화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비뚤어진’ 생각으로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고 부당하게 해치며, 신성한 은총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후 악마가 찾아와 그를 괴롭힙니다.”

제1장.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 대하여¹

선한 생각의 힘

— 헤론다, 구약성경 마카베오서 제4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생각은 정욕을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의 대적이다.”²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보라: 정욕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지만, 경건하고 선한 생각은 우리가 그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사람이 끊임없이 선한 생각을 실천에 반영하여 자신의 선한 상태를 확고하고 견고하게 다질 때, [그의] 정욕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 즉, 경건한 생각은 정욕을 뿌리 뽑지는 않지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마카베오서 제4권』에는 경건한 생각을 품고 일곱 성스러운 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인 성 솔로모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성 엘레아자르가 견뎌낸 [고난]이 묘사되어 있다. 나는 [성서]의 저자가 선한 생각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³

선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의 밤샘 기도와 맞먹는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발사대 위에서 이미 타격하여 이륙조차 못하게 하는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생각은 악한 생각들이 주둔하고 있는 악마의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것을 미리 막아, 공중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악마가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을 심을 틈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악마보다 앞서서 선한 생각을 마음에 심어, 여러분의 마음이 꽃밭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성한 향기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이 [자신 안에] 비록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즉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가 어떤 위업을 이루든—금식, 철야 기도, 혹은 그 밖의 무엇이든—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인다면, 금욕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그는 먼저 비누로만 쓸 수 있는 더러운 기름 찌꺼기를 그릇에서 깨끗이 씻어낸 다음, 그 후

¹ 성부들의 금욕주의 용어집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고, 선이나 악을 향한 내적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은 이성, 양심, 감정, 의지를 통해 형성된 선하거나 악한 충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도 생각들이 선행하므로, 영적 투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통해 선한 생각을 가꾸고 악한 생각을 몰아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힘써야 하지만, 특히 수도사들은 이를 깊이 있게 실천한다. (이하 그리스어 판 편집자들의 주석은 별도 표기 없이 제시된다.)

² 제4 마카베오서는 러시아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 역자 주.

³ 러시아어 번역본은 2마카베오 6, 7을 참조하십시오.

에야 깨끗한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섞어 깨끗한 것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깨끗하고 선한 생각은 그 어떤 금욕적 수행보다도 더 큰 힘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악마는 한 청년을 향해 불결한 생각들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청년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사흘 연속으로 음식과 물을 삼갑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일 속에 담긴 단 하나의 순수한 생각은 그의 모든 밤샘 기도와 금식보다 더 큰 힘을 지니며, 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헤론다, “순수한 생각”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단어에 좁은 [금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아니면 더 폭넓게 사용하시나요?

— 넓은 의미로도 씁니다. 선한 생각을 통해 사람은 정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그릇된” [나쁜] 생각을 통해 그는 타인을 정죄하고 부당하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성한 은총이 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 그러니까, 헤론다,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사람은 마귀에게 자신을 괴롭힐 권리를 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선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선한 생각이 사람을 고양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맑게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라.*”⁴ 그러면 사람은 모든 것을 인간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 이 단어의 선한 의미에서 — 정당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교활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며,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흠 없고 깨끗한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흠 없는 순결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단강에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⁶

“왼쪽”에서 오는 생각은 가장 큰 병이다

— 헤론다,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면, 저는 심하게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⁴ 요한복음 7, 24.

⁵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및 3장 16절과 비교하라.

⁶ 마태복음 3, 16; 마가복음 1, 10; 루카복음 3, 22 및 요한복음 1, 32 참조.

— 네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야. 만약 그런 생각이 많지 않았다면, 순종하는 일이나 영적 생활에서 훨씬 더 큰 열의를 가지고 노력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잡생각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잘 들어보렴. 예를 들어, 내일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생각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일은 오늘 할 일이 아니야. 내일 그 일을 생각해 볼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결정을 계속 미루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선택하고 단호하게 행동한 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머리를 싸매지 않도록 지나치게 꼼꼼하거나 세심하게 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⁷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때 단순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무화하게 된다.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건강한 사람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낙담한다면,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왼쪽”에서 오는 생각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고통받는다면, 그에게는 구속복을 입혀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상상이나 될 일인가—] 온전한 건강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생각들로 인해 괴로워하다니!

우리 시대의 가장 무거운 병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헛된 생각들이다. 그들에게는 선한 생각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상황을 영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 도중에 엔진이 고장 나기 시작하고, 그는 약간 늦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마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연히 나를 늦추신 것이 아니겠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이 지연이 없었다면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오, 주님, 저를 위험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면 선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불운이야!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는데, 내가 늦어버렸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다 이 하나님 때문이야...”

“올바른” 생각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생각을 할 때는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균형을 잃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성산에서 우라누폴리스⁸로 와서 살로니카로 더 가려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미 여행 가방, 오렌지, 생선, 생선 포장용 빈 더러운 바구니 등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실린 트럭이 우리

⁷ 필로티모(φιλότιμο). 이 단어는 영적 삶에서 필로티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파이시이 장로의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 현대 러시아어에는 φιλότιμο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대인배적 마음’, ‘희생에 대한 기꺼움’, ‘도덕적 또는 영적 이상을 위해 물질적 것을 경멸하는 태도’로 번역할 수 있다. — 역자 주

⁸ 우라누폴리스 — 성산에 가장 가까운 세속 마을로, 아폰 반도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 번역자 주.

에게 배정되었다. 바로 그 트럭 적재함에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했다. 아포니아다⁹⁾의 아이들, 수도사들, 평신도들이었다. 자리가 있는 사람은 널빤지 위에 앉았고, 나머지는 서서 갔다. 한 뚱뚱한 평신도가 내 옆 벤치에 끼어 앉았다. 비좁아서 매우 불편했던 그는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장판이야!”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악취 나는 생선 바구니들로 온통 뒤덮인 수도사가 앉아 있었는데, 불쌍한 그 사람은 머리 하나만 바깥에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트럭은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따라 출발했고, 요철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서로 겹쳐진 바구니들이 수도사 위로 쏟아지자, 그는 머리를 보호하려고 손으로 바구니들을 밀어냈다. 한편, 벤치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뚱뚱한 이웃은 자리가 조금 비좁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왜 자꾸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그를 달랬다. “이봐, 네 옆사람이 어떤 처지인지 좀 봐!” “어떻게 지내시나요, 신부님?” — 내가 수도사에게 물었다. “여기가 지옥보다 낫습니다, 게론다,” —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사람은 앉아 있으면서도 괴로워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악취 나는 생선 바구니 산더미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기뻐하고 있었다. 게다가 갈 길이 멀었다 — 차로 약 두 시간 거리였다. 세속인의 마음은 버스를 타고 가는 여행이 얼마나 편안할지 상상하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했다. 반면 수도사는 지옥에서 겪게 될 고통들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두 시간 뒤면 목적지에 도착해 이 차에서 내릴 수 있을 겁니다.”라고 수도사는 말했다. “하지만 불쌍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게다가 그곳의 고통은 지옥 그 자체라, 이 바구니들과 사람들의 밀집함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여기는 그곳만큼 나쁘지 않으니.”

— 게론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수련자가 자신의 스승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의 신뢰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에서 ‘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즉 이기심을 따라 행동한다면, 사람은 성자조차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그에게 성스러운 스승이 있다 해도, 설령 그의 스승이 [바로] 안토니우스 대성인이었다 해도 — 뭐, 그런 말은 제쳐두고 — 설령 모든 성인들이 [그의 스승이었다 해도] 그를 도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분을 매우 원하시지만, 그런 사람을 도울 수조차 없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즉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나’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해석한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죄악으로 해석하고, 다른 이들은 자기 마음

⁹⁾ 아포니아다(아폰스카야 교회 아카데미) — 성 아폰 산에 위치한 남학생 전용 기숙 학교이다. 1753년에 설립되었다. 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 과목 외에도, 아포니아다의 학생들은 신학 및 교회 응용 학문(성경, 성인 전기, 전례학, 고대 그리스어, 비잔틴 성가, 성화 그리기 등)을 배운다. — 역자 주.

에 드는 대로 해석한다. 점차 터무니없는 해석들이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린다. 네가 아무리 올바르게 행동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유혹에 빠진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고, 친절할 말 한마디만 건네도 마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크게 상심하고 극단으로 치닫합니다. 이러한 극단은 원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근거 없는] 추측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일이 정확히 자신이 추측한 대로였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서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방문객이 찾아와 지인 중 한 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말을 나누던 사람이 왜 지금은 말을 걸지 않나요? 혹시 최근에 제가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한 탓일까요?” — “있잖아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도 그냥 못 알아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 누군가가 아파서, 의사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환전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제로 가까운 지인의 병으로 인해 수많은 걱정거리로 휩싸여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지인은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멈춰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랐고, 그 결과 그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선한 생각은 사람에게 영적 건강을 가져다줍니다

— 게론다, 약한 생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무슨 뜻이에요? [약한 생각]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 선생님께서 ‘왼쪽’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행동에 화를 내면 사람은 ...

—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약한 생각’이라고 불렀나요?

— 누군가가 스승님께 수련생으로 남고 싶어 했을 때, 스승님께서 그에게 “네 생각은 약하니까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 아니요, 저는 그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네가 영적 건강이 없기 때문에 수련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 제가 그에게 한 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영적 건강이란 무슨 뜻인가요?” — 그가 물었습니다. — “너에게는 선한 생각이 없다.” —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 사람으로서 나에게 결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노련한 수도사처럼 어떤 미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네게 선한 생각이 없다면, 내 결점도 내 미덕도 너에게 해가 될 것이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미성숙한 동안에는 그 생각이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 헤론다, 모든 어른이 다 성숙한가요?

— 어떤 이들은 정신이 미성숙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소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가짐은 악으로 치우치고 모든 것을 뒤틀어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건전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선한 일조차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조차도 그런 사람을 괴롭힙니다.

— 게론다, 만약 [수도원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난다면, 범인을 찾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 먼저 네 자신이 그 일에 책임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라.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낫다!

— 게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나에게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할] 빌미를 준다면요?

— 네가 그들에게 똑같은 빌미를 몇 번이나 제공했느냐?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가 일어나는 일에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아마도 [이 혼란은] 그 자매의 잘못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왼쪽’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 그 자매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확신하나요?

— 아니요, 하지만 그 자매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었거든요.

—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왼쪽’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설령 그 자매가 정말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어떻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게론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자매에게 특정한 정욕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요?

— 자매님, 이구멘냐이신가요? 이구멘냐가 [여러분을 대신해] 책임을 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정욕을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왜 서로의 정욕이 어떤지 살피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은 아직 자기 수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수양을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캐묻지 말고, 그들 안에서 보는 것에 대해 선한 생각을 수양에 담으십시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간에, 선한 생각을 수양에 담으십시오. 선한 생각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고, 당신을 선하게 대하도록 이끍니다. 강도를 장로로 착각했던 수녀들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정체를 밝혔을 때, 수녀들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척하는 사람이라 강도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

니다. 그 후 수녀들은 그에게 두 배의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수녀들은 그 강도 자신과 그의 공범들까지 구해냈습니다.¹⁰

— 게론다, 자매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만약 네 탓으로 인해 그녀가 어쩔 수 없이 그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면? 아니면, 어쩌면 그녀가 [그저] 무언가를 깜빡 잊었을 뿐이고, 네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여관 주인이 요리사에게 샐러드를 조금 달라고 부탁했는데, 요리사는 없다고 말하지만 주인은 샐러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처럼. 만약 호텔 여직원이 선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 일에 정신이 팔려서 샐러드가 남아 있다는 걸 깜빡 잊었나 보네.”라고 말할 것이다. 아니면 이런 생각으로 자매를 변호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녀는 샐러드를 다른 [더 중요한] 경우를 위해 아껴 두기로 한 모양이야.” 너도 마찬가지다. 네게 영적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네게 영적 건강이 있었다면, 더러운 것조차 깨끗하게 보았을 것이다. 과일나무의 열매와 거름을 똑같이 바라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름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며,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점령 시절, 체질이 튼튼한 아이들은 옥수수 빵 한 조각을 양볼을 부풀리며 허겁지겁 먹었고, 건강이 매우 좋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반면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버터를 바른 밀빵을 먹었지만, 체질이 약해서 병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상황은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설령 누군가가 그를 부당하게 때린다고 해도,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의 죄를 속죄하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 선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그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도, 마치 당신을 때리려고 팔을 휘두르는 것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면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반면 술에 취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착하다면, 울면서 모든 이를 용서합니다. 어떤 착한 사람은 술에 취해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너, 나를 몹시 불친절하게 쳐다보네... 좋아... 너에게 금을 쏟아부어 주마. 양동이에서 바로!”

¹⁰ 고대 수도원 전설 중 하나에 따르면, 어느 날 강도 무리의 우두머리가 견고하게 요새화된 여자 수도원을 약탈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그는 수도사 복장으로 변장하고 수도원 문 앞에 찾아와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수녀원장과 수녀들은 그를 위대한 아바처럼 큰 예우를 다해 맞이했다. 수녀원 모든 수녀들이 모여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 “아바”의 발을 씻어 준 물은 수녀들이 일종의 성물로 간직했다. 한 마비된 수녀가 믿음으로 그 물로 몸을 씻자 병이 치유되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녀는 침상에서 일어나 스스로 “아바”에게 축복을 받으러 다가갔다. 일어난 기적은 강도 두목의 내면을 변화시켰다. 그는 회개하고 수도복 아래 숨겨 두었던 칼을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그의 공범자들도 수도사가 되어 엄격한 수행 생활을 시작하였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본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보고 유혹을 느낀다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파리에게 이 근처에 꽃이 있는지 물어보면, 파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하지만 저기 저 도랑에는 통조림 깡통과 거름, 오물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파리는 자신이 다녀온 모든 쓰레기장을 차례대로 나열하기 시작할 것이다. 반면 꿀벌에게 “이 근처에 오물이 있는지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오물? 아니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정말 많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꿀벌은 정원과 들판에 피어 있는 수많은 다양한 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파리는 쓰레기장밖에 모르는 반면, 꿀벌은 근처에 백합이 피어 있고, 조금 더 멀리서 히아신스가 피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벌과 닮았고, 다른 사람들은 파리와 닮았습니다. 파리와 닮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점만 찾아내어 그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선한 점을 조금도 보지 못합니다. 벌과 닮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선한 점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사고방식도 상합니다. 모든 것에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보지만,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보든, 무슨 말을 듣든 선한 생각을 발휘합니다.

어느 날, 체육관 2학년 학생인 한 소년이 내 칼리바에 찾아왔다.¹¹ 그는 철제 망치로 작은 문에 두드렸다. 읽지 않은 편지가 한 자루나 쌓여 있었지만, 나는 나가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자, — 내가 말했지, — 무슨 말이야, 꼬마야?” — “이곳이, — 그가 물었어, — 파이시 신부님의 칼리바인가요? 파이시 신부님을 만나야 해요.” — “칼리바는, — 내가 대답했지, — 맞지만, 파이시 신부님 본인은 없어요. 담배를 사러 가셨거든요.” — “보아하니,” 소년이 선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신부님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담배를 사러 가신 거군요.” —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말했다. “담배가 다 떨어져서 미친 듯이 가게로 달려간 거야. 나를 여기 혼자 남겨두고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조차 모르겠어. 그가 오랫동안 안 돌아오는 게 보이면, 나도 떠날 거야.”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고, 그는 — 다시 선한 마음을 품고 —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스승님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 “그분이 너한테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라고 내가 묻자, — “그분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요.”라고 그가 대답했다. — “무슨 축복이냐, 바보야! 그분은 미혹에 빠져 계시잖아! 저런 방탕한 사람 — 난 그 사람을 훨씬 알고 있어. 그러니 헛되이 기대하지 마. 그가 돌아오면 기분이 아주 나쁠 테니까. 게다가 술에 취한 채 나타날지도 몰라 — 그는 모든 일에 더해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 소년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는 모든 것을 선

¹¹ 러시아 중학교 6학년 수준에 해당한다. — 역자 주.

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좋아, — 그때 내가 말했다. — 파이시이스를 조금 더 기다릴게.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말해, 내가 그에게 전해줄게.” — “저한테는 — 그가 대답했다. — 스승님께 드릴 편지가 하나 있는데, 스승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 파이시라는 녀석이 미친 듯이 담배를 사러 달려갔어”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왜 담배를 사러 갔을까?”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 아마도 선행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네가 그의 생각을 망쳐 놓아도, 그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에 이른다. 이 아이는 나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런 건 처음 봤다.

거룩해진 사람의 생각과 악한 사람의 생각

— 게론다, 거룩함을 지닌 사람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 네, 그는 악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모두 알아봅니다. 그는 누군가가 저지르는 악을 보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는 사람 안의 내면도 봅니다. 그는 그 악이 유혹자로부터 온 것이며, 외부에서 사람에게 들어온 것임을 분별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크다고 보고, 타인의 죄는 작게 봅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 죄를 작게 보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임을 이해할 수 있지만, — 그 단어의 선한 의미에서 — 악한 사람의 교활함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으며, 그들을 자신보다 하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식적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악을 참아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악의를 보며, 그런 사람은 그 범죄자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지경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자신도 그 불쌍한 사람의 처지가 될 수 있었음을 이해한다. [악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은 사람은 많은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간사한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의인의 거룩함을 보면서도 그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마치 악마 자신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미묘한 수련을 행하는 사람은 타인을 옹호하고 자신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더 많이 전진할수록 더 큰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 선한 생각을 품기 때문에 악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의 생각은 항상 순수하며, 모든 것을 영적이고 거룩한 시각으로 바

라본다. 심지어 이웃의 실수조차도 그런 사람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를 위한 확실한 제동 장치로 삼아, 주의를 기울이고 파멸을 면한다. 반대로,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교활하게 생각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교활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의 교활함으로 인해 그는 심지어 선하고 좋은 것조차 더럽힙니다. 심지어 타인의 미덕조차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이는 살인자[마귀]의 검은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미덕조차 자신의 “해석적이고 교활한 사전”을 통해 해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혼란 속에 머물며, 자신의 영적 어둠으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영적 깨달음과 마음과 정신의 정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게론다, 그런데 왜 때로는 같은 사람이 한 번은 교활하고, 한 번은 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까?

— 이 경우 그는 그에 상응하는 영향과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교활한 생각은 마귀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 스스로가 교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종종 원수가 특정 상황을 만들어 한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아키만드리트가 제 칼리바에 찾아왔지만, 제가 그를 맞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왔을 때, 저는 중병을 앓고 있어 또다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 아르히만드리트는 제가 그를 만나고 싶지 않고, 그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거처가 소속된 수도원으로 가서 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헤론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보는 것입니까?

— 과연 모든 눈이 똑같이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까? 선명하고 맑게 보려면 영혼의 눈이 매우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눈이 건강해야만 사람은 내면의 순수함을 갖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헤론다, 왜 때로는 똑같은 사건을 한 사람은 축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불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 각자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해석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도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씩 주변에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점차 수도원은 사방이 세속적인 집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정에 저녁 예배

를 드렸는데, 아침 예배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평신도들도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을 막 시작한 한 젊은 수도사가 예배에 가면서 자신의 방 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고, 한 여자가 그 방으로 들어갔다. 수도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당황하며 말했다. “큰일 났다! 방이 더럽혀졌다! “다 끝났어, 망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알코올이 든 병을 집어 들고,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붓더니 불을 붙였다! “바닥 소독!”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수도원 전체를 태워버렸을 뻔했다. 그는 방의 바닥은 태워버렸지만, 자신의 마음속 생각은 태우지 못했다. 바로 그 생각을 태워버려야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악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수도사가 ‘그 여자가 경외심에서 내 방에 들어왔고, 유익을 얻고자 하며, [수도자의] 은총을 받아 집에서 스스로 수행하기를 원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그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것이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생각의 질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품고 있는 바에 따라 사물과 사건을 판단한다. 영적인 것이 없으면,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타인에게 불공정하게 대한다. 예를 들어, 밤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기를 원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한밤중에 거리에서 마주친 행인에 대해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밤을 죄 속에서 허비하는 사람은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행인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짐승 같은 놈, 밤새 어디를 헤매고 다녔단 말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는, 예를 들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밤에 위층에서 노크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절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반면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투덜거릴 것이다. “밤새도록 춤을 췄구나!” 어떤 사람은 선율 있는 노래를 듣고 “참 아름다운 교회 찬송가구나!”라고 말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화를 내며 “저기선 도대체 무슨 노래를 그렇게 고래고래 부르고 있는 거야!..”라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그분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둘 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으며, 둘 다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 사람, 즉 왼쪽에 매달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나를 구원하라.*”¹² 다른 한 명—오른쪽에 있던 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실대로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나, 이 사람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느니라.*”¹³ 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¹² 누가복음 23, 39.

¹³ 참조: 루카 23, 41.

제2장.

모독적인 생각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모독적인가

— 헤론다, 어떤 생각이 모독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우리에게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인들,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 심지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등에 대한 추악한 이미지가 떠오를 때, 그것이 바로 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 영적 지도자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나요?

— 영적 지도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나 성령님, 성모 마리아, 성인들, 혹은 당신—제 영적 아버지—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신성모독과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죄 때문에까지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도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마귀가 한동안 저에게 모독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랬죠. 저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마귀는 제가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들었던 저속한 말과 음란한 표현들을 [원료로 삼아] 성인들에 대한 추악한 생각을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생각들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제 영적 지도자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떠오르는 성소에 대한 더러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생각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괴로워했다. 모독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면, 나는 세례자 요한 성당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의 성화에 입을 맞추면 향기가 났다. 불경스러운 생각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다시 세례자 요한 성당으로 서둘러 갔고, 성화상에서 다시 향기가 퍼져 나왔다. 어느 날 성찬예배 중에 나는 그 성당에 있어 기도하고 있었다. 성가대가 닐레우스의 “*거룩하신 하나님*”¹⁴을 부르기 시작하자, 나는 제 자리에서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본당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 개 머리를 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작은 성당으로 쏜살같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의 입과 눈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괴물은 나를 향해 몸을 돌리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에 짜증을 내며 두 번이나 사나운 눈빛으로 발톱을 내밀며 위협했다. 나는 내 곁에서 기도하고 있던 수도사들을 흘끗 쳐다보았다. 혹시 그들도 [그 짐승]을 보았을지 모르지 않을까? 아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영성 지도

¹⁴ 닐레브스 카라마도스 — 19세기 후반 콘스탄티노플의 저명한 성가대원이며, 수많은 교회 성가를 작곡하고 비잔틴 교회 성가 이론을 정리한 인물이다.

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자, 그게 누구인지 봤나?” 영성 지도자가 내게 말했다. “바로 그 녀석이야. 이제 마음이 진정되었나?”

— 헤론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신성모독임을 항상 깨닫는 것입니까?

—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를 제대로 쓴다면, 사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헤론다, 지옥의 고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도 가슴이 아파하는데, 하물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추론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자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아십니다. 성 그레고리우스 더 디아로그스가 전한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포르투나투스 주교가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악마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도시로 돌아와 주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 없는 자가 나를 쫓아냈다!”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그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무슨 끔찍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아 너를 쫓아내게 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내 집으로 들어와 봐.” 악마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탁했다. “난로에 장작 좀 더 넣어 줘, 안 그러면 추워 죽겠어.” 주인은 두툼한 장작을 불에 던져 넣었고, 불꽃이 활기차게 타올랐다. 불이 제대로 타오르자, 악마는 집주인의 아이 몸속으로 들어갔다. 광란의 발작에 휩싸인 불쌍한 아이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고 말았다. 그때 집주인은 주교가 누구를 쫓아냈고, 누구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는지 깨달았다. 포르투나트 주교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악령을 쫓아낼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¹⁵

모독적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 게론다, ‘선한 무관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선한 무관심은 지나치게 예민하여 탄갈라슈카가 온갖 생각으로 괴롭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¹⁶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조금 무감각해지는 것이 좋으며, 특정 종류의 생각에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악마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선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비록 보통 그런 사람은 지나친 예민함으로 고통받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도 한동안은 선한 무관심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그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영적 지도자에게 털어놓고, 그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¹⁵ 참조: 성 그레고리우스 두오슬로브. 『이탈리아 교부들의 삶과 영혼의 불멸에 관한 대담』. 모스크바, 블라고베스트, 1996. 54쪽.

¹⁶ 노인은 악마를 이렇게 불렀다.

는 서서히 모든 것에 무관심해져서 정반대의 극단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 게론다, 제가 슬픔에 빠지면 왜 모독적인 생각이 드는 건가요?

—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탄갈라슈카가 이를 틈타 세속적인 사탕—즉, 최악된 생각—을 네게 슬쩍 건네는 것이다. 만약 네가 처음에 [이 생각이라는 사탕을 받아들여] 넘어간다면, 다음 번에는 그가 너를 훨씬 더 괴롭힐 것이고, 너는 그에게 저항할 힘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며, 대신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활동은 당신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저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그것들은 악마에게서 온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세심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당신의 감수성을 이용해, 어떤 생각들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심어줍니다. 악마는 당신의 마음을 그 생각들에 ‘붙들어 매어’ 놓기 때문에, 당신은 헛되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수녀원장님이나 심지어 저에 대한 나쁜 생각을 네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은 무시해라. 비방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너를 괴롭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너에게는 약간의 선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악마는 대개 경건하고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모독적인 생각으로 괴롭힙니다. 그는 그들을 슬픔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 자신의 눈에는] 그들의 타락을 과장합니다. 마귀는 그들을 절망에 빠뜨려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며, 만약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적어도 그들을 미치게 하고 무력화시키려 한다. 만약 마귀가 그것조차 성공하지 못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우울함과 낙담을 안겨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어느 날 나는 끊임없이 침을 뱉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아니요,”라고 내가 대답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된 바와 같이, 그 불쌍한 사람은 귀신 들릴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아로 자랐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었다. 게다가 그는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 병적인 상상력을 지녔다. 악마는 이 모든 것을 부추겨 그에게 모독적인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악마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을 때면, 그 불쌍한 사람은 저항하며 벌떡 일어나, 모독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그것을 “뱉어내곤” 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식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불쌍한 사람이 모독적인 생각을 뱉어내면,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한다.

종종 모독적인 생각은 마귀의 시기심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밤샘 기도 후에는 더욱 그렇다. 피로로 인해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적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때 악당 마귀가 너에게 모독적인 생각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나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런 생각은 마귀조차 가져오지 않을 텐데! 이제 넌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생각까지 심어줄 수 있으며, 그 후 이 죄, 즉 성령 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 헤론다, 모독적인 생각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까?

— 네. 사람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독적인 생각이 지나친 예민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만이나 비난, 그와 유사한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수련을 하면서 불신과 모독의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수련이 교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신이 시작되며, 사람은 신성한 은총의 보호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적절한 전제 조건 없이 교리적인 문제에 몰두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¹⁷

모독적인 생각에 대한 경멸

— 게론다, 아바 이사악은 우리가 정욕을 “겸손으로, 교만이 아니라” 이긴다고 말합니다.¹⁸ 어떤 정욕에 대한 경멸, [그 정욕에 대한] 교만, 그리고 모독적인 생각에 대한 경멸은 같은 것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정욕을 경멸하는 데에는 교만과 자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합리화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당신은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정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정욕은 내 것이 아니며,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그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모독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경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어떤 정욕을 가진 것처럼 가장한다면, 예를 들어 식탐에 빠진 사람인 척 한다면, 그것으로 마귀를 조롱하는 것이 될까요?

¹⁷ 즉, 경건함, 겸손, 교회에 대한 순종과 같은 영적 전제 조건이나, 교육, 재능, 그리스어 구사 능력 등과 같은 외적 전제 조건을 말한다. — 역자 주.

¹⁸ 그리스어 원문에는 “διά της ταπεινώσεως, καὶ ὄχι διὰ της περιφρονήσεως.”라고 되어 있다. S. I. 소볼레프스키의 러시아어 번역본에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정욕을 이길 때”라고 되어 있다. 참조: 아바 이사악 투 시로스. Οἱ ἀσκητικοὶ λόγοι. Ἐπιστολή Δ'. Ἐκδ. “Ἀστήρ.” Ἀθῆναι. 1961. 329쪽 및 같은 책, 성자 아바 이사악 시리아인의 수도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255쪽.

— 이 경우 그는 선한 위선으로 위선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마귀를 조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모독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당신이 교회 찬송가를 부르면 비로소 마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 헤론다, 예배 중에 모독적인 생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나요?

— 찬송으로. “내 입을 열어...”¹⁹ 너, 악보대로 노래 부르는 법을 모르니? 그 생각을 파헤치지 말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기도예 몰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수류탄을 돌리는 병사와 같다.

— 만약 모독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가 네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귀를 경멸하는 것이다. 모독적인 생각 뒤에는 바로 그, 교활함의 스승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모독적인 생각이 몰아칠 때는 예수님의 기도조차로 그들과 싸우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외우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되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려 끝없이 모독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교회 찬송가를 부르는 편이 낫다. 보라, 어린아이들도 또래 친구에게 경멸을 드러내고자 할 때, “트루-라-라” 같은 여러 가지 노래로 그 아이의 말을 끊곤 한다. 우리도 마귀를 대할 때 똑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성스러운 찬송으로 그에게 경멸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 찬송은 단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한 경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악한 자는 양쪽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아 터져 버릴 것입니다.

— 게론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저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체 성사조차 받기 쉽지 않습니다.

—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탄갈라슈카가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래도 하고 성체도 영하십시오 — 어차피 그 생각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까요. 적어도 이 일[생각들의 싸움 중]에서는 제 말에 순종하여 단 한 번만 “합당하도다”를 불러 주십시오. 그래야 탄갈라슈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폰의 한 수도사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없나? 열두 살 때 고아가 되어 성산에 온 아이였다.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잃은 그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어머니께 바쳤다. 그는 그분께 친어머니를 대하듯 같은 정을 품었다. 네가 그가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성화에 입맞춤을 했는지 봤더라면! 그런데 원수가 그 사랑을 이용해 그에게 모독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불쌍한 그는 심지어 성화에 입을 맞추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이를 알게 된 그의 스승은 그의 손을 잡고, 성화에 그려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와 구세주의 얼굴과 손에 입을 맞추게 했다. 그 직후 악마는 도망

¹⁹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 축일 캐논 제1곡의 이르모스 서두.

쳤다. 물론, 성모 마리아와 구세주의 얼굴을 직접 입맞추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를 괴롭히던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수도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모독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가

— 게론다, 제가 모독적인 생각을 느끼지만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을 때,²⁰ 저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까?

— 만약 당신이 괴로워하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책감은 없습니다.

— 게론다, 사람이 모독적인 생각에 대해 스스로 죄를 지을 때는 언제입니까?

—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그 생각과 대화를 나누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모독적인 생각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큰 악마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오른 모독적인 생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비록 미미한 수준일지라도 귀신 들림에 빠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 그런 생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 만약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괴로워하며 그것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양식을 얻지 못한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을 주지 않는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생각들에 양식을 주는 셈이 되어 자신의 낡은 사람을 ‘물주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생각들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 헤론다, 저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모독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휩쓸리다가, 나중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게 됩니다.

—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어느 순간 네가 무언가에 정신이 팔리고, 탄생각에 빠져 입을 벌린 채 까마귀를 세기 시작한다. 그때 탄갈라슈카가 네게 슬그머니 다가와 네 벌어진 입에 사탕을 던져 놓는다. 너는 입안에서 그것을 굴리기 시작하고, 그 맛을 느끼면, 이미 뱉어내기 힘들어진다. 그 ‘단맛’을 간신히 느끼자마자 바로 뱉어내야 한다.

— 게론다, 만약 제가 잠시 나타난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품었다가 곧바로 떨쳐낸다면요?

²⁰ 금욕주의 용어집에서 “유혹”(그리스어 προσβολή)이란 형상이 수반되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최악된 형상과 환상이 나타나고 지속되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한 “동의”(그리스어: συγκατάθεση)를 나타내며, 이는 내면적으로 죄에 굴복하는 것이므로 회개를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참조: 성 마르코 수도자. 『영적 법에 관한 200장』. 139-142장 및 『선행』 (러시아어 번역본). 제1권.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532쪽. — 역자 주.

— 이 경우 악마는 너에게 사탕을 주고, 너는 그것을 뱉어내지만 — 바로 뱉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뱉는 것이다. 즉시 뱉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사탕으로 너를 속인 악마는 나중에 너에게 쓴 약을 먹여 너를 조롱할 것이다.

제3장.

생각에 대한 신뢰

생각에 대한 신뢰 — 유혹의 시작

— 헤론다, 저는 화가 나면 거센 물줄기처럼 되어서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나요?

— 제 생각을 믿기 때문이에요.

— 글썄, 그렇다면 너에게는 너만의 ‘믿음’, 너만의 ‘신조’가 있는 셈이구나! 모든 것은 이기심 때문이다. 네 생각을 정당화하지 마라. 그 어리석은 생각을 스스로 버리고, 받아들이지 마라.

— 그런데 어떤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을 어머니 이구멘니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모두 따르며, 그 생각을 단번에 떨쳐버리세요. 영적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미혹의 시작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어두워지고,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신이 흐려지는 편이 낫다. 그럴 경우 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 게론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입니까?

—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타인의 도움이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거룩하다는 등의 생각을 심어주는 자신의 속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본인이 붙잡고 있다면, 대포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그런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악마가 심어 놓은 폭약 밧줄을 스스로 내버려 둔다면,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화약통 위에 앉아] 손에 심지를 쥐고 있으면서, 폭발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게론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어요...

—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니? 설마 네 자신의 생각이 아니겠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성산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넌 미치지 않았어,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네 생각에 믿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분명히 너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네 생각을 믿지 마라: 네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말할 때도, 너를 성자라고 칭송할 때도 말이다.

생각을 믿는 것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진다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 한 사람만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 그 생각은 사람을 병들게 하려는 악마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는 무관심하게 대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단 한 톨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의심 많은 사람이 지인 두 명이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들이 나 뒷담화를 하고 있구나! ‘그들에게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는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방치하면 점차 ‘기세를 타게’ 되어, 결국 그 사람은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는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그 적 자신이 [주입된 생각의 진실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악마는 참으로 교활한 조작자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매우 똑똑한데도, 마치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듯한 생각을 주입하는 그 속삭임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탕갈라슈카가 가져다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청년은 스스로 수많은 콤플렉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했고, 부모님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재능을 주셨지만, 원수는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스스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탕갈라슈카의 속삭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까지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가져다주는 생각들을 믿는 것을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그와 나누는 모든 대화는 기력만 갉아먹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 게론다, 감수성이 예민한 것은 영혼의 연약함, 병인가요?

— 아닙니다. 자비심과 감수성, 예민함은 타고난 재능이지만, 불행히도 마귀가 [때때로] 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종종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 상황을 과장하도록 부추겨, 어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조금만 견뎌도 지쳐버리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상처를 입게 만듭니다. 타고난 감수성과 예민함을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악마가 이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악마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는 셈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모든 것을 뒤집어 이해해 버리는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믿는다면, 이는 그를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가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삶의 사소한 일들!”이라며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무관심한 사람도 칭찬할 만한 점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탄갈라슈카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무거운 유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린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탄갈라슈카가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설득하려고 애쓴다. 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무력화시키려 한다. 설령 사람에게 정말로 유전적인 무엇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그 무엇도 견딜 수 없다. 성 키프리아노⁽²¹⁾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과거에 주술사였으나, 교회의 성직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성 모세 무린⁽²²⁾은 어떠합니까? 그는 처음에는 강도였으나, 수도 생활을 통해 많은 위대한 교부들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지! 성 마카리우스가 그를 찾아왔을 때, 성 모세 신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서 침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 “모세여,” 아바 마카리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매우 예민하군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²³

성 모세—이 전직 강도—는 명문 가문 출신에 교양 있고 문화적인 인물이었던 성 아르세니우스 대성인조차도 영적 성숙의 미묘함에서 뛰어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러나 성 모세에 대해서는 그가 지대한 겸손을 지녔다는 점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기이한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 헤론다, 경멸심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 뭘 경멸하느냐? — 뭐든지 다요.

²¹ 성 순교자 키프리아노의 기념일은 10월 2일입니다.

²² 모이세이 무리노 성인의 기념일은 8월 28일입니다.

²³ 『성인과 복자 성부들의 고행에 관한 기념할 만한 전설들』 참조. 모스크바, 1845. 147쪽.

— 그럼 너한테는 뭐든지 다 걸리게 될 거야. 사과 속의 벌레도, 콩 속의 벌레도, 빵 속의 털도...

— 게론다, 저한테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걸리거든요!

—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 게론다, 그런 일들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자매가 접시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치죠. 그럼 그냥 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 아니, 절대 버리면 안 돼! 그 머리카락은 그녀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꼭 나에게 주게 하라. 내가 그것을 아픈 산으로 가져가서 축복으로 삼을 테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시나이 산에서 한 수도사와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제가 그에게 복숭아 두 개를 주었죠. 보니 먹지 않더라고요. 그는 먼저 씻고 싶었지만, 주머니에 넣는 건 두려워했어요. 주머니에 있는 세균이 복숭아로 옮겨갈까 봐서요. 그래서 가는 내내 손에 들고만 있었죠. 그의 형이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에게는 여덟 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는데, 아이들 모두를 씻기고 빨래하는 데 쓰는 비누 양보다 그 혼자 손 씻는 데 쓰는 비누가 더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 시나이 산에서는 각 수도사에게 베두인 한 명씩을 배정해 도와주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의 일을 시켰습니다. 까다로운 수도사에게 배정된 베두인은 그 중 가장 더러운 자였다. 굴뚝 청소부처럼 검었다! 그의 옷도, 그 자신도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그 더러운 녀석을 씻기려면, 일주일 내내 물통에 담가 놔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은 또 어땠는지!..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낫다. 주걱을 들고 그 위에서 진흙을 통째로 긁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지저분한 녀석은 음식이 담긴 그릇을 옮겨주고 자신의 ‘담당’ 수도사에게 서둘러 갔다. 그때마다 그의 더러운 두 엄지손가락은 어김없이 수프나 죽 속에 파묻혀 있었다. “물러가, 물러가!..” — 수도사는 문턱에서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결국 그는 시나이에서 두 주도 채 머물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공동 생활 수도원에는, 세속에서 순찰 경찰관으로 일했던 수도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교양이 있었기 때문에 성당에서 독서자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경멸했다. 문 손잡이는 손도 대지 않고 발로 문을 열곤 했다. 걸쇠를 들어 올려야 할 때는 팔꿈치로 하고, 그 후 소매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내곤 했다. 심지어 교회 문도 발로 열었다. 그가 늙어가자, 하느님의 허락으로 그의 다리가 썩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구더기가 들끓게 되었다 — 특히 그가 성당 문을 열던 그 다리에 말이다. 내가 수도원 병원에서 의무 보조자로 근무하며 의무조무사를 돕고 있을 때, 그는 마침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그곳에 처음 찾아왔다. 의료 보조원은 나에게 그의 다리 붕대를 풀어주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붕대를 가지러 갔다. 오, 붕대를 풀었을 때 내가 본 광경은 무엇이었는가! 다리 전체가 구더기로 우글거리고 있었다! “바다로 가세

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다리를 씻고 구더기를 깨끗이 씻어내세요. 그다음에 다시 오면 우리가 봉대를 감아 줄게.” 그가 도대체 어디까지 와 버린 건가! 그에게 닥친 벌이 이토록 끔찍하다니! 나는 그저 경악할 따름이었다. “원인이 뭔지 알겠나?” — 의무원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 — 내가 대답했다. — 원인은 그가 발로 성당 문을 열기 때문이야.”

— 헤론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계속 발로 문을 열었습니까?

— 네, 발로요! 게다가 수도 생활로 늙어가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 그는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건가요?

—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후 그 수도원을 떠나 코니체에 있는 스토미온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같은 수도원의 몇몇 젊은 수도사들은 늙은 수도사들의 접시에 남은 음식을 — 마치 축복인 양 — 굶어먹곤 했습니다. 그들은 선배 수도사들이 남긴 “남은 음식”을 주워 모았죠. 다른 수도사들은 [경건함으로] 문 손잡이에 입을 맞추곤 했는데, 그 손잡이에 스승님들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상에 입을 맞출 때 콧수염으로 살짝 스치기만 하더니, 그 후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꼼꼼히 닦아내곤 했어요!

— 게론다, 사람이 성물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까?

— 처음에는 단순히 혐오감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수도사처럼 말이죠. 그는 이전에 성상에 입맞춤했던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을까 봐 두려워서 성상에 입맞춤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온갖 세균을 잔뜩 먹고 삽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십자 성호를 긋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아시나요? 아토스 산에 있는 제 칼리바를 얼마나 많은 다양한 환자들이 지나가는지? 그런데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십자 성호를 긋고, 공용 주전자를 들어 그 물을 마십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주전자에 손만 대는 것조차 두려워하죠. 며칠 전, 어느 기관에서 매우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세균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알코올로 닦는 바람에 손이 분필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동차까지 알코올로 닦아댁니다. 저는 그 불쌍한 사람이 안타까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상자에서 루콤 한 조각을 꺼내 그에게 건넸지만, 내가 직접 손으로 루콤을 만졌다는 이유로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상자에서 직접 루콤을 꺼내라고 제안했더라도, 누군가 씻지 않은 손으로 상자에 루콤을 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어차피 거절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 루콤 한 조각을 집

어 들고 몸을 숙여 그의 구두를 닦은 다음 먹어버리겠다. 그와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만 했고, 그제서야 큰 고생 끝에 겨우 그를 그 병약함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시킬 수 있었다. 바로 오늘도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한 젊은 여성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세균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며 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돕고 싶어서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 주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떠날 때에도 다시 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에 입을 맞추지 않을게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세균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암울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상상력에 병든 사람들

가장 무서운 병은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에 걸렸다는 생각을 믿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을 불안으로 짓누르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식욕과 수면을 앗아가고, 약을 먹게 만들며, 결국 건강한 사람도 실제로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저는 정말로 무언가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건강했다가 나중에 스스로를 병자라고 여기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실제로 병에 걸리는 것—그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힘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믿어버린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다고 믿게 된 사람은 공포에 휩싸여 무너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를 무력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가끔은 심하게 좌절한 사람들이 내 칼리바를 찾아오곤 한다. “생각해 보니 제가 에이즈인 것 같아요,”라고 그들은 말하며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 “혹시 네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니?”라고 내가 묻는다.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합니다. “헛되이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검사를 받으러 가보세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대답합니다. “검사 결과 제가 역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괴로워합니다. 반면 순순히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에이즈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변하고, 삶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반면 처음에 말했던 사람들은 우울감 때문에 침대에 누워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합니다. 좋아요, 설령 네가 정말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치자. 하지만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네가 더 영적인 삶을 살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 계론다, 사람은 왜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나요?

—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조금씩 키우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데에는 실제로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빌미로] 그 생각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심어주고,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 버리는 것이죠. 제가 스토미온 수도원에 살 때, 코닌에 결핵에 걸렸다고 생각하던 한 기혼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가오지 마,” 그가 아내에게 말하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될 거야.” 불쌍한 아내는 긴 막대기 끝에 음식 바구니를 매달아 멀리서 그에게 건네주곤 했다. 가엾은 여인은 완전히 지쳐서 쇠약해져 버렸다. 불쌍한 아이들은 ‘결핵’에 걸린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사실 그에게는 결핵 따위는 전혀 없었다. 문제는 그가 햇볕을 전혀 쬐지 않고, 항상 잠긴 방에 이불을 두르고 지냈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피부가 누렇게 변했고, 자신이 결핵에 걸렸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나를 보자 “환자”는 신음하며 말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스님. 당신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당신 수도원에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보라, 폐결핵이 나를 완전히 꺾어버렸어...” — “누가 네게 폐결핵이라고 말했니, 바보야?” — 내가 물었다. 그 때 그의 아내가 나에게 호두 잼을 가져다주었다. “자, — 내가 말했다, — 입을 벌려 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자, 그는 입을 벌렸다. 그는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랐으니까. 그 때 나는 접시에서 달콤한 호두 하나를 집어 그의 입에 넣어주고, 입안에서 몇 번 굴린 뒤 꺼내서 내 입에 넣고 먹어버렸다. “안 돼, 안 돼! — ‘결핵 환자’가 소리쳤다. — 그러지 마! 감염될 거야!” — “거기서 내가 뭘 감염되겠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정말로 결핵에 걸렸다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자, 일어나. 바람 쐬러 가자!” — 내가 그에게 대답하고는, 그의 아내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 약들, 이불들 전부 버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3년 동안의 ‘감금’ 생활 끝에 그는 놀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서서히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키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 계론다, 근거 없이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면 영적 지도자를 두고, 그를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것이고, 지도자는 이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저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만약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방탕하게 살며 마음의 불안으로 고통받는 한 청년이 담배 연기로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 제 칼리바에 찾아와 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일종의 위선적인 경건함까지 있다. 그는 내가 내 거처 성당의 성상벽에서 성화를 하나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입에 담배를 문 채로 내 방에 들어온다. “형제여,”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 담배 때문에 네 눈이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구나. 나는 내 방에서 노인들에게조차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는 향에서 나는 연기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고, 그게 전부였다. 도움을 청하러 오면서도 자신의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왜, — 그가 묻는다, — 나를 고쳐주지 않으려는 거야?” 건강해지고는 싶지만, 마법 같은 방법[수고 없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말이다. “너는, — 내가 그에게 말한다, —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에게는 아무런 병도 없잖아. 그대는 그저 자신의 생각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소년이 순종했다면,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조언을 듣는 사람은 빠르게 전진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평온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신부가 수도원에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그에게 합창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거절했다. “왜, —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 노래하지 않습니까?” — “왜냐하면, — 그가 대답했다, —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날카로운 칼이 있다.’*²⁴ 그는 노래하는 것이 나쁘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올릴” 경우 “양날의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야,” 수도사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의 보배야,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버티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뜻을 통할 수 있겠는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설령 그의 “해석”이 옳았다 하더라도, 그가 타인의 실수에 순종했다면 은혜를 받았을 것이며, 그가 겸손해졌다는 이유로 주어졌을 그 은혜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 네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해석해 버린다. 게다가 악은 사람이 단 한 번 자신의 생각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악은 배가되고 커져만 간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키워 나가며, 이는 그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짓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 “그 집은 무너져서 너를 잔해 아래에 묻어버릴 거야!” 만약 그가 건축 초기에 그 조언을 따랐다면, 잘못 지어진 것은 쉽게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건물이라면, 어떻게 감히

²⁴ 시편 149, 6.

손을 들어 그것을 허물 수 있겠는가? “그게 너를 깔아뭉개버릴 거야,”라고 사람들은 그에게 말한다. 그는 건물 자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알고 위험을 인식하지만, 건축에 얼마나 많은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그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작품을 허물지 못하고, 결국 잔해에 깔려 죽고 만다.

—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 그 사람이 스스로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는데도 그가 스스로를 변명한다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이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당뇨병은,”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니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 청년이 의사의 말을 듣는다면, 병은 심각한 후유증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와 상호 이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당뇨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나는 단 것을 먹을 거야. 왜냐하면 단 것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 이불 없이도 잘 수 있고 심지어 맨발로 눈 위를 걸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상호 이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 게론다, 만약 청년이 자신의 생각을 믿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 청년이 자신의 생각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이기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럼 그는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몇 가지 일화를 떠올려 보면, 그때 자신에게 이기심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두 소년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폼으로 채워진 베개를 집어 쉽게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도 다가와 베개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마치 베개 대신 시멘트 자루를 든 것처럼 매우 무거운 척했습니다. 이 두 번째 소년에게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 더 자라면, 자신의 행동이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여 자신의 정욕에서 해방되고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지 않으시니까요.

— 게론다, 가정해 봅시다. 제게 어떤 경험이 있다고 치죠. 만약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에도 자만심이 있는 것입니까?

—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도의 마음에 들자마자, 그는 곧바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²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익사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럼 익사하라.”

²⁵ 마태복음 14, 28-31 참조.

겸손한 사람을 보라: 그는 기적을 행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요르단에는 기적을 행하던 아주 소박한 사제 한 분이 계셨다. 그는 병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기도를 올려 주면 그들이 낫곤 했다. 심지어 어떤 병으로 고통받던 무슬림들조차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그들을 치유해 주었다. 성찬식을 집전하기 전, 이 신부는 따뜻한 음료와 마른 빵을 조금 먹은 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가 성찬식 전에 음식을 먹었다는 소문이 총대주교에게까지 전해지자, 총대주교는 그를 총대주교청으로 불렀다. 왜 불려갔는지 알지 못한 채 사제는 총대주교청에 도착해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응접실에서 호출을 기다렸다. 밖은 몹시 더웠고, 창문은 덧문으로 닫혀 있었으며, 응접실의 작은 틈새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햇살을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로 착각한 땀에 흠뻑 젖은 신부는 사제복을 벗어 그 햇살에 걸어두었다. 그와 함께 응접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중 한 사람이 총대주교에게 가서 말했다. “성찬식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 신부가 자신의 사제복을 햇살에 걸어두었습니다!” 총대주교는 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물었다. “자, 생활은 어때? 성찬식을 자주 집전하니?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 “뭐, — 신부가 대답했다. — 먼저 아침 기도를 읽고, 그다음 절을 올리고, 차를 준비한 뒤 가벼운 식사를 하고 미사를 드리러 갑니다.” — “왜 미사 전에 식사를 하는 거니?” — 총대주교가 물었다. “만약,” 그가 대답했다. “제가 성찬식 전에 조금이라도 간식을 먹으면, 성체를 영한 후²⁶ 그리스도가 제 위에 계십니다. 하지만 성찬식 후에 먹으면, 그리스도가 제 아래에 계십니다.” 알고 보니, 그는 선한 마음으로 성찬식 전에 아침 식사를 했던 것이었다!.. “아니요,” 총대주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먼저 성체를 모신 다음, 그 후에 조금 드세요.” 사제는 총대주교에게 절을 올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이 사제가 기적을 행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제멋대로인 태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사람과 동물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나에게 지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내 생각이 더 옳다. 내가 그의 말을 따르면, 내일 아침 식사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질 테니까!”

나는 순종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조차도 순종함으로써 철학자, 현자가 된다. 사람이 똑똑하든 어리석든, 건강하든 병들었든(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만약 그가 생각에 시달리면서도 순종을 실천한다면, [생각의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순종은 해방이다.

²⁶ 평신도들의 성체 영성체, 전례의 종결, 안티도라 분배가 끝난 후, 사제나 부제는 성배에 남아 있는 성체를 섭취한다.

가장 큰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며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사람에게 제멋대로인 성향, 자만심, 자기 만족이 있다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 심지어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 해도 —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그는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리며,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적 지도자 대신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 만약 그 정신과 의사가 신앙인이면, 그들을 영적 지도자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정신과 의사는 그저 약을 처방해 주는 데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면 영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제4장.

생각과의 싸움에 대하여

— 게론다,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와의 전쟁 당시 그리스인들은 먼저 적의 요새를 파괴한 다음,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 마귀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즉, 먼저 비행기로 요새를 폭격해 파괴한 뒤 포병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감행하는 적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먼저 생각으로 사람을 폭격한 다음 그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먼저 사람의 생각을 타락시키지 않고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선한 생각이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선한 생각은 바로 그의 ‘방호막’이다.

“왼쪽”에서 오는 생각은 이물질과 같으므로, 사람은 이를 배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싸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 누구도 자신이 약해서 싸울 힘이 없다는 이유로 변명할 수 없다. 결국 [선한 생각]은 [약한] 사람이 손이 떨려 들 수 없는 곡괭이나 큰 망치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왜 제가 누군가의 기이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 게론다, 저는 계속 ‘왼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싸우기는 하지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수는 없네요.

— 네가 불순한 생각을 분별하고, 걱정하며, 그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다면,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악마가 ‘왼쪽’ 생각으로 너를 공격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때, 힘껏 키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적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자

신의 내적 수련에 눈에 띄지 않게 몰두하고 있는 어린 자매들과 연장자 자매들에 대해서도 선한 생각을 품도록 노력하라. 결국 탄갈라슈카는 네 영적 성장을 지연시키기 위해 네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네가 자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거대한 영적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모든 영적 삶은 생각에 기초합니다. 영적 삶에서의 성취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 게론다, “왼쪽”에서 오는 생각들과 싸우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 [자신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자신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선한 생각을 일에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컵을 보면 성배와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반면,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네 마음은 온갖 비영적인 것들, 심지어 명백히 죄가 되는 대상으로 쓸릴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온갖 잡생각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생각들을 쫓아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외우고 내면을 차분히 가다듬어라. 만약 네 마음이 어딘가로 떠돌아간다면, 다시 그 마음을 되돌려라. 이를 끊임없이 실천하라. 마음이 이리저리 맴돌게 두지 마라. 설령 네 마음이 명백히 죄가 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중립적인 것들 사이를 맴돈다 해도, 이러한 중립적인 것들은 마음을 산만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마음은 헛되이 낭비되고 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만함에서 생겨나는 생각들은 [노골적으로] 악한 생각들보다 더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어떤 생각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수녀원에서 몇 년이나 지냈는데도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어...”

— 자, 그 생각이 너에게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내가 알기로는, 네가 탄갈라슈카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구나. 그가 얼마나 [쉽게] 너를 손바닥 위에서 놀리고 있는지! 왜 탄갈라슈카를 믿는 거니? 왜 평정심을 잃는 거니? 평온을 유지해라. 당신은 헛되이 속상해하고 이유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어요. 탄갈라슈카는 마술사처럼 모든 것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죠. 그는 당신에게 어둡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혼란을 주어, 당신의 시간을 뺏고 기도에서, 그리고 순종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네 머리를 조금이라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와 싸울 의지를 꺾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가 공세에 나서 새로운 거점을 점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은둔 속에서 수련할 때는 다음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악한 생각이 속삭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즉, [생각의] 주제를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화제를 바꾼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방문객과 대화하는 도중, 바로 그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말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말을 끊거나, 어떤 소음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를 방해하여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멈춰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런 계획을 꾸미고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도 그에게 똑같이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명하게 행동하여 그 멍청이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세요.

— 게론다, 저를 슬픔과 낙담이 괴롭힙니다...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보세요, 아직 고문당하러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괴로워하고 있네요! 당신에게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생각들이 이미 당신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오른쪽’의 생각이 필요하다. 네 [영적] 사업의 교활한 메커니즘을 선한 것이 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사업은 바로 ‘선한 생각’ 공장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 네 마음은 나쁘고 추악한 것조차도 선하고 좋은 것으로 재가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 안에서 영혼을 보고, 그 안에서 천사를 볼 때, 너 자신도 천사처럼 하늘로 치솟게 된다. 이 경우 네 삶은 축제이자 환희이다. 반면, 사람 안에서 육신적인 면만을 본다면, 너 자신도 지옥의 고통 속으로 내려가게 된다.

— 게론다, 가끔 저는 일에 선한 생각을 담으려 하지만, 곧 ‘왼쪽’에서 오는 생각이 들어와 제 모든 [선한 노력]을 망쳐버립니다. 혹시 제가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선한 생각을 일에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 중요한 것은 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왼쪽’에서 오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외부에서 온 생각이다. 쫓아내야 한다. 이 주제는 끝났으며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게론다, 가끔은 ‘왼쪽’에서 오는 생각을 간신히 쫓아내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제는 종결되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 글썄, 주제는 끝났지만, 그 ‘탕갈라슈카’는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거든. 악마는 끈질겨서 절대 죽지 않아. 한 노승이 이렇게 말했지. “개에게 한두 대 때리면 도망가지만, 악마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정말 집요하단 말이야!” 그를 쫓아내기 위해, 나는 내 케야가 봉헌된 성인의 성화상 앞에 촛불을 켜면, 악마들이 나에게 말하죠. ‘이거 우리에게 촛불을 켜 거야?’ — ‘아, 이 녀석들아,’라고 내가 말하죠. ‘이 썩을 놈들아, 도대체 왜 너희에게? 너희가 아니라 성인을 위해서지!’ — “그래, — 그들이 대답하길, —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널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건 우리야!”

— 게론다, 혹시 어떤 불행이 닥치면 “오,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런 사람이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람이 모든 것을 선한 생각으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 그는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자동차에] 좋은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삶을 위한 많은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들의 핸들은 필요한 방향으로 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핸들을 선한 생각 쪽으로 돌리면,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항로를 잡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가꾸기

— 게론다, 선한 생각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 가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통제해야 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나쁘고 악한 생각을 가져올 때, 그것을 몰아내고 선하고 착한 생각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련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내적] 성향을 가꾸어 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이며, 그 후로는 나쁜 생각들이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당신에게는 선한 생각을 품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너는 선함에 익숙해지고, 네 마음속에 선함이 들어올 것이며, 그때 네 내면의 성전에서 [하늘의] 손님인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영혼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과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싸움은 완전히 끝납니다. 왜냐하면 [정욕의] 싸움은 내면의 불화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적들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까, 게론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 이를 이룬 것입니까?

— 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삶을 시작할 때부터 선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이들은 처음에는 선한 생각을 가졌으나, 나중에는 경계를 늦추고 “그릇된” 생각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처음에 “그릇된” 생각을 가졌지만, 스스로를 관찰하며 몇 번이나 실수하는지 깨닫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 뒤에는 결국 선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절반이 선하고 절반이 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선한 생각이 우세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악한 생각이 우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승려가 되려고 한다. 그가 세속에서 살았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에게는 다양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다. 그에게는 10~20%, 심지어 80%에 달하는 나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내면의 수련을 시작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그런 사람은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선한 생각을 가꾸려고 노력한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 선한 생각만 갖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나쁜 생각이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가 세속 생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품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선한 생각들도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은 일종의 공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

람에게는 선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없으며, 이는 오히려 그의 영혼에 일종의 불안감을 안겨 준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이게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나에게 악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사라지고 선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공허함이 지나가면 마음은 신성한 은총으로 가득 차고 신성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 헤론다, 그 신성한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별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별은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태양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게론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그 비움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 영적 독서, 끊임없는 기도, 침묵, 그리고 정결한 수행—즉 금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열렬히 물리치려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 거의 없었던 사람보다 더 나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삶의 초기에 악한 생각이 아흔 개, 선한 생각이 열 개였던 사람이, 선한 생각이 아흔 개, 악한 생각이 열 개였던 사람보다 더 나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정화

— 게론다, 마음과 영혼의 정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영이 정화되려면 사람은 탄갈라슈카가 가져다주는 교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도 교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선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 노력해야 하며, [타인의 결점]에 쉽게 유혹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실수를 관용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한 생각이 늘어날 때, 사람의 영혼은 정화되고, 그는 경건하게 행동하며 평온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낙원이 된다. 반대로, 모든 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한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화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도 교활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해 선한 생각을 품는다면, 마음과 정신은 정화될 것입니다. 물론, 유혹자는 때때로 우리에게 교활한 “전보”를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한] 생각을 떨쳐내더라도, 악마의 유혹이라는 화살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면, 악마의 유혹은 그 마음에 달라붙지 않을 것입니다.

— 게론다, 기도가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동안 킬로그램 단위의 유행을 태울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이 타인에 대한 교활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교활한] “전보”가 심장으로 내려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갖기를 원하십니다.²⁷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은, 타인에 대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 게론다, 먼저 사람 스스로 선한 생각을 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 보라: 오직 사람 스스로 선한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만, 그는 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선한 생각으로 사람은 자신의 교활한 마음을 정화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²⁸ 이 모든 악이며, “*마음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입이 말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선한 생각을 행동에 담는 사람이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상을 주십니다.

의심스러운 생각 뒤에는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 게론다, 제가 의심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말] 모든 것이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확신하니? 평소 모든 일에서 나쁜 면만 보는 편이라면,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 뒤에 항상 물음표를 붙여라. 게다가 판단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타인에 대한 선한 생각도 함께 담아라. 만약 자신의 생각 뒤에 물음표를 하나 대신 두 개씩 붙인다면 더 좋을 것이다. 세 개라면 정말 좋다. 이렇게 행동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다. 반대로, “왼쪽”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짜증이 나고, 불안해하며, 낙담하게 되어 자신에게 영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잠시 후 그 일이 실제로 네가 선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았던 그대로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왼쪽”[나쁜]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사례를 들려주겠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내 칼리바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람람피이 장로³⁰는 주술사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가] 주술을 걸고 있었어요.” —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뻔뻔한 녀석아! — 제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 “네!

²⁷ 시편 50, 12.

²⁸ 마태복음 15, 19 참조.

²⁹ 참조: 루카 6, 45.

³⁰ 하람람피이 장로(1914-1998) — 카프살레에서 수도 생활을 한 아토스 산의 수도사이며, 파이시이 장로의 동시대인. — 역자 주.

네! — 그가 고집을 부렸다. — “제가 직접 봤어요.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에서 그 노인이 ‘음-음-메... 음-음-메...’ 하고 중얼거리더니, 큰 짚으로 감싼 병에서 어떤 액체를 덩불 속으로 쏟아 붓는 걸요!” 뭐, 어쨌든 나는 짚이 나는 날을 골라 할라람피이 노인의 칼리바로 향했다. “자, — 내가 물었다. — 할라람피 신부님, 근황은 어떠신가요? 생활은 어때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누군가가 신부님이 큰 병에서 덩불 속으로 무언가를 붓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음-음-메!’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고요.” — “저 덩불 속에,” — 장로가 저에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 “백합이 몇 송이 자라고 있어서, 제가 물을 주고 있었어요. ‘기빠하라, 신부여, 신부 아닌 신부여!’³¹ 를 흥얼거리며 한 송이 꽃에 물을 조금 부은 다음, 다시 노래를 불렀죠: ‘기빠하라, 신부여, 신부가 아닌 신부여!’ — 하고 다른 꽃에 물을 조금 부었고... 그러고는 물병을 채운 뒤, 다시 꽃들 곁으로 돌아가 물을 주곤 했지...” 보라, 이렇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노인을 주술사로 오해해 버렸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참으로 선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구나! 반면 다른 불쌍한 이들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마조차 생각해 낼 수 없는 것들로 인해 그렇게나 고통받고 있다! 어느 날, 끔찍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나는 하느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느껴 칼리바에 앉아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오 하느님, 수백만 번, 수십억 번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창문 아래에 한 세속인이 서서 듣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와 마주친 그는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유혹에 빠졌어요. 그 ‘수백만’, ‘수십억’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이 파이시 신부님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라고 생각했죠.” 그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비가 내린 것에 대해 하느님께 드리는 [수많은] 감사를 의미했던 것인데, 그 사람은 제가 돈을 세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밤에 몰래 들어와 저를 털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큰 곤경에 처했을 테지만, 그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를 내 칼리바의 작은 교회로 안내해 그의 애절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를 돕고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가 건강해지려면, 당신 스스로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절도 하지 않고, 금식도 지키지 않으며, 자선을 베풀 돈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아이의 건강을 위해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담배는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에 그 불쌍한 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하며 내 조언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그를 칼리바에서 내보내며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꺼내 성당 안에 있는 구세주 성화 아래에 놓았다. 나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

³¹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아카피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로, 그분의 신성한 잉태, 탄생, 그리고 원죄 없는 동정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했다. 다음 방문객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어떤 청년이었다. 대화가 끝난 후, 칼리바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는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친구, 담배를 피우면 안 돼,”라고 내가 말했다. — “좀 더 옆으로 비켜.” — “그럼 신부님은 교회에서 담배 피우셔도 되나요?” — 그가 되물었다. 교회 안에서 담배 한 갑과 라이터를 본 이 녀석은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을 ‘만들어 냈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고, 그가 그런 생각을 품은 채 떠나게 내버려 두었다. 뭐, 설령 내가 실제로 담배를 피운다 해도, 과연 성전에서 피우겠는가? 보라, 이것이 바로 ‘생각’이란 것이다.

— 게론다, 의심과 불신, 그리고 과민한 경계심이 영혼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 어떤 종류의 의심인지에 따라 그 피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불신과 과민함은 [영적인] 병약함과 쇠약함을 초래합니다.

— 그럼 이 약함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 선한 생각으로요.

— 게론다, 만약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무언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즉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한 번 실수했다면 그나마 괜찮을지 몰라도, 두 번 실수하면 이미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상황이 단 1천분의 1만큼만 달라도, 우리는 이미 중대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공동 생활 수도원에 살 때, 늙은 수도사인 도로페이 신부님께서 대사순절 기간에 호박을 굽고 계셨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노스승님이 호박을 프라이팬에 올리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저에게 자신의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서 한번 구경해 봐! — 그가 말했습니다. — 도로페이 신부님이 생선을 굽고 계세요! 저기, 저렇게 큼직한 바라불카들이요!” — “설마요, — 제가 대답했죠, — 도로페이 신부님이 대사순절에 바라불카를 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있어요, 있어요! — 그가 고집을 부렸죠. —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저기 저 큼직한 바라불리들이야!” 도로페에 장로는 열다섯 살 소년 때 성산에 들어왔고, 수도자들에게는 마치 친어머니와도 같았다. 수도사 중 누군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그에게 말하곤 했다. “이리 와 봐, 얘야, 너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 그리고 환자에게 타힌³²에 으깬 호두를 섞은 음식이나 다른 무언가로 영양을 보충해 주었다. 노쇠한 수도사들에게도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살폈다. 그런데 어쩐 그런 일이? 내가 도로테이 신부님께 가 보니, 그분이 수도원 병원을 위해 호박을 볶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³² 참깨로 만든 죽 같은 덩어리. — 번역자 주.

— 게론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생각이 실제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만약 그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들이 항상 사실로 드러난다는 뜻일까요? 게다가, 당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심했던 사람이 겸손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생각이 현실에서 맞아떨어지도록 허락하셨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도 주의 깊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 “나쁜” [악의적인] 생각을 품었다면, 그 원인은 그 사람의 본래 악의일 수도 있고, 당신이 직접 그에게 당신을 나쁘게 생각할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세심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너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생각과의 대화

— 게론다, 제게 교만한 생각이 들 때면 저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가요?

— 네.

— 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요? 그 생각 앞에 문을 닫으시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네가 상처를 입게 될 뿐이요. 생각은 도둑과 같아서 네게 찾아오면, 네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며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그 도둑에게 털리게 되는 것이다. 도둑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잠그지 않느냐. 좋아, 설령 그 생각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왜 그 생각을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가? 예를 들어 보겠다. 가정해 보자. 네가 수녀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치자. 네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시로 드는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치자. 좋아. 그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하! 훌륭하군! 수녀원장이 되고 싶다고? 그럼 먼저 너 자신만의 수녀원장이 되어 보렴.”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는 즉시 [악마와의] 대화를 끊게 된다. 설마 우리가 마귀와 잡담을 나눌 건가요? 보세요, 마귀가 그리스도를 유혹하러 왔을 때, 그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탄아.*”³³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자, 여기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와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³³ 누가복음 4, 8.

— 헤론다, 만약 제가 “좌파적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 생각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건 나쁜 일인가요?

— 나쁜 점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탕갈라슈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 그 순간은 즐겁겠지만, 나중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좌파적인’] 생각과는 아예 대화를 나누지 마라. [적의] 수류탄을 날아오는 도중에 잡아서, [바로] 적에게 [다시] 던져라 — 그가 죽게 하려고. 바로 터지지 않고 2~3분 뒤에 터지는 수류탄들이 있다. “좌파적인” 생각은 그런 수류탄과 같다: 네가 그것을 즉시 쫓아내면, 그것은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하지만 때로는 경계를 늦추고 예수님의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너는 방어할 수 없게 된다. 마귀는 바깥에 있으면서 너에게 “전보”를 보낸다. 이 “전보”를 받으면, 너는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안에 쓰인 내용을 믿고, 그 후 보관함에 넣어둔다. 바로 이 “서류”들이 심판의 날에 너를 고발하기 위해 탕갈라슈카에 의해 공개될 것이다.

— 게론다, ‘좌파적’ 생각이 스칠 때 언제 그것이 타락이 되는 것입니까?

—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네가 즉시 그것을 쫓아내는 경우. 이것은 타락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면, 네가 그것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받아들였다가 곧바로 쫓아내는 경우다. 이는 타락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너는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마귀가 네 마음을 더럽혔으니 말이다. 즉, 마지막 경우 너는 마치 찾아온 마귀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좋아? 앓아, 내가 대접해 줄게. 어?! 그래, 네가 악마라고? 그럼 가버려!” 하지만 그가 악마라는 걸 알았으면서, 애초에 왜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는가? 이제 네가 그를 “대접”해 버렸으니, 그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생각과의 결합

— 헤론다, 왜 수도원에서는 온갖 나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데, 세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허용하고 있는 건가요?

— 아니야, 바보야! 오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둬. 수도원 위를 날아가며 고요함을 깨는 비행기들이 너에게 허락을 구하겠니? 이 생각들도 마찬가지야. 절망하지 마. 이 생각들은 마귀가 네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와 같아서, 높이 떠 있을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 너는 입을 벌리고 그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그 새들이 내려와 네 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게 되면, 그 새끼들이 네 집 전체를 더럽혀 버릴 것이다.

— 그런데 왜, 헤론다, 제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건가요?

— 그것은 악마의 소행이다. 하지만 너 자신 안에도 어떤 탁한 찌꺼기가 있다. 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개들은 내버려 두어라 — 짓게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많이 던지지 마라. 네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한, 그들은 계속 짓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수많은 돌로 [악령들이] 자신들을 위한 ‘수도원’이나 집을 지을 테니—건축 자재가 닿는 대로... 그러면 네가 그들이 지은 것을 무너뜨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 게론다, 그럼 어떤 생각들이 생길 때 유혹이 일어나는 건가요?

— 네가 그 생각들을 사탕처럼 빨아들일 때다. 겉은 설탕 코팅으로 덮여 있지만 속은 독이 든 쓴맛으로 가득 찬 그 생각들의 맛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람을 통해 [단순히]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악한 생각은 천사나 완전함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해야 할 때는, 사람이 마음의 일부를 다져 평평하게 만들고 “늑대 비행기”³⁴ [적의 늑대 공군] — 즉, 악마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면, 즉각적인 고해성사가 필요하며, 늑대 착륙장을 갈아엎고 그곳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다시 낙원의 정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정의와 불의에 대하여

“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불공정하게 대했다면!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건대, 가장 달콤한 영적 기쁨은 바로 그 불공정함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제1장.

불의를 받아들이는 법

불의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헤론다, 저에게 불공평하게 대할 때 제 마음이 굳어집니다.

³⁴ 말장난: 스타르츠가 만든 단어 “불쿨레트”(λυκόφτερο)는 그리스어에서 “헬리콥터”(ελικόπτερο)와 발음이 비슷하다. — 역자 주.

—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당신에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도 절대 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보라: 사람들이 다투면,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견 차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서로를 가리키며 앞다투어 “그가 나를 때렸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 중에서 가장 큰 불의를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불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지극한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홉 달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그분은 무명 속에서 사셨고, 15세부터 30세까지 유대인들을 위해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 당시 도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시절에는 나무 이빨이 달린 나무 톱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온갖 판자를 주며 “이걸 만들어라, 저걸 만들어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널빤지들을 대패질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 대패 대신 쓰던 투박한 쇠도구들로 한번 대패질을 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후에도 3년 동안의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설교를 위해 그분은 맨발로 [그들의 땅] 곳곳을 누비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꺾아내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그분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그분 자신을 귀신 들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언과 예언이 있었고,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참아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불의를 참아내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의를 당하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나 감옥에서 그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니깐요.

— 게론다, 사람의 짐이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까?

— 하느님께서서는 그 짐이 우리의 힘을 넘어서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손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늘의 상을 거두게 하십니다.

— 게론다, 불만과 배은망덕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람에게 충고를 하며]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신경 쓰지만, 그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모욕당했다고 느끼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실수를 저질러 더 주의하라고 요청받을 때조차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뻘뻘함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수녀가 올리브나무에 살충제를 뿌리다가 용액에 농약을 너무 많이 타서 나무의 잎을 태워버렸다. 누군가 그녀에게 지적을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부당하게 모욕당한 기분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만약 메뚜기가 나무 잎을 먹어치웠다면, 그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내가 잎을 망쳐 놓으니, 그들은 이렇게나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 나의 그리스도여,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이해하십니다.” 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녀는 자신이 겪은 그 “불공정함”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며 기쁨을 느끼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 감사까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큰 오해입니다.

불의를 받아들임에서 오는 기쁨

— 헤론다, 제가 어떤 잘못으로 꾸지람을 들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순수한 것입니까?

— 보라, 불평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인다면, 기쁨의 절반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아무 잘못도 없이 부당하게 꾸지람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그 꾸지람을 받아들인다면, 네 기쁨은 온전해질 것이다. 나는 네가 스스로 불의를 자초하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경우 교만이 너를 자만심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의가 저절로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라고 원하는 것이다.

불의에 대한 태도에는 네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를 부당하게 때린다고 치자. 네가 첫 번째 단계에 있다면, 그에게 맞서 싸울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면, 내면에서 매우 강한 당혹감을 느끼지만, 참아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큰 기쁨을 느끼고 영혼 깊이 크게 기뻐한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로 부당하게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이 근거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만족감을 얻는다. 이 경우 그는 세속적인 기쁨을 경험한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 영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데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한다. 즉, 이 경우 그는 내면에 신성한 위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상태가 된다. 사람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했을 때, “잘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변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부당함을 참아내며 그러한 영혼이 경험하는 기쁨은, 설령 변명에 성공했다면 느꼈을 기쁨

보다 더 큼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이들은, 세속적인 삶에서 자신에게 선물한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보장해 준 기쁨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다른지요!

영적인 삶에는 다른 평가 기준이 있다. 만약 네가 어떤 추하거나 쓸모없는 것을 자신에게 남겨두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기분이 좋지 않다. 만약 네가 [불평 없이] 불의를 받아들이고 이웃을 용서한다면, 네 마음속에서 수없이 부당하게 대우받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하는 [영적인] 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네 마음의 “임대 기간을 연장”³⁵ 하신다. 그분은 그 안에 머무르시며 너를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 아,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도 이 기쁨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게 되면,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불의를 받아들이는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불의하게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건대, 가장 달콤한 영적 기쁨은 바로 그 불의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혹된 자라고 부를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 말들 덕분에 나는 상을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면, 나는 빛을 지게 될 테니까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받아들이는] 불의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내 방문 옆에서 쇠 망치로 두드렸다. 방문객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얼굴에 환한 빛을 띤 청년이 서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그렇게 ‘드러내신’ 이상, 그가 직접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비록 급한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 일을 제쳐두고 문을 열어주어 방으로 안내한 뒤 물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그의 삶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젊은이?” — 내가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겠어요, 신부님,” 그가 대답했다. “전 감옥에서 자랐거든요. 지금 스물여섯 살인데,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된 거니?” — 내가 묻자, 그는 내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고통받고 궁핍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죠.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다른 본당에서도요. 우리 본당의 신부님과 본당 장로는 계속해서 돈을 모아서 각종 건물과 홀을 짓고, 성당을 정비하는 데 쓰곤 했지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이 모든 건

³⁵ 임대차법에 따라 주거 및 업무용 공간을 임차한 임차인은 이전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다.

축물에 정말로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감히 판단하지 않겠지만, 단지 제가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몰래 모금된 현금 중 일부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를 가져간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훔친 돈으로 식료품과 각종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 직후, 절도 혐의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잡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제가 교회에서 돈을 훔쳐서 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때리고 “깡패”나 “도둑”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러고는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 도시에는 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깡패”나 “도둑”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침묵하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감옥에서 무려 3년이나 지냈다. 때로는 도둑질에 대한 의심만으로, 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곤 했는데, 진짜 범인이 체포되면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범인을 찾지 못하면, 나는 그 도둑이 받아야 할 형기 전부를 감옥에서 썩어야 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뒤, 나는 말했다. “자, 이 친구야. 네가 나에게 말해 준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안에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하나 해줄게. 내 조언을 들어줄래?” — “들으겠습니다, 신부님,” — 그가 대답했다. “네 고향 마을을 떠나야 해,” 내가 말했다. “아무도 널 모르는 곳, 예를 들어 이런저런 도시로 가거라. 내가 네가 그곳에서 착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챙겨주겠다. 일을 시작하고, 네 힘닿는 대로 불우한 이들을 도와라. 마지막 빵 한 조각이라도 그들과 나누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령 누군가 거지에게 줄 것이 없어 마음이 아파도, 그는 그에게 가장 고귀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심장의 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자선을 베풀면 기쁨을 느끼지만, 줄 것이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 말을 다 들은 청년은 내 조언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

7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나는 코리달루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³⁶ 봉투를 뜯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조언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교도소에서 편지를 쓴다는 사실에 분명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미 복역했던 형기를 다시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어떤 사법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정의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이 되었을 테니, 그들은 천상

³⁶ 그리스의 주요 교도소 중 하나. — *번역자 주*.

의 상을 잃게 되었을 테니까요.” 마지막 말을 읽으며, 나는 영적인 삶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 그 자체의 가장 깊은 의미를 그토록 깊이 깨달은 이 젊은이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한 도둑! 그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신성한 광기, 축제 같은 환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 게론다, 그 기쁨은 사람들이 그를 수치스럽게 대했기 때문이었습니까?

— 그 기쁨은 그가 부당한 대우를 견뎌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의 행전도, 성부들의 저서도 읽지 않았고, 부당하게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그를 불량배, 악당, 도둑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모든 일을 그토록 영적인 태도로 대했다! 젊은이였지만,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에만 신경 썼다. 큰 규모의 진짜 도둑들은 종종 단 한 번도 감옥에 갇히지 않는데, 이 불쌍한 청년은 똑같은 절도 사건으로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잡힐 때까지 그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횟수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가 느꼈던 그 기쁨은 그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합쳐도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 삼만 개를 합쳐도 그가 느낀 그 한 번의 기쁨을 능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 사랑이 배가되고 그의 마음이 신성한 돌보심으로 불타오를 때, 슬픔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위대한 사랑이 그것을 이겨낸다.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유익한 일

— 헤론다, 가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제가 이를 [마땅히] 견디지 못하고 그 자매에게 마음이 식어버리곤 합니다.

— 잠깐만요!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어떤 경우에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까? 좋아요, 가령 상황이 정말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라면 — 즉, 당신이 잘못이 없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면, 당신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려고 너에게 허위 혐의를 씌운 그 자매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며 너에게 더 큰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이처럼, 네가 부당하게 대우받은 일에서 한 가지 선이 아니라 한 번에 두세 가지 선이 생겨난다. 그로 인해 너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누더기 차림의 집시 소녀에서 고귀한 아가씨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네게 부자가 되어 그 부를 다른 이들과 나눌 기회를 주셨는데, 도대체 왜 계속 집시처럼 [구걸하며] 지내려고 하는가?

— 하지만 제 마음은 언니에게, 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서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지 물어보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 글썄요, 당연히 그 악마가 네게 어떤 [영적인]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네가 변명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네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 게론다, 그래도 저는 제 실수를 가끔이라도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 네가 변명해 주기를 바라는 거냐? 좋아, 가정해 보자. 네가 변명한다고 치자. 그로 인해 네가 영적인 이득을 얻는가, 아니면 영적인 손해를 보는가?

— 손해를 봅니다.

— 자, 만약 네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익을 얻기를 원하겠느냐, 손실을 입기를 원하겠느냐?

— 이익을 얻고 싶죠.

—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이고 헛된 일에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영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물질적 이익을 쫓아 그것을 놓치지 않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돈을 낭비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물질적 재산만을 탕진할 뿐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영적이고 천상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우리는 바로 이곳, 이 땅에서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천상의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려 하는가? 게다가 불쌍한 세속 사람들은 영적 무지 속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우리에게서는 [우리 삶의] [영적] 의미가 낯설지 않다. 우리는 천상의 것을 얻기 위해 수도사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세속적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단순히 부당하게 쫓겨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매우 쓰라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수도사]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추구해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명예와 경멸,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린 사람은 세속적인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를 들어 명성을 잃거나 파산하게 된다면 자신과 불쌍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죄를 경감시켜 주는 사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그 불공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모함하여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첫째, 나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양심이 맑습니다. 둘째, 저에게는 하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만약 제가 정말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면,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감옥은 천국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당하게 때렸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제가 말합니다. — 어쩌면 이런 식으로 내 죄 중 하나를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한때 나도 이웃에게 손을 들어 때린 적이 있으니까요.” 혹은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욕했을 때,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욕과 모독을 참아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는 것

— 헤론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 네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결코 좋은 인상을 갖지 않도록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내 딸아,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모욕을 주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 죄 중 일부를 속죄하거나, 미래의 삶을 위해 어떤 [영적] 자산을 축적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 삶을 원하시는 건가요? 당신은 아직 자신의 영적 이익이 무엇에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 모든 [영적] 자산을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써버리려 하면서 천국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에베르게티노스』³⁷ 를 읽고 있느냐? 거기에는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쓰여 있지 않은가? 복음서는 읽고 있느냐? 매일 읽도록 하라.

— 게론다, 저는 선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집니다.

— 들어보렴, 도대체 어떤 인정을 원하는가? 그리스도에게서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인가? 그리스도의 인정보다 더 큰 유익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사람들이 지금 네가 행한 선행을 인정해 준다면, 나중에 영생에서 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네 선한 행실을 받으셨도다...”³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적으로는 보상받지 못한]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그에 대한 영

³⁷ “에베르게티노스”는 11세기 경 콘스탄티노플의 “에베르게티스” 수도원 설립자이자 원장인 파블로스가 편찬하고, 18세기 말 성 니코디모스 스비아토고르츠에 의해 처음 출판된 성부들의 금욕적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모음집이다.

³⁸ 누가복음 16, 25.

원한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보상이 존재하므로,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의 저금통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의는 큰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 덕분에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상의 축복으로 말이죠.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의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그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 글썄요,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결국 그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다만, 유럽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³⁹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면에서 창조주와 닮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사람을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면,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유럽인들의 인본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⁴⁰

거룩한 위선

— 게론다, 성산에 은둔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⁴¹

— 잘 모르겠습니다. 일곱 명이라고들 하더군요.⁴² 최근 몇 년간 고행하기 위한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산에 아직 개별 거주 수도원이 존재하던 시절,⁴³ 일부 수도사들은 다른 방식의 고행을 찾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고행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왠지 내 취향이 아

³⁹ 유럽인들에 대해 말할 때, 장로는 서유럽 민족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에 만연한 합리주의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⁴⁰ 인본주의는 자기 주도적인, 즉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단절된 인간을 중심에 둔 문화적 운동으로, 중세 이후 서구에서 발전했다.

⁴¹ 1950년 어느 날, 파이스이 장로님이 처음으로 성 아폰 산에 오셔서 카브소칼리비아에서 성 안나 스키토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찾고 계실 때,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은둔자를 만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일흔 살쯤 되어 보였고, 그의 차림새로 미루어 보아 그는 사람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듯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내 앞에 성자가 서 계신 것이 분명했다.” 장로 파이스이스가 그 은둔자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을 때, 그는 “여기”라고 대답하며 성산의 정상에 가리켰다. 나중에 경험이 풍부한 장로들은 파이스이 신부에게 아폰 산 정상에 열두 명의 은둔자가 알려지지 않은 채 살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참조: *파이스이 장로*. 『성산 수도사들과 성산의 이야기들』. 성 삼위일체 세르게이 라브라, 2001. 45-47쪽.

⁴² 1988년 11월에 발표됨.

⁴³ 독립형(자립형) 수도원은 공동생활형(키노이) 수도원과 대조되는 형태이다. 이 수도원은 수도원장이 없으며, 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 독립형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개인적인 수도 생활 일과를 따르며,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임무를 수행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아폰 산의 마지막 독립형 수도원은 1992년에 공동 거주형 수도원으로 개편되었다.

니네. 차라리 개별 거주 수도원에 가서 일하며 돈을 좀 모아볼까.” 주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수행자는 개별 거주 수도원으로 옮겨가서 3~4개월 동안 일한 뒤, 급여에 상당한 인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런 인상 요청이 거절당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니, 이러면 일할 가치가 없네요. 전 떠날게요.” 그는 마른 빵 몇 조각을 챙겨 수도원을 떠나, 어느 동굴에 숨어 수행에 몰두했다. 그리고 수도원에 남은 사람들은 그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수도원의 수도자들에게 “그 such-and-such 신부님이 계셨나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네, 계셨지만 정말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돈을 모으려고 여기 오셨죠. 급여 인상을 요구하시다니! 생각해 보라. 수도사가 봉급 인상을 요구하다니! 도대체 무슨 수도사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렇게 하여 그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과 그들의 비난 모두로부터 이중의 이득을 얻었다. 도둑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둑들은 그에게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굴로 찾아와 그를 때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 게론다, 하지만 자매가 자신을 숨기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그녀의 덕행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 네 생각에 그녀가 자신을 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성인들이 더 큰 수행을 한 것은 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덕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성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먼저 그들은 이 세상의 위선을 피하고 복음의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도 부족했고, 그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거룩한 위선으로 나아갔다. 그 후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세속적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하면 그는 기분을 상하고, 무언가에 대해 칭찬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척한 성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덕행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품는 좋은 생각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심지어 귀신 들린 척까지 하던 수도사들이 있었다. 필로페예프스키 수도원⁽⁴⁴⁾이 개별 거주 체제로 운영되던 시절, 그곳에서 나는 이전에 비글라 사막에서 수행하던 한 수도사를 만났다.⁴⁵ 그곳의 수도사들이 자신의 금욕적 수행과 영적 성취를 눈치채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축복을 받고 그곳을 떠났다. “이럴 수가! — 그가 떠나며 말했다. — 이 곰팡이 핀 마른 빵은 이제 질릴 지경이다. 자비로 운영되는 수도원 어디로 가겠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바보라도 되어서 여기 남아 있겠어?” 그리하여 그는 필로페예프 수도원으로 옮겨가서 귀신 들린 척했다. 그의 영적

⁴⁴ 1956~1958년.

⁴⁵ 비글라 — 아폰 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한 산악 지대의 황량한 지역.

형제들,⁴⁶ 그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는 서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녀석, 귀신 들렸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여기서 도망친 거야: 곰팡이 핀 마른 빵이, 보시다시피, 질렸나 봐! 자비로 운영되는 수도원으로 옮겨갔으니 — 고기를 먹고 싶어진 거지!”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땠을까? 바로 이렇다: 그는 필로페예프스카야 수도원에서 25 년 넘게 살았으며, 그 모든 세월 동안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다. 잠과 싸우며, 그는 밤새도록 랜턴을 들고 수도원 복도를 배회했다. 극도의 피로에 지칠 때면, 그 수행자는 멈춰 서서 잠시 벽에 기대곤 했지만, 잠이 그를 덮치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 속삭이듯 예수님의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런 다음 그는 속으로, 소리 내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지만, 때로는 기도가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새어 나와 다른 이들에게 들리기도 했다. 다른 수도사들을 만나면 그 수행자는 이렇게 부탁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서 악령이 나가게 해 주세요.” 어느 날, 열다섯 살의 한 어린 수도사가 그에게 대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미친 놈, 썩이나.” — “그런 말 하지 마라.”라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상당한 덕을 쌓았으며, 단지 미친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 후 그 어린 수도사는 그 수행자를 경외심으로 대했다. 그리고 그 수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수도원 형제들의 명단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각 수도사의 이름 옆에는 [착한 위선자]가 어떤 별명을 적어 놓았다. 그는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질지도 모를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 선한 생각을 훼손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 후 그의 유해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보라, 그는 자신을 숨기려 했으나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그가 내면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한 말이다.

제2장.

자기합리가

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낸다는 것

자기 변명은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 헤론다, 성경에서는 자기합리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자기합리화에는 어떤 면에서든 정당화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⁴⁶ 영적 형제 — 같은 장로로부터 수도 서원을 받은 수도사들.

— 저요, 헤론다, 제가 스스로를 변명할 때면, 뒤늦게야 수도사에게 자기변명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단순히 어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변명은 영적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변명할 때, 나는 거짓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유대를 끊고, 스스로 신성한 은총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은총은 거짓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을 변명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하고 고립시킵니다.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공간은 마치 [영적인] 고무와 같은 절연 물질로 채워집니다. 고무로 전류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고무는 전류를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은총에 있어서도 자기합리화보다 더 강력한 절연 물질은 없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함으로써, 당신은 마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벽을 쌓는 것과 같으며, 그로 인해 그분과의 모든 유대를 끊게 됩니다.

— 게론다, 선생님께서는 종종 “적어도 영적 합격 점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영적 합격 점수란 무엇입니까?

— 영적 합격점은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적어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 잘못을 자각했을 때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을 때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5점 플러스입니다.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 만약 어떤 실수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내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면, 다음 번에 더 주의하기 위해 이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을까요?

— 만약 5%만 잘못했으면서도 25%나 자신을 탓한다면, 그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자신을 탓하라. 이것이 바로 네가 실천해야 할 영적 수행이다.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고, 잘못을 저지른 현장에서 스스로를 적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신의 ‘나’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변명하겠지만 내면의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게론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사람은 이득을 얻게 됩니까?

— 적어도 그런 사람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가 이 경험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

했으니,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일종의 ‘지원금’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은 이미 다른 [영적인] 기금, 즉 회개의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그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 헤론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찾지 못한다면, 제 마음이 잔인한 것입니까?

— 다른 사람에게는 변명을 찾지 못하면서 자신에게는 변명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위해 변명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면,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으로 행동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매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장난]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십니다.

자신에게 올바른 영적 수양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경감시켜 줄 사정을 찾아주고, 모두를 변호해 주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옳을 때조차 결코 변명을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유죄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흠치는 것을 본다면, 자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더라면 훨씬 더 많이 흠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지만,” 그런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를 제 자신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제 이웃이 저지르는 도둑질보다 더 큰 도둑질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그의 도둑질은 눈에 띄는 반면, 제 도둑질은 숨겨져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엄격하게 비난하는 반면, 이웃을 관대하게 대합니다. 혹은 이웃에게 크든 작든 어떤 결점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선한 의도를 고려하여 그를 변호한다.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결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 안에서 수많은 결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이웃을 변호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주님, 저의 젊은 시절의 죄와 무지함을 기억하지 마소서.”⁴⁷

— 게론다, 가끔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드리지만, 서두르다 보니 무언가를 조금 망치기도 하고, 나중에 지적을 받으면 변명하려고 애쓰곤 합니다...

— 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무언가를 조금 망쳐버렸다면, 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충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악마는 매우 교활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법을 그야말로 비할 데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오랜 경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가 당신을 부추겨 변명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행

⁴⁷ 시편 24:7.

한 선행의 유익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어떤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좀 더 편해지도록 그 짐을 네 어깨로 옮겨주고 싶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타인을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서둘러 그를 돕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당한 부당한 모욕이라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 우리는 곧바로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 안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온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 게론다, 그렇다면 자기 변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이기심에 있습니다. 자기변명은 타락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냅니다. 사람은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불의마저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낙원에서 쫓아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변명이 아니었습니까? 아담의 타락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 아담은 “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 “이건 주님의 잘못입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이 문제에서 하와의 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지만, 그녀 역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⁴⁸ 만약 아담이 “죄를 지었고, 실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하와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다투어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 게론다, 만약 사람이 자기 변명이 얼마나 큰 악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변명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불공평하며 자신은 무고한 고통받는 자이자 불쌍한 희생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제정신을 잃고,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라. 때로는 불의를 저지르고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물론 나도 이 불의를 참아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즉, 그는 마치 사랑의 동기로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쓰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니면 그는 자신의 “상대방”이 우연히 자신의 말을 오해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⁴⁸ 창세기 3:11-13 참조.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오늘날 모든 사람—어린이부터 어른까지—이 어떤 사탄적인 생각을 빌미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탄적인 해석—그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 게론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는 어떤 말에도 반박을 하는 것입니까?

— 아, 변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과 대화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다름없죠.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스스로를 변명하는 사람들은 바로 악마를 ‘스승’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끔찍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며, 마음속에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변명을 하나의 ‘학문’으로 삼았습니다. 즉, 도둑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훔칠 방법을 꾸미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방법을 꾸미고 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겸손해질지, 혹은 어떤 선행을 할지 고민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인, 변명할 수 없는 것을 변명할 방법을 꾸며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변호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귀를 설득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네가 하는 일은 도저히 말이 안 돼,”라고 제가 그를 설득했습니다. “너는 몇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 넌 완전히 제멋대로 굴고 있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하지만 그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변명을 늘어놓았고,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당신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도무지 말해주지 않았잖아!” — “이 친구야,”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거지? “네 실수에 대해, 네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넌 쉬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잖아. 우리가 대화한 그 세 시간 동안, 넌 나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어! 미치도록 화나게 했어! 자, 내가 네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나?” 바로 이런 식이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예시를 들며, 그가 모든 것을 대하는 방식은 사탄적인 이기심이라고 설명하고, 그가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변하지 않으면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도 그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니, 정말이지, 이럴 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 모든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에게는 모두 삶의 사소한 일일 뿐이다.

하지만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폭발해 버릴 것이다. 아니, 역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 하지만, 게론다, 스승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관심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 형제여, 무관심한 사람은 적어도 헛되이 자신을 소모하지는 않지.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통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를 위해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고, 그에게 온갖 말을 다 해 주었는데, 결국 그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라고 말하며, 변명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해 버린다. 그렇게 사람은 악마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만약 그가 적어도 네가 그를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라도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변했을 텐데. 그가 네가 그를 위해 얼마나 아파하는지 느끼기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그는 네가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지 보면서도, 그 모든 것에 눈을 감아버린다!

— 게론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당신이 “그건 자기합리화다”라고 말해도, 그가 “그건 자기합리화가 아니다”라고 증명하려고 계속 자신을 변명한다면, 그에게 고칠 기회가 있을까요?

— 도대체 그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 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주장하죠. “당신은 나를 도와주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데, 당신은 나랑 대화라도 하려고 초대조차 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나를 경멸하고 있어요.”

— 글썄요, 그런 상태도 결국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내 상황이 이렇게 나쁜 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지경까지 가버리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그를 도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고해 신부도, — 만약 그가 수도원에 산다면 — 원장이나 원장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이기심이다.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만큼 자신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변명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악마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나’를 꺾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며, 아무런 소용도 없이 자신의 이기심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합리화가 어떤 악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죄를 경감시켜 줄 정황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또는 타인의 말을 통해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에게 죄를 경감시켜 줄 정황은 없다.

변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변명한다는 것은 그에게 이기심이 많다는 뜻이며, 그 때문에 때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네가 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는 자신의 “흠잡을 데 없음”을 지

키고 [오히려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자기합리화에 자기합리화를 거듭하게 된다. 이 경우, 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이기주의자이자 거짓말쟁이가 되는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가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그에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 게론다, 종종 제가 지적을 받을 때면, 어떤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곤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혹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 도대체 왜 자꾸 “하지만”이나 “혹시” 같은 말을 하는 거요?⁴⁹ 이 “혹시”라는 말에는... 정수가 없어요! 게다가 모든 것을 왜곡해 버리죠. 누군가 당신에게 지적을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더 주의하겠습니다.”

— 게론다, 만약 누군가가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면,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해야 할까요?

— 네게 영적인 힘, 즉 겸손이 있다면,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변호하시도록 맡겨라. 네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 말씀하실 것이다. 보라,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⁵⁰ 그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형제이지 노예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다른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⁵¹ 그런데 네 생각은 어땠니? 하나님께서 [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네 유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진실을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 또한 너를 위한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그가 악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을 그런 식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라. 그 사람에게 악의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네게 불공정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 주지 않으시는 유일한 경우는 그 사람에게 악의가 있을 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라디오 방송은 겸손과 사랑의 주파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긴 후, 그 사람에게 설명을 요청해도 될까요?

⁴⁹ 노인의 말장난: “Τὸ „ἀλλά δὲν ἔχει ἀλάτι καὶ ὅλα τὰ ἀλλοιώνει.“ — *번역자 주*.

⁵⁰ 창세기 37장 20절 이하 참조.

⁵¹ 창세기 41장 41절 참조.

— 네가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 아니요.

— 네 마음이 빠тол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필요도 없다. 만약 네 마음이 빠тол어졌다면, 마음이 더 이상 빠тол어지지 않도록 어떤 설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 헤론다, 하지만 변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라면요?

—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설명을 요청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을 삼가는 편이 낫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십시오.

— 게론다, 어떤 경우에 설명이 필요한가요?

—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오해가 있을 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어느 정도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특정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 때로는, 게론다, 우리가 자기변명과 설명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 자기변명은 영혼에 평안을 주지 않는 반면, 설명은 영혼에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줍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 게론다, 왜 제 [영적] 약점을 느끼고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변명하게 될까요?

— 네가 변명하는 것은 바로 네 약함을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느꼈다면 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고, 수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종종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모든 것에 이런 식으로 대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양쪽 다리를 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인정하고는 겸허해져야 한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에게는 노력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태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자기 인식을 하고, 자신을 탐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 자신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면서도 결국 끔찍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것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게론다,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영적 삶에서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 마귀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 모든 면에서 그를 속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제멋대로인 행동, 고집, 이기심, 거짓말 등 모든 것에 대해 변명을 찾습니다.

— 만약 그런 사람이 성부들의 저술, 특히 성경을 들여다보며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올바르게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있어, 성경과 성부들의 저서는 모든 난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는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 수련에 힘쓰지 않고 영혼이 정화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조차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읽은 모든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읽은 내용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려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구약을 읽을 때, 그런 사람은 읽은 내용을 교활한 마음으로 해석하여 [영적] 감염에 걸릴 수 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 서적에서 읽은 내용 중 일부를 골라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읽은 내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읽은 내용에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게다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영적 조언이나 가르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주의를 어떤 점에 집중시키고자 할 때, 저는 그들에게 어떤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지만, 그들은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어, 그 “다른 것”을 붙잡고 자신들의 결점이나 실수 중 하나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변명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주의함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이른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 그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글쎄, 그렇게 끔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면, 우리는 아예 칭찬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겠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렇다. 뭐든 간에, 악마는 자기합리화할 거리를 얼마든지 찾아낼 것이다.

자기합리는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의 영혼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자신은 자신의 ‘나’를 정당화하지만, 과연 그 ‘나’가 그 자신까지 정당화해 줄까요? 그의 ‘나’, 즉 그의 양심은 그를 정당화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것을 마련하셨는지! 그분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잔인함, 교활함, 아첨을 통해 사람은 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남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길을 벗어났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불의를 너그럽게 참아내는 것은 기쁨을 주는 영적 부를 얻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자신을 정당화할 때, 사람은 마치 자신의 부의 일부를 낭비하는 것처럼 되어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후자의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을 때 누렸을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가 주어졌으나, 그는 그것을 헛되이 낭비합니다. 부를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은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그를 변명해 줄 것이다. “어떻게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냈느냐?”라고 마귀가 말한다. — “너는 훨씬 더 일찍 그를 죽였어야 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이 “참아왔던” 그 몇 년에 대한 보상을 그리스도께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이해가 되나? 그래, 그래,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

— 헤론다, 하지만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을 멈추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그만두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 자기 변명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끊으려면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변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적 태도를 취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입 밖으로 변명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확신을 품고 있다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했다면, 그에 대해 반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깨닫고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테니까. 반면,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진실은 내 편이지만, 나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으니 침묵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오해 속에 머물게 된다.

[타인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자

— 게론다, 어제 선생님께서는 ‘인내’와 ‘관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 참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관용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관용을 베푼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매우 형편없지만, 나는 관참으니 그를 관용으로 대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이웃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에게 동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에는 많은 겸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제 이웃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절름발이, 귀머거리, 혹은 마약 중독자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고, 그분은 이 불쌍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리라.”⁵² 이러한 묵상에서 이웃을 위한 아픔과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납니다. 반면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에이,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 그는 불구자일 뿐이야. 좋아, 그와 잠시 함께 앉아 있자. 어쩌면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지,”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웃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그를 “인내심 있게” 대하며, 내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 게론다, 타인의 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항상 유익한 일일까요?

— 그렇다. 네가 그 짐을 짊어질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유익은 적지 않다.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라. 이웃의 죄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그 짐을 네 어깨에 짊어지며, 그리스도께 그 짐을 짊어질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라. 그리고 네 실제 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써(설령 네게 전혀 죄가 없더라도, 그래도 죄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증명할 방법을 찾는다면), 네가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네 자신의 힘으로 돌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만하지 않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신중하게 가늠하고 계산해야 한다. 과연 더 큰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만약 무리하다 보면 탈장이 생기거나 허리를 다칠 수도 있으니...

— 그렇다면 이 경우 “탈장이 생길 수 있다”와 “허리를 다칠 수 있다”는 무슨 뜻인가요?

— 글썄요, 예를 들어, 네 힘을 넘어서는 무거운 타인의 죄를 떠안고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비난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 하지만 제가 어떤 설명을 한다면, 그건 자기합리화가 되는 것 아닐까요?

— 자, 넌 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만 변명을 하도록 노력해라.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설명 없이 내버려 두어라. 예를 들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무거운 짐을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힘센 척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무게에 맞춰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부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예민함으로 인해 지쳐버리면, 원수가 그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⁵² 요한복음 14장 12절과 비교하라.

— 게론다, 저는 때때로 불의를 견딜 힘을 스스로에서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의 어깨에 떠넘기기도 합니다.

— 당신은 사랑으로 이웃의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무거운 짐까지 이웃의 어깨에 얹으려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 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죄를 떠안아 자신의 [영적] 짐을 더 많이 늘릴수록,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의 무게를 그만큼 더 가볍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신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건장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옮길 힘이 없는 이웃을 위해 시멘트 자루 두 개를 어깨에 메는 것이, 타인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죄를 자신에게 ‘흡수’하는 것만큼 큰 일은 아닙니다. 설령 사람들이 마치 네가 실제로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는 큰 미덕이며, 큰 겸손입니다.

어느 날 아토스 산의 한 공동 생활 수도원의 수련생이 규칙 담당자⁵³에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는 게다가 사제 수도사이기도 했다. 규칙 담당자는 예배 중에 독경을 하고 있던 수련생을 돕고자 그에게 다가가 어떤 콘다크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련생은 완전히 화를 내며 예배가 끝난 후 분노에 차서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본 규칙 담당자는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 형제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답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그는, [수련생에게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 규칙 담당자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가 평정을 잃게 된 것은 내 탓이다.”, 그는 수련자의 방으로 가서 절을 올리고 용서를 구하려 했으나, 수련자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다. 그러자 그 수도사는 문 앞에 앉았다. 그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녁 예배 종소리가 울리자, 수련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와야 했다. 우스타브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하며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여, 제 잘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방식이다.

제3장.

신적 정의와 인간적 정의에 대하여

— 헤론다, 신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⁵³ 우스타브치크 – 예배 규정을 준수하고 성전 내 질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수도사.

— 신의 정의란 네 이웃에게 평안을 주는 일을 행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너와 이웃 사이에 무언가를 나누어야 한다면, 네가 가진 것의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만큼 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물어보라. “네가 얼마나 가져가고 싶니? 두 개 반, 세 개? 자, 가져가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신에게는 썩은 것을 남겨두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부분을 주고, 자신에게는 더 적은 부분을 남겨두라. 자, 지금 누나가 우리에게 자두 열 개를 가져왔다고 상상해 보라. 탐욕에 빠져 자두 여덟 개를 먹고 너에게 두 개만 남겨둔다면, 나는 너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둘이니까, 나는 다섯 개를 먹고 다섯 개는 네게 남기겠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인간적인 공정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반면, 자두가 네 입맛에 맞는 것을 보고 내가 단 하나만 먹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나머지는 네가 다 먹어라. 나는 자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게다가 자두를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정의일 것이다.

—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간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 인간적인 정의란, 예를 들어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때, 한쪽 절반은 그에게 주고 다른 절반은 자신에게 남겨두는 것에 있습니다.

— 헤론다, 영적 삶에서 인간의 정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 인간의 정의는 영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동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정의에 희망을 둔다면, 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정의와 비교할 때 인간적인 정의는 제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인간적인 정의를 적용한다 해도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두 형제가 10 스트레름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⁵⁴ 인간의 정의에 따르면 각자가 5 스트레름씩 가져야 하지만, 신의 정의에 따르면 각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 즉, 한 형제에게는 일곱 명의 자녀가 있고 다른 형제에게는 두 명뿐이거나, 한 사람은 높은 급여를 받고 다른 사람은 낮은 급여를 받는다면, 땅의 대부분은 더 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형제가 첫 번째 형제와 똑같은 양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은 자신의 형제가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려는 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형제가 궁핍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설명하여, 네가 재산의 대부분을 그에게 주겠다는 데 동의하게 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왜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내가 그에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⁵⁴ 스트레름 - 1000 m²에 해당하는 면적 단위. - *번역자 주*.

그러나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와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형제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궁핍한 형제가 “너는 한 스트레마를 가져가라”고 말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한 스트레마만 취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몫을 가져간 형제가 부담 없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가장 공정한 분배는 복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에 나는 감탄한다.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 둘이 다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척이니가요. 어느 쪽이 네 마음에 더 드나?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롯은 비록 부분적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그곳에는 푸른 초원과 가축을 기르기 좋은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⁵⁵ 그리고 그 후 그곳에서 그는 얼마나 큰 재앙을 겪게 되었는지! 반면 아브라함은 신성한 정의에 이끌려 롯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습니다. 롯이 더 좋은 곳에 정착한 사실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 게론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공의란, 겸손과 사랑을 내포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지극히 자비로우시며,⁵⁶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이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그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처해 있었을 상황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 않으실 테니까요. 신성한 정의에는 그 나름의 수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때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2백만도 됩니다.

— 헤론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신의 공의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 인간의 정의는 “너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의 정의는 “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느냐? 용서를 받을 것이다.” 보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비록 그에게 아직 사소한 의심조차 씌워지지 않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스스로 범한 일을 자백한다면, 심지어 인간의 법조차도 그에게 관대하게 대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로부터조차 관대하게 심판받는다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더 큰 관용을 베푸시겠는가.

⁵⁵ 창세기 13장 1-13절 참조.

⁵⁶ 그리스어 “πολυεύσπλαγχνος”; 교회 슬라브어 “많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 – *번역자 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분명히 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성한 정의와 신성한 보응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간의 공정한 대우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가치하고, 완전히 미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 신성한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이미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이 끝난 후, 한 장군이 훈장을 수여하러 우리 부대에 찾아왔던 일이 기억난다. 그날 나는 부대에 없었다. 장군이 내 성을 외쳤을 때, 테살리아 출신인 내 동료 한 명이 대열에서 나와 나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던 훈장을 받았다. 다른 병사들은 침묵을 지켰는데, 그 당시 군대에서 그런 사기 행각을 저지르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장군이 떠난 후, 그 병사는 나머지 병사들이 자신을 반쯤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두들겨 패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부대로 돌아왔을 때도 그는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했다.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 “용서해 줘, 내가 이런저런 짓을 저질렀어.”라고 말했다. — “그 훈장을 받아간 건 잘한 일이야! —라고 내가 대답했다. — 내가 그 훈장을 어떻게 했겠어?” 그 후 그는 퍼레이드 때 그 훈장을 달곤 했다. 그리고 40년 뒤, 테살리아에서 제1군 사령관이 이곳 수도원으로 찾아와 나에게 알렉산더 대왕 훈장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을 보자 나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40년 만이라니!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원수가 테살리아에서 왔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 당시 내 훈장을 받은 그 병사의 고향에서 말이다. 보시다시피,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갈망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겪은 불의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생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즉,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수도사가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삶을 위해 간직해 두시는 것입니다

— 게론다, 무언가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권리가 있다”는 것은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사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많을수록 그는 더 많은 “권리”를 가집니다. 그 안에 영적인 것이 많을수록 그가 가진 권리는 적어집니다. 특히 수도사는 오직 의무만 있을 뿐, 그 어떤 것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도사는 누구에게도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수도사는 모든 것을 포기했으므로, 만약 그가 이 생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수도사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수도 생활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이 바로 그들이 세속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수도사, 나아가 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그리스도께서 내세에 위해 간직해 두십니다.

오늘날 “내 권리다”라는 경향은 거의 모든 [세속적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승려들 사이에서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왜 승려가 되었는지, 심지어 수도 생활이 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면에 이 “내 권리”라는 사고방식을 품고 있으며, 세속적인 정신과 [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인간적인 정의감을 지니고 있다. 유럽의 정신에서 비롯된 이 인간적인 정의감은 이미 수도 생활 속으로도 스며들었다.

오늘날 수도 생활에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기질을 볼 수 있다. “나는 이웃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이 나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어차피 나는 그를 괴롭히지 않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또는 어떤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내 일을 다했다. 도와야 할 곳에서는 도왔고, 끝내야 할 일은 모두 끝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다른 일은?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물러나서, 내 방으로 가서 수도 규칙을 실천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가 몸이 약하거나 두통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밤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심하게 지쳐 돌아와 일을 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내 몫의 음식이다. 나는 이것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웃이 더 허약하거나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더 풍부한 영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육체적으로는] 영적인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떤지 아시나요? 저는 많은 수도사들이 —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정해진 순종을 이행하고, 수도복을 입고, 수도 생활 규칙에 따라 살면서도 모든 것을 영적으로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을지 신경 씁니다. 즉, 이 수도사들은 세속적 정의의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 수준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영적인 상호 이해를 이루려 해 보십시오! 이 수도사들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의 ‘회계 정산’을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빛을 지고 계시지 않게 하] 모든 것을 꾸미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겪는 불의의 정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기 위해 그가 보인 희생의 정도를 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려 한다.

나는 일부 현대 수도자들에게서 보이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에 분노를 느낀다. 참으로 전적으로 인간적인 정의로움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의가 어떻게 영적인 삶에 들어맞을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정의로는 세속적인 삶에서도 멀리 나아갈 수 없는데, 하물며 영적인 삶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제가 공동 생활 수도원에 살았을 때, 그곳의 모든 수도자들은 수시로 어떤 희생을 치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일할 때나 식사할 때나 어디서나 팽배해 있었습니다. 먼저 이웃을 생각했고, 그 덕분에 마치 낙원에 있는 듯이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수도사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는 적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건장한 체격은 아니었더라도, 그는 그 사실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런 수도사는 이웃이 건강하든 쇠약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수도사는 [그저] 자신을 희생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조차 쓰지 않았고, “형제가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해로울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수도사가 자신이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 과로하지 않을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지 걱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마치 하느님이 계시고, 다른 삶이 존재하며, 모든 이에게 다가올 심판과 신성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된다. 설령 그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수고했다 해도 — 그 수고 또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는 것은 오직 짐승들의 수고뿐이다. 하지만 이 불쌍한 생명체들조차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 탓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결국 조상들의 죄 이후로 자연은 인간과 함께 신음하며, 인간을 동정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냥꾼들에게 상처를 입은 야생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십시오! 몸이 일그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채,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거대한 육식 동물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불쌍한 존재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해 그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힘을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헤론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게 안도감과 위로를 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떨기를 바라시는 것이군요...

— 네, 왜냐하면 이웃의 처지를 덜어주고 그에게 평안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온전히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기진맥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네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된다. 네가 자신의 쓰라린 처지를 한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 같으냐? [설령 “상”을 주신다 해도] 기껏해야 뽀뽀 한 대일 뿐이다.

가능한 한, 내가 말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영적 실천입니다. 이 실천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금욕적인 수행조차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라디오 주파수’가 하나님의 ‘라디오 주파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렇게 되면, 그 밖의 모든 것—절도, 금식도—다 헛수고가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냈습니다

— 게론다, 어떤 경우에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에 따른 [법칙]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에 따라 의로운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 그의 는 하느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행동에 결코 ‘나’라는 자아나 사리사욕을 섞지 않음으로써, 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신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이끌어내는 셈입니다.

어떤 인간적 진리라도, 심지어 가장 완벽한 것조차도 그 안에는 항상 인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 안에 인간의 진리가 살아 있는 한,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마치 이물질처럼 그 사람 안에서 뽑아내려고 애쓰시며, 사람은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며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를 얻음으로써 사람은⁵⁷ 정화되고 신성한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 게론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신성한 정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 아니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복음서가 가르치는 대로,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만약 그에게 신성한 정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믿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자신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금식하며,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다른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파트 다섯 채와 두 배의 월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드라크마 한 푼도 자선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에게 말했죠, “당신에게는 가난한 친척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건가요?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가 제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럼, — 그가 말하길, — 내 여동생이 과부라고 해서, 내가 그녀에게 집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 내가 그 말을 듣자, 피가 머리로 쏘렸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진실이다!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라 남의 아이들이라면

⁵⁷ “Λαμπικάρισμα,” 동사 “λαμπικάρω”에서 유래 — 정화하다, 증류하다; 씻어내다, 걸러내다; 투명해지다. — 역자 주.

, — 그런 성향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 나는 그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길, 내가 누군가를 해치게 하지 마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달래는 방법을 찾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지는 못한다. 인간의 논리와 세속적인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이 사람들은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다. 반면, 그들의 눈앞에서는 그들의 참여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의 참여가 필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집 한 채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집세를 체납하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 이건 인간의 이성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이성이라곤 눈물 한 방울만큼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십만 드라크마를 기부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 드라크마 때문에 택시 기사와 흥정을 벌이다가 그를 경찰서에 끌고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어쩌면, 게론다, 그분들 머리가 좀 이상한 건 아닐까요?

— 아니요, 그들의 정신은 오히려 아주 멀쩡합니다.

— 어쩌면, 게론다, 그들이 자만심에 차서 자선을 베풀며, 그로 인해 자기 만족을 느끼려는 건 아닐까요?

— 그래, 바로 그게 핵심이야!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기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기부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가지고 있지 않아.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타락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조차 법적 정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너는 이것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나는 저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 오, 만약 사람들 사이에 이 “상식적인 복음”, 그 끔찍한 “상식”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바보로 여기지 말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법정에 제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설령 진실이 그들 편이라 해도 법정에 갈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물며 그들이 옳지 않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 탓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기도회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고, 밤샘 기도회에 참석하며,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조금 빚진 가난한 사람을 법정에 끌고 가는 어떤 기독교인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그

렇게 합니다. 저는 자신에게 돈을 빚진 사람을 고소하려던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궁핍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빚진 사람보다] 자녀가 더 많나? 아니면 어쩌면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라고 고집을 부려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건가?” —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겠는가! 물론,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 특정 교회 관련 단체에서 받은 교육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벌써 수년 동안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다. 한 집에서 한 아이를 돌보고 있던 자선 수녀회 소속의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기독교 수녀회 소속이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아파서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가 수녀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수녀회 소속 수녀 중 누구도 꿈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선, 그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니 이 문제는 애초에 논의할 필요조차 없었다. 만약 그들이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모를까,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설령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다 해도 희생 정신을 보여야 마땅했다. 이 수녀들이 자신을 희생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뤘다면 [영적으로]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수녀회가 아닌 다른 간호사가 의사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으로 끝났다. 이 젊은 여성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그 아기가 불쌍해졌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자기 희생]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활동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 마음속에는 “뭐, 누군가는 자기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나는 차라리 평온하고 근심 없는 삶을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조차 들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비난하며, 그가 영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귀함과 관대함이 있는 곳, 희생 정신과 겸손함, 그리고 무명 속에 머물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 게론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본다면, 자신이 피곤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서둘러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네, 물론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자신 안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키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속적인 ‘복음’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잣대에 맞춰 궤맨 ‘복음’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죠,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체면을 구기거나 바보처럼 보이면 안 된다.” 즉,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세속적인 논리와 진리로 대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그런 사람은 말합니다. — 나는 그를 괴롭히지 않으니, 그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 그의 마음속 생각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로 그를 달래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속적 진

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사랑도 없고, 희생 정신도 없다 —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자신만의 ‘복음’을 만들어 냈으며, 하나님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 예, 그럼 이 모든 일 후에 신성한 은총이 그에게 내릴 수 있겠는가?

제가 군 복무 중이었을 때, 한 군 비행장의 무선통신병이 호출 부호를 받으러 우리 부대로 오곤 했는데,⁵⁸ 그와 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민간인 시절 신학 교육을 받았으며, 부대에서는 동료들 앞에서 설교까지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예수회 신부’라고 불렀다.⁵⁹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일에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 나는 그에게 부탁하곤 했다. “어차피 비행장으로 가는 길인데, 부디 이 호출 부호를 저 무선통신병에게 전해 주겠나?” 하지만 그는 도저히 동의하지 않았다. “아니요,”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저는 제 호출 부호를 받으러 갔으니, 그 사람은 자기 호출 부호를 받으러 가도록 하세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곤 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가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일을 걸어가도록 강요할 때, 두 마일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⁶⁰ 그분은 “누군가 네 셔츠를 달라고 단순히 부탁하면, 그에게 겹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누가 너와 소송을 걸어 네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겹옷까지 내어주라.”⁶¹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는 내 몫을 챙겼으니, 그 사람은 자기 몫을 챙기게 내버려 두자”라고 말합니까? 즉, 그는 마치 “바보 하나 찾았군! 나한테 한 베르스타만 가라고 하는데, 내가 뭐, 무려 두 베르스타나 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수 있겠는가? 하지만 누군가 [진정으로] 이 복음의 계명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한 구간을 걸으라고 강요받을 때 그보다 더 멀리 간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과 함께] 걷게 강요한 사람도 영적으로 변화되어 놀라움에 뒷목을 긁적이며 “와, — 말하죠, — 참으로 놀랍군! 나는 그를 단 한 베르스타만 끌게 했는데, 보라,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달려갔는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로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많은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세속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저주받은 사람들—

⁵⁸ 군대에서 그 노인은 무선 통신병이었다.

⁵⁹ 예수회 — 16세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올라가 설립한 가톨릭 수도회로, 엄격한 내부 규율과 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예수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경건함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내적 상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⁶⁰ 참조: 마태복음 5, 41.

⁶¹ 참조: 마태복음 5, 40.

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이 ‘실패’ 속에 모든 사람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이 겪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그토록 낮추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며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말해 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재미를 삼았던 것입니다! 어릴 적 다른 아이들이 ‘치자’ 놀이를 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놀이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상대로 말입니다! “누가 너를 때렸느냐?”⁶² 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순간적인 부활의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수도 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스스로를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을 초월하여 살아야 한다.

제3부.

죄와 회개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란,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통을 느낀 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야 고해성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성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라고 권합니다. 다만 [회개 없이] 고해성사만 보는 것은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제1장.

죄가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의 정화

— 헤론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

⁶² 루카 22, 64.

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 주소서...”⁶³

— 게론다, 그런데 왜 야생 동물들은 성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 사람들이 온유해지면 야생 동물들도 온유해지며,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의 에덴동산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그들을 경외심 어린 마음으로 활아 주었지만, 타락 후에는 그들을 찢어발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이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 동물들은 다시 그를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물보다, 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방치된 아이들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고, 아이들에게서 돈을 빼앗으며,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를 예감하면 경찰을 불러 미성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우스가 야생 동물들이 온순해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읽었던 시편 147편을, 나는 사람들이 온순해져 자신과 같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읽습니다.

— 게론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영적 순결, 즉 진실함, 정직함, 이타심, 겸손, 자비, 악의를 품지 않는 마음, 희생정신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안에 신성한 은총이 머무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육체적 순결은 있지만 영적 순결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안에는 교활함, 교만, 악의,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욕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온통 속임수일 뿐입니다. 바로 이 점부터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영적 순결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게론다, 어떤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을까요?

— 무엇보다 먼저 사람은 그 습관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깨달은 뒤, 그 습관을 떨쳐내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려면 큰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밧줄이 우물 통나무 벽에 서서히 홈을 파내면, 더 이상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습관이든 마음속에 서서히 홈을 파고들면, 나중에 그 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그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상당한 겸손과 큰 의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티혼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습관이란, 아들이, 미덕이고, 나쁜 습관은 정욕이다.”

⁶³ 시편 50, 12.

하지만 어쨌든, 나는 영적 수련을 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그 사람의 이기심과 자기애, 그리고 사리사욕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겸손과 사랑이 부족하며, 이것이 신의 개입을 방해한다.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정욕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는 이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교만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욕을 이겨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 헤론다, 사람이 성세례 후에 [죄로] 더러워진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까?

— 그것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더럽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더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만 튀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얼룩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가 있고...

— 그렇다면 성세례의 은총을 더럽히는 죄들, 즉 중대한 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글썄요, 당연히 치명적인 죄들은 성세례를 더럽히며, 그럴 때 신성한 은총도 그리스도인에게서 멀어집니다. 물론, 그 은총이 그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수호천사가 그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한 수도사가 그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 사제에게 마귀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서두르지 마라. 이 수도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⁶⁴

— 헤론다, 죄의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 아니요, 누구나 느끼기는 하지만, 사람들만이 무관심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려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실수로 문을 닫아버린 사람을 예로 들어 봅시다. 지하실의 작은 틈새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본 그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며, 조심스럽게 틈을 넓히고, 문을 찾아 밖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선을 필수로 깨닫고 선한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됐고,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며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후로는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에게 선한 염려가 깃들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잠긴 방에 갇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갈 수는 없어. “그런데 말해 봐, 왜 내가 네 벽 안에 갇혀 숨도 쉴 수 없는 거야? 왜 여기에는 신선한 공기가 없는

⁶⁴ 『고대 파테리콘』 참조. 모스크바, 1899. 87쪽.

거야? 왜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기에 가두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누릴 기회를 주신 거야?” 과연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 지상의 낙원을 지상의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바꿔버립니다. 영혼이 치명적인 죄로 더러워지면, 사람은 악마적인 상태를 겪게 됩니다: 반항하고, 고통받으며, 내면에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마음을 신성한 진리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선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상의 낙원에서 삽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신성한 은총으로, 사람이 아무리 알려지지 않으려 해도 그를 드러내게 합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죄

우리는 자발적인 죄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 의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분이 주목하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주의로 저지른 죄들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어떤 죄들에는 감경 사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는 그 “선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어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죄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며,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 죄의 결과가 어떤 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 헤론다, ‘에베르게티노스’에 나오는 그 수도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1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매일 그 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⁶⁵

— 여기서 말하는 그 수도사는 어떤 면에서 정욕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악한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고 악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쟁했고, 고통받았으며, 진심 어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느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은 선한 성품을 지닐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악에 빠져들면 나중에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일어서려고 애쓰다가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즉, 그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⁶⁵ 참조: Εὐεργετινός. 제1권. 아테네, 1996. 34쪽 및 이후.

자신의 미약한 노력을 기울이고, 신의 도움을 구하며, 악의 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겠다는 목적 없이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시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고, 불쌍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없음에도 다시 넘어지고 또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죄를 경감시켜 주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는 나쁜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악에 휩쓸렸다가 나중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의를 저질러야 하고,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교활한 수단을 써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한 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다. 즉, 그런 사람은 자신의 최악된 계획을 세우고, 마귀와 함께 이러저러한 죄를 범할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는 [죄가] 미리 계획된 의도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자 그 자체와 함께 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그는 결코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채 죽게 된다.

하지만 노년에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과연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지, 죽음이 그들을 갑작스럽게 덮치지 않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죄 많은 삶을 살던 한 계약업자가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 그가 말하길, — 예루살렘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내 모든 죄가 씻겨 나갈 거야.” 그리고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았다. 마침내, 더 이상 죄를 지을 힘조차 없어져 — 걷는 것조차 간신히 할 정도가 되었을 때 —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다. “들어봐, — 그가 자신의 장인 중 한 명에게 말했다. — 예루살렘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로 결심했어.” — “예, 주인님, — 그 장인이 대답했다. — 당신이 깨끗하다면 도착하겠지만, 깨끗하지 않다면 도착하지 못할 겁니다.”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그 도급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아테네까지 간 직후에 죽고 말았다. 어떤 사람들이 그의 돈을 모두 가져가고, 그를 장례식장으로 데려간 뒤, 거기서 관에 담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합시다

— 게론다, 앞으로 닥칠 힘든 세월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어쩌면 지옥에 떨어져 타갈라쉬들과 함께 고통받을까 봐 두려운 건가? 네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하겠네. “나의 그리스도여,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도와주소서. 주님께 상처를 드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 후에 제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주님께는 너무나 힘든 일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네가 편안해지기 위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방탕하게 살며 제멋대로 굴다가 지옥의 고통에 빠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에게에는 일종의 집착이 생겨난다.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 선행을 하겠다.” 반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조금도 맛보지 못한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자신을 한쪽으로 제쳐 두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나를 한쪽으로 내치신다 해도, 나의 그리스도여, — 나는 말하노니 — 나는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기쁨 없이 무겁기만 한 것은, 영웅심과 사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소심한 상인처럼 생각하며, 결국 가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은 그것이 죄로 변하기 전까지 삶에서 어떤 즐거움이든 움켜쥐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건 [이미] 죄인가 [아니면 아직 죄가 아닌가]? — 그런 사람들은 계산해 봅니다. — 아니, [아직] 죄가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즐길 수 있겠군.” 예를 들어, 금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내일은 금요일이네. 그럼 오늘 자정 5분 전까지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겠네. 가져와, 좀 먹자! 아니, 12시가 지나면 안 돼 —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죄가 될 거야.” 즉,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만끽하면서도 천국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그로 인해 그들은 죄와 지옥의 고통에 대해 마치 소소한 상인들처럼 대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게 생각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죄악된 행실로 그분을 상처 입힐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내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시며 겪으실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지옥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선행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힘쓰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순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 [우리의 행동에] 인간적인 동기, 자기만족, 이기심 등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틈새로 새어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수행, 금식, 기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수단]이 우리의 육체적 건강도 강화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행하며]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까? 의사들도 똑같이 조언합니다. “딱딱한 침대에서 자세요.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것은 해롭습니다.” 누군가는 절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체조를 합니다. 누군가는 잠을 적게 자는 데 만족하기도 합니까? 하지만 긴

잠은 사람을 멍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졸린 파리 같고, 저 사람은 하품도 안 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행하는 영적 수련은 육체적 건강도 강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사람은 절제에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과학 연구 등을 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흐려지지 않고 생각이 맑아지도록 절제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요. 물론 이것이 우리 [수도자]의 절제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하는 영적 수행의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세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이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행하고, 이를 통해 육체적 건강도 얻게 됩니다.

우리 삶 속의 유혹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번에는 주의를 기울여 피하거나, 더 정확히 말해 탄갈라슈카가 우리에게 저지르려던 더 큰 악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어떤 일에서 약간의 부주의를 보이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하십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즉 [이 경우]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며, 악 대신 마귀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게 됩니다. 의 필라레트 장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녀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오늘은 유혹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라고 탄식했습니다.⁶⁶ 그 장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매일 유혹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필라레트 장로와 같은 강한 사람은 유혹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여, 저에게 유혹을 보내시고 싸울 힘을 주소서.” 그러나 약한 사람은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여,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⁶⁷ 그러나 종종 어떤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더는 못 하겠어요!” — 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일 뿐입니다. “주님, 제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추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혹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인내와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어떤 영적 겨울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영적 봄을 기다립시다. 가장 큰 유혹은 대개 허리케인처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닥치는 순간 우리가 이를 피할 수 있다면, 악마의 무리는 [우리 위로] 지나가며 더 멀리 사라지고, 우리는 위험에서 해방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다. 마귀가 천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다가갈 때] 마귀는 스스로 타버립니다.

⁶⁶ 참조: *파이지이 장로*. 『성산 수도원 장로들과 성산 수도원 이야기』.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2001. 63쪽.

⁶⁷ 누가복음 11, 4.

영적 삶은 매우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방식으로 수련하며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많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없는 곳에는 마귀의 유혹도 없습니다.

— 게론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임으로 인해 어떤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방치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을] 방치하고, 그 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만을 품고 있으면 나는 신성한 은총을 스스로 밀어내고, 나의 수호천사가 나를 떠나며, 다른 ‘천사’—즉 마귀가—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결과 나는 완전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마귀가 [나를 죄로 몰아넣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 게론다, 자신의 타락에 대해 “이건 유혹자가 나를 부추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요?

— 저도 종종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고통에 대해 유혹자가 잘못이라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게다가 유혹자는, 말 그대로 유혹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악에서 막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 수련자가 자신의 스승과 함께 칼리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련자는 달걀 하나를 집어 열쇠 고리에 올려놓았습니다 — 옛날 곡물 창고 열쇠를 기억하시나요? — 그리고 촛불 위에 달걀을 구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스승님이 돌아오셔서 그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 “네, 스승님, 악마가 저를 부추겨서 달걀을 구워보라고 했어요!” — 수련생이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 이런 조리법은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에게서 배웠구나!” 악마는 때때로 잠을 자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를 [우리를 유혹하도록] 자극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겸손을 위한 많은 재료가 있다

예전에 죄 많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모욕과 슬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 살았던 성녀 마리아 이집트수가 회개하고 삶을 바꿨을 때, 세속적인 정욕에 시달렸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욕을 몰아내기 위해 성녀는 위대한 투쟁에 나섰다. 마귀는 그녀에게 말했다. “알렉산드리아를 한쪽 눈으로

살짝 쳐다본다고 해서 뭘 잃겠어? 내가 너를 거기로 놀러 가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잖아! 멀리서 살짝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나 성녀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회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전에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다른 경건한 여성들에게는 그런 내적 투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성녀 마리아에게는 그런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투쟁으로 인한] 고통은 죄의 상처를 지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모두 동일한 [영적] 상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 게론다,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와 같은 경우, 수련자는 신성한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요! 성녀 마리아는 기도를 할 때 땅에서 팔꿈치 높이까지 떠오를 정도로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큰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겸손을 위한 풍부한 원천을 갖게 됩니다. 물론, 어떤 타락이든 타락은 타락일 뿐입니다. 하지만 타락은 또한 겸손과 기도를 위한 ‘원료’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겸손을 위해 활용하는 죄들은 마치 우리가 식물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질을 우리 영혼의 밭을 비옥하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즉,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닫고, “나는 고개를 들고 사람을 쳐다볼 자격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크게 겸손해지며, 그로 인해 많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성장하여 상당한 [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반면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위험에서 지켜 주셨는데, 나는 이토록 배은망덕하다. 나는 가장 큰 죄인보다도 더 죄가 많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죄인보다 뒤처집니다.

적어도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⁶⁸ 바리새인에게는 선행이 있었지만 교만도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에게는 죄가 있었지만, 그는 그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리는 ‘쉬운 길’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성화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그는 세리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세리는 기둥 뒤에 숨어 주위를 둘러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그리스도께 손가락으로 세리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죠! 이 점에 주목하셨나요?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세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율법의 외적인 규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겸손함이 없는 죄인은 세리

⁶⁸ 참조: 루카 18, 9-14.

의 죄와 바리새인의 교만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종의 “재능”이라니! 에피르 지방에서 말하듯이, “⁶⁹” —즉, 이가 들끓고 옴에 걸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영적 독소, 즉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제2장.

양심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양심을 시험해 보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들에게 양심, 즉 첫 번째 신성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깊이 새기셨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양심을 물려받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내면에서 작용하는 양심이 그를 책망하고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나 항상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 수련을 하고 자신의 양심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양심을 시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 서적을 읽거나 성스러운 장로들의 조언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양심을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 게론다, 자신의 실제 영적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살피지 않고 정화하지 않으면, 점차 양심이 찌꺼기 층으로 덮여 무감각해집니다. 그는 죄를 짓지만, 마치 별일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 게론다, 양심을 어떻게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가 정말로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살피고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양심을 짓밟으면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양심을 왜곡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선행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게론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무감각해졌기 때문일까요?

⁶⁹ 에피르 – 그리스 서부의 지역. – 역자 주.

—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죄를 지을 때 사람은 일종의 [내면의] 책망을 느끼고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책망의 정도가 줄어들고,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실수에 대해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마치 열반에 빠지는 힌두교도들과 다를 바가 없죠!⁷⁰ 히말라야의 한 청년이 이탈리아인 등반가 다섯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땅에 묻은 뒤 정신 집중 수련을 시작했다. 땅에 앉아서 그는 두 시간 내내 “나무, 나무, 나무...”라고 되뇌었다. — “영적 공허”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난 일을 잊고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자, 가령 내가 우리 수녀들 중 한 명을 제멋대로인 잘못 때문에 꾸짖는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 수녀가 올바른 영적 수행을 하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꾸지람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오늘 저녁 기도 시간 종소리가 평소보다 일찍 울리겠네요...” — 대화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히며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넌 장로님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한 거잖아!” 마귀도 그녀에게 변명을 찾아주며, 그녀가 “내 양심을 짓밟기 위해 그랬다”고 고백하는 대신, “장로님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보시다시피, 탄갈라슈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교묘한 수법입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도록 조정 손잡이를 다른 주파수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 게론다, 사람이 사소한 잘못은 스스로 알아차리면서도 중대한 죄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 어떻게 그럴 수 없겠습니까! 제가 아는 고해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여성이 그분께 고해성사를 받으러 왔다가 통곡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죠. “저는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 “들어보세요,” 고해신부가 그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회개가 있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잖아요.”⁷¹ — “네, 네, 하지만 전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 그녀가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파리를 죽였나요?” — 고해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먼지를 닦다가 실수로 걸레를 휘둘렀더니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전 그 파리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여자는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뒤 행방불명된 채 살았지만, 이 모든 일을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일처럼 이야기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참회가 필요합니다.” — 고해 신부는 그녀의 ‘위업’에 대해 듣고는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녀가 ‘

⁷⁰ 장로는 동양 종교의 신도들이 해방으로 이해되는 소위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가와 명상 기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⁷¹ 참조: 열왕기하 12, 13.

이 모든 일'로 인해 참회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 그녀가 반박했다. 자, 말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마비된 양심

— 게론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욕망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자각할 수 있을까요?

—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체력이 쇠약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미생물학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몸의 이상 원인을 찾기 위해 단층 촬영을 하죠. 만약 네가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 괴로워한다면, 네 내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문제를 찾아서 바로잡아야 한다. 가령 어떤 [죄가 되는] 잘못을 저질러 괴로워하면서도 고해성사 때 그 사실을 숨긴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이 흐르고, 너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너는 기쁨을 느끼고, 이 기쁨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덮어버리니, 너는 점차 그 죄를 잊어버린다. 너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 기쁨이 마치 뚜껑처럼 그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기쁨은 죄를 덮어씌우고, 그 죄를 마음 깊은 곳으로 몰아넣지만, 죄는 여전히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짓밟고, 그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며, 그의 마음은 서서히 굳어진다. 그리고 나서 타갈라슈카는 모든 일에서 그에게 변명을 찾아낸다. “이건 하찮은 일이고, 저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은 평안을 얻지 못한다. 깊은 곳으로 밀려난 불안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내면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받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들은 겉으로 가려져 깊은 곳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 게론다, 그런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여]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면,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에게 눈을 뜨게 해 준다면, 그의 양심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그를 책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진실을 감당하지 못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해진다면,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아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헤론다, 양심이 무더진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 아니요, 양심이 무더진 채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양심이 무더진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어두고 마음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면, 그의 양심은 서서히 찌꺼기 층으로 덮여 더 이상 그를 책망하지 않게 됩니다.

— 게론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만의] 법을 만들어 냅니다.

— 네... 끔찍한 일입니다!..

— 이게 뭐죠? 유혹인가요?

— 글썄요, 뭐겠습니까? 물론, 미혹이죠.

왜곡된 양심

— 게론다, 당신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망가뜨리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는 것입니까?

— 자신의 생각을 달래는 사람은 양심을 짓밟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을 달래다 보면, 사람은 자신에게 또 다른 양심, 즉 자신의 기준에 맞춰 지어낸, 말하자면 왜곡된 양심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되는데, 왜곡되고 타락한 양심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누군가가 그 실수를 눈치채지 못한 척하거나 “네 잘못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달래주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다. 여러 구루의 추종자가 되어 그런 일들에 몰두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조언을 구하러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돕고자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완강히 거부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신앙은 모두 옳습니다.” — “자, 들어보세요,”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모든 게 옳다’고 하고, 그 ‘옳은 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준다면, 도대체 왜 저에게 질문을 하러 오시는 건가요?” 이처럼 거짓 속에서 내면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조금이라도 거짓된 평안을 ‘찔러 빼앗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찾지 못합니다.

— 게론다, 사람이 일생 동안 왜곡된 양심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 자신의 생각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왜곡된 양심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영적 지도자와 상의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헤론다, 사람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이유로 양심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까?

— 일단 양심을 왜곡했다면,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의 감수성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것은 또 다른 타락을 낳기 마련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야만적으로 대하고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 게론다, 자기합리화를 일삼는 사람들의 양심은 “찌꺼기”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까?

— 자기합리화를 하는 사람이라 해도 내면의 책망[양심의 소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무감각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무감각하지 않다면, 자신의 죄된 잘못으로 인해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 후에 신성한 위로가 찾아온다. 그러나 양심을 왜곡한 사람은 무감각에 이르게 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랑한다. 나는 마치 위업을 자랑하듯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의 왜곡된 양심을 더욱 교묘하게 다듬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감각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때 내가 코니체(Konitsa)의 스토미온(Stomion) 수도원에 살던 시절,⁷² 그곳에 한 남자가 찾아와 말했다. “고해성사를 하고 싶습니다.” — “저는 신부가 아닙니다.” — 제가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는 성지를 참배하러 수도원에 온 몇몇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앉아서 들어보세요,”라고 그 남자가 허락하며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구두 장인 수업을 받으러 보내졌지만, 낮에 작업실에 앉아 있으면 항상 졸고 코를 골곤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바로 밤마다 저처럼 절망적인 녀석들과 함께 도둑질을 하러 다녔기 때문이죠. 우리 현에는 꽤 유능한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 잘했어. 밤이 어두울수록 도둑질은 더 이득이니까. 나한테는 양 두 마리만 필요해. 나머지는 너희 몫이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든.’ 뭐, 그런 사정이니 우리는 말하자면 ‘기독교인 집들’을 돌았다. 나는 모자를 벗고, 가장 먼저 개들에게 어깨에서 채찍을 휘둘러 주둥이를 때렸다. 내 채찍은 좋은 키질 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그다음 우리는 우리로 들어가 양 두 마리와 힘이 닿는 대로 양들을 골라냈다. 어린 양들은 지구대장에게 넘기고, 양들은 우리 양우리 속에 숨겨 둔 뒤, 지구대장은 지체 없이 — 네가 뭘 생각하겠어? — 우리를 감옥에 가뒀다! 하지만 계속 들어봐! 밤에 우리가 흠치는 걸 목격한 주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파출소로 가서 지구대장에게 말했지. “누구누구가 우리를 털어갔어요!” — “어떻게 ‘누구누구’란 말이야? 둘 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 “사람들을 모함하러 온 거냐?” 하며 그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런 일화를 하나 들려줄게: 어느 날 우리가 양 떼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경비원이 있

⁷² 코니체 – 서부 그리스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파이시아 장로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다. – *번역자 주*.

었는데, 아직 젊은 블라시노크 출신이었지만⁷³ 황소처럼 건장했고,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도 있었어. “양 떼에 어떻게 접근할까?” — 동지들이 나에게 말했지. — “저 녀석들이 우리를 성냥개비처럼 흩어 버릴 텐데!” 성냥개비라고? 자, 보자... 나는 어깨에서 산탄총을 내려놓고, 그 젊은이를 조준경에 담더니 — 팡! — 일이 끝났지, 녀석이 쓰러졌어... 그 녀석의 아버지는 밧줄로 배나무 한 그루에 묶어뒀고... “글쎄, 말해두지만, 우린 거기서 꽤 많은 전리품을 챙겼지!..”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마치 영웅적인 업적인 양, 웃으며 이야기했지! 보라, 왜곡된 양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가는지?

그리고 호송국에서 근무하던 내 지인인 한 경찰관은,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호송해야 했던 범죄자가 수많은 범죄로 인해 군사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당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 그 경찰관은 총살당한 사람의 친척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몇몇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던 범죄자의 친척 중 한 명이 그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그 자식은 진작에 총살당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텐데!”

보시다시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과 이 경찰관의 태도 사이에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직무상 악당을 감옥으로 호송했을 뿐인데도, 마치 자신이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마치 영웅적인 업적인 양 이야기하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거짓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 게론다,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이미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에게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히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세요: 누군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든다면, 그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람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가령 누군가가 이웃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는 심지어 죽음에서조차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거짓말은 여전히 죄의 절반에 해당한다.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돕거나 유혹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수도원에 찾아온 순례자가 가족 문제를 털어놓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다 나중에, 가령 그의 형제가 수도원에 찾아와 “그 사람이 여기 있었나요?”라고 묻는다면, 진실을 말하면 형제가 곤경에 처하게 되므로 긴 설명이 필요

⁷³ 블라히족 – 그리스 산악 지역에 거주하며 로망스어 방언을 사용하는 발칸 민족. – 역자 주

하게 된다. 따라서 당신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왔다고 말하면,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런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더 깊은 단계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는 자신의 양심을 왜곡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온갖 허구적인 이야기를 지어내게 될 지경에 이르러, 그 과정에서 양심이 전혀 그를 책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허구 만들기”는 진정한 기술이 되어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나씩 이어 붙이는 데 정말 능숙하군요,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으니 말이죠! 오!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온갖 허구까지 지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지인 한 명이 내 오두막에 찾아왔는데, 그와 함께 내가 도와주던 청년의 고향 친구 몇 명도 함께 왔다. 그 불쌍한 청년은 머리는 똑똑하고 마음도 착했지만, 게으름뱅이로 일하기를 싫어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4년 내내 나는 그를 어떤 일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애썼고, 이번에도 그의 고향 친구들에게 부탁했다. “이 청년을 어떤 일이라도 시켜 주세요. 저도 예전부터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심지어 카스토리아⁷⁴)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그를 보내 가족 장인 기술을 배우게 하려고도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망쳐 버렸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니, 망가져 버리면 안타깝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한 분 밖에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제가 도움을 청하던 사람들과 동시에 온 제 지인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파이시 신부님과 함께 그 소년을 제자로 받아 모피 장인으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친 후, 그가 배우던 카스토리아의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려고 전보를 보내는 데 제가 돈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아십니까! 뭐, 어쨌든 지난 일이고, 그런 건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죠. 그때 제가 파이시 신부님께 이렇게 말했었죠. ‘곱사등이는 무덤이 고쳐 줄 거야.’ —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놀라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라! 생애 처음으로 그 소년에 대해 들었을 뿐인데, 그는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청년을 돌보았고, 그를 돕고자 “가족 장인 집안에 입양시켰다”는 등 온갖 허구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어조가 워낙 그럴듯해서 나조차도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 그가 당신 얼굴을 똑바로 보며 그렇게 말했나요?

— 얼굴을 마주보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요.

—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나요?

⁷⁴ 카스토리아 – 그리스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모피 가공의 주요 중심지이다. – 역자 주.

— 그가 무슨 기분을 느꼈겠어! 그 모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그는 내면에서 일종의 이기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그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겠어?

—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이 그 내용을 조금 과장한다면...

— 그래, 약간 과장해서 꾸며내기도 하고...!

— 그건 허영심 때문인가요?

— 그럼 또 뭐 때문이겠어? 사람은 허영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무언가를 과장해서 말하잖아.

— 그런 사람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거짓말을 그만둬야 합니다. 거짓말은 비록 죄를 경감시켜 줄 만한 사정이 있다 해도 여전히 죄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게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무언가를 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말이죠?

— 자, 내가 너에게 “자매여, 너는 네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잠시 어리석은 미소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내면의 평안은 얻지 못할 것이다. 거짓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하는 그 불의한 사람도 마음속에 평안을 갖지 못하듯이 말이다. 보라, 터키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지 벌써 수년이나 지났지만,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는 그리스인들을 바라보며 터키인들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느낌을 받고, 마치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쳐다본다! 그런데 그들은 터키인이고, 벌써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타락하지 않은 양심은 틀림없는 깨달음을 준다

사람에게 평온한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양심이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경우 사람은 끊임없는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그의 온 삶은 축제이자 명절이 됩니다. 이 내면의 기쁨은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 게론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사람에게는 내면의 알림이 있습니다.

— 자신의 내적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한가요?

— 저는 양심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양심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양심은 틀림없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 경우 사

람은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분투하기 때문에 이를 느낍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달래지 않습니다.

양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보다 더 타는 듯한 불꽃도, 더 큰 지옥의 고통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벌레와 같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상에서 살았던 그 짧은 세월 동안 천국의 복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지상의 세월이 양심의 가책과 내적 질식감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이다.

— 게론다, 수도사는 실제로 어떻게 양심의 “순교”를 겪을 수 있습니까?

— 양심의 “순교”는 수도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수도사들은 그 외에도 수행의 달콤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순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고통을 더 크게 겪을수록, 즉 자신의 죄악 때문에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든, 고통이 더 클수록 그만큼 더 큰 신성한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평온하다면, 비록 슬픔이나 좌절 등을 겪더라도 그 사람은 내면에서 신성한 위로를 느낍니다.

제3장.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를 아는 것의 필요성

자아 탐구

군대, 특히 통신 부대에서는 무선 추적망이 구축되어 있었고, 무선 통신병들은 [아군과 적군의 무선국을 구별하는] 식별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무선국들을 감시하며 어느 것이 적군이고 어느 것이 아군인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때때로 아군 무선국 간의 통신에 적군 무선 통신병들이 끼어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들이 계명 와 복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가게 내버려 두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그 어떤 연구보다도 유익한 일입니다. 사람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읽은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비록 조금만 읽더라도 얻는 유익은 큼니다. 후자의 경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의 행동과 태도는 더욱 세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내 칼리바에 방문객들이 오면, 나는 마당 반대편에서 앉을 수 있는 통나무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떠날 때, 누가 이 통나무를 제자리로 다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은 제가 통나무 하나를 가져다주는 것을 보고, 그 하나로는 모두가 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문객들은 제가 다른 통나무들을 가져올 때까지 여전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자, 우리도 다섯, 여섯 명인데, 신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당 반대편에서 나무토막을 직접 나르셔야 하나요?”라고 말했다면, 각자 나무토막 하나씩 집어 들고는 재빨리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 게론다, 어린 수녀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초보 수도사였을 때, 장로님께서 영적 투쟁에서 넘어지신 적이 없으셨나요? ‘왼쪽’에서 오는 어떤 생각도 없으셨나요? 결코 비난에 빠지신 적이 없으셨나요?”

— 제 영적 투쟁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누군가 저를 꾸짖을 때면, 저는 그 모든 것에 ‘면세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 게론다, ‘면세 특권’이란 무슨 뜻입니까?

— 자신의 실수와 죄에 ‘면세권’을 주는 것은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수를 깨닫는 것이 영혼에 닿지 않고 영혼을 ‘스쳐 지나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땅이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에 ‘면세 특권’을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밭은 무관심으로 인해 굳어지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다. 즉,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아직 신앙 생활 초보였을 때] 누군가가 나를, 예를 들어,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다니, 저 사람 꼴이나 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대해 그렇게 말하게 된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다.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부주의해서 그에게 빌미를 주었고, 그가 내 행동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내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현명하게 행동했다면, 그는 내 행동을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즉시 나는 내 실수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즉, 나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대해 그

런 말을 했는지—질투 때문인지, 시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오해했기 때문인지—파헤치지 않았다. 그 질문은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하면, 나는 잠조차 잘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라면, 나는 속상해하며 스스로를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설령 상황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나는 여전히 속상해하며, 내가 부주의해서 이웃을 유혹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모든 책임을 이웃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행동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일을 이런 식으로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누구누구는 자제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자제력을 잃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을 잘 살피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 상태가 정상 지 않아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살피지 않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시절부터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으면, 비록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해도 여전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데에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젊은 시절을 지났음에도 여전히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확신에 차고 더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종종 [영적] 투쟁 속의 번덕스러운 기복조차도 사람이 하늘을 향한 영적 여정을 결실 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걸어가도록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다가 계단에서 툭 넘어지거나,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의자에 발을 올렸다가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이는 의자에 발을 올리고 가장자리에 서면 의자와 함께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이는 경험을 쌓고 성숙해지며 주의 깊어진다. “지난번에는,” 아이가 생각합니다.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지. 이제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영적] 투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모든 것을 선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경험을 쌓게 되며, 그 경험을 통해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기로는, 우리 집인 코니체에는 여섯 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어른 말도 있고 망아지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 말들을 통나무 다리 위로 건너게 하고 있었습니다. 통나무 한 개가 썩어 있어서, 네 살짜리 어린 말의 다리가 통나무와 널빤지 사이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후 나는 다리를 수리하고, 썩은 통나무와 널빤지를 모두 튼튼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몰고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한 번 그 다리에서 빠졌던 말은 불안해하며 고개를 흔들더니, 고삐를 끊고 도망가거나 단숨에 다리 반대편으로 뛰어넘곤 했습니다. 보십시오: 말도 못하는 동물인 네 살짜리 말조차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한 번 빠졌던 다리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적을 한곳에 묶어두고 타격을 가해야 한다

— 게론다, 저는 아직 겸손과 희생, 불의에 대한 수용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 상황이 네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나는 [너를] 걱정하지 않는다. 네 안에 선한 우려가 생겨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자신이 죄를 짓는 현장을 포착하기’ 시작했으니, 곧 정욕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위업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이 죄를 짓는 현장을 포착하는’ 사람은 낡은 사람을 벗어던지고 올바른 영적 길로 나아간다. 우리의 낡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이룬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낡은 사람을 ‘범죄 현장에서’ 잡아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빼앗아 가는 다른 모든 도둑들도 함께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부는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 게론다, 제가 저지른 실수, 예를 들어 자매 중 한 명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에 대해 너무 괴로워한다면, 이것이 제게 유익이 될까요?

— 물론 당신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합리적인 슬픔]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과 함께 기쁨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드러난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매에게 무례하게 굴고 나쁘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 욕망이 밖으로 드러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고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자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실수는 네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며 서서히 [자신을 향한] 유익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의사들도 때때로 환자에게 다양한 물질을 투여하여 질병

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설탕을 먹인 뒤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가 상승했는지 확인하죠.

영적 투쟁에서는 우리 성격의 약점, 즉 우리의 결점이라는 “좌표”를 파악한 뒤,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마치 전쟁에서처럼, 특정 지역을 정찰할 때 우리는 지도에 적이 있는 곳이나 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수 있는 교두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지점들을 각별히 주시합니다. 결국, 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면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지도를 펼치며 말합니다. “적은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지와 저 고지를 서둘러 점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증원군을 보내야 하고, 여기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무기가 필요하다.” 즉,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투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 게론다,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스스로 깨닫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사람이 그 단점을 지적할 때도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대로만 자신을 볼 수 있을 뿐, 실제 자신의 모습 그대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 저를 더 잘 볼까요?

— 원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 스스로가 어떤 일이나 실수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수월한 반면, 제3자의 관찰자는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이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 네. 사람의 노력 속에 교만이 깃들어 있다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치 거울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울처럼 바라볼 때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재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재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그는 완전함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그것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것이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든—은 또한 우리 자신의 소유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결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점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웃의 결점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어떤 결점을 보게 되면, 즉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잠깐 보자, 어쩌면 나도 같은 결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서 그 결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 게론다, 만약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는 그런 결점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에게는 다른, 더 큰 결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이 결점은 내 결점에 비하면 미미할 정도로 작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의 결점이 실제로 더 작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죄를 경감시켜 줄 사정도 더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성찰하면, 자신의 결함이 이웃의 불완전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웃의 미덕도 보게 된다. “자, 한번 보자,” 그런 사람이 말한다. “나에게 이 미덕이 있는가? 없다. 오호호! 내가 있어야 할 [영적 상태]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러한 영적 수련을 통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도움을 얻고, — 좋은 의미에서 — 변화하며, 완성되어 간다. 그는 성자들로부터 유익을 얻고, 고행자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며, 심지어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유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세속적인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에게 그러한 영적 수련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이타심이 있을까? 꿈도 꾸지 마! 그런데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도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는 본 선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즉 모든 사람에게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마련해 주십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을 갖게 됩니다

— 헤론다, 저는 보통 그 죄에 빠진 뒤, 뒤늦게야 제 교만을 깨닫곤 합니다.

— 중요한 것은 네가 넘어지기 전에 그 교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누군가 말해준다고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마라. 칭찬이 네게 달라붙거나 매달리게 두지 마라.

— 그럼 무엇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후로는 칭찬이 이물질처럼 되어, 더 이상 그에게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달라붙을 수 없다. 네가 자신을 공주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네가 정신적으로 지체되었다는 뜻이다.

— 만약 제가 미리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싸움에서 도움이 될까요?

— 물론, 준비되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낡은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 궤도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그의 [이기적인] 원자의 영적 분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은 세속적인 궤도에 머물게 된다.

— 게론다,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 틀릴 수도 있나요?

— 우리 둘이 지금 잘못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겸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자아 인식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마치 땅속 깊이 파고들어 그 안에서 유용한 광물을 찾아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식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낮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겸손해지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를 끊임없이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자신을 알게 되면, 겸손은 이미 그의 상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서] “임대 기간 연장”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교만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쓰레기에 새로운 쓰레기를 더해가며 쓰레기 더미를 키우고, 잠시 동안 그 꼭대기에 거만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게론다, 저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곤 합니다.

— 그런데 당신은 자신의 병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요.

— 바로 그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아는 것이다. 네 자신의 병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점을 따지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가 그에게 할 일을 찾아줄 것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수양에 힘쓰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모두 알게 된다. 반대로 [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사람은 그들에 대해서도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 게론다, 사람이 잘못을 고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무엇보다도 의지, 소망입니다. 의지와 [고쳐지려는] 소망은 어떤 면에서 선한 시작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항생제를 복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숨긴다면, 어느 순간 자신도 예상치 못한 사이에 쓰러져 버릴 것이며, 그때는 의료적 조치도 이미 그에게 소용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결핵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식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왜 밥을 안 먹니?”라고 누군가 묻는다. “에~,” 그가 대답한다. “이 음식이 내 입맛에 별로 안 맞거든!” 그러다 그는 기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간신히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비틀거리며 걷는 거야?” 사람들이 놀라 묻는다. “글쎄,” 그가 대답한다. “난 천천히 걷는 게 좋아. 왜 미친 듯이 달려가야 하겠어요!” 그는 기력이 쇠약해져서 겨우 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다 기침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기침을 하세요?” —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건 제 알레르기 때문이에요!” — 그가 대답합니다. 그는 이미 폐결핵이 폐를 침범해 폐가 끔찍하게 아픈 사실을 숨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환자는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뭐야?!” —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별거 아니야, — 그가 대답합니다, — 목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야!”

— 게론다,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 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계속 숨기고 숨기다 보면, 결국 결핵은 급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폐가 썩어가고, 환자는 터진 파이프에서 물이 쏟아지듯 목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병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병은 이미 그런 단계에 이르러 그를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병이 막 시작되었을 때, 예를 들어 미열의 원인이 초기 결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는 누구보다 건강해졌을 것이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욕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결국 악마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악마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잔인해지고, 짐승처럼 변하며, 거칠게 날뛰고, 사람들에게 건방지고 뻔뻔하게 말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이 자신의 병을 깨닫고 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치료를 받고 적절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의사—영적 지도자나 장로—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에게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수혈을 할

때: 그는 의사에게 손을 내밀고, 정맥을 찌리게 하며, 통증을 느끼지만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수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건강해지기 위해 수술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 게론다, 만약 제가, 예를 들어, 누군가의 엄한 충고가 제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안다면, 왜 그 충고를 기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 좋아요, 지적에서 기분 좋은 점을 찾지 못한다고 치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 네, 그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글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뭔가 있는 거야. 이것 좀 봐: 환자는 달콤한 캐러멜보다 쓰디쓴 약을 더 기꺼이 삼키는데, 그 약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쓴 약을 먹지 않으면 환자는 낫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에 맞는 [영적인] 약을 받아들여야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다.

제4장.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 헤론다, 아바 이사악은 기도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⁷⁵

— 네, 아이처럼 느껴야 하지만, 말썽꾸러기 아이처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슬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애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성한 자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셔야 하므로, 내가 온갖 장난을 쳐도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 헤론다, 저는 성 그레고리우스 니스카의 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무정(無情)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모욕과 비방”이 된다고 읽었습니다.⁷⁶

⁷⁵ 참조: 『성 이사악 시리아인의 수행에 관한 말씀』. 모스크바, 1993. 97쪽.

⁷⁶ Αγίου Γρηγορίου Νύσσης. Εἰς τὴν προσευχὴν. Λόγος Β', PG 44, 1141 A; 참조: 성 그레고리우스 니시우스. 저작. 제1부. // 모스크바 신학 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러시아어 번역 성부들의 저작. 제37권. 모스크바, 1861.

— 걱정하지 마, 어리석은 아이야. 성인은 게으르고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쓰신 것이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 헤론다, 저는 하나님께 큰 빛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게 저를 괴롭힙니다.

— 네가 하나님께 빛진 자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겸손히 “*죄를 지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도우시며, 그분의 은총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온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단순히 자신을 빛진 자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너는 영적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악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곳 수도원에서는 모든 수녀들이 어찌 되었든 회개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를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영적인 사람은 신성한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정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와 대화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런 식의 사람이다”라고 아픔을 담아 말할 때면, 나는 기뻐한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픈 산에서 우연히 한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한 남자가 고양이와 개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화재가 날까 봐 두려워서 그는 몸을 녹이기 위해 불조차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가 안타까웠지만, 제가 그에게 동정심을 표현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수도사님. 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신다면,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조차도 너무나 좋은 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말이다. 얼마 전,⁷⁷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는데, 그녀의 손은 수혈로 인해 흉터가 너무 많이 나 있어 보기조차 끔찍할 지경이었다! 말 그대로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이런 악덕도 있고, 저런 결점도 있으니까요...” — 그리고 그녀는 온갖 결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얼마나 치밀한 자책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⁷⁷ 1994년

— 게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 만약 그 사람에게 큰 겸손이 있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높은 수준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면,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관대하게 대하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지요, “그 생각은 그만두어라. 이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관용으로 “대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이 됩니까?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하느님을 감동시키며, 우리에게 신성한 도움과 천상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조차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헤론다, “올바른 자기 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자기 인식도 있는 것입니까?

— 네, 자신의 내면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다고 말할 때, 저는 그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50만 드라크마를 빚지고 있다고 합시다.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50만 드라크마를 빚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빚을 갚는 일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빚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사실을 떠올리고 당신에게 또 말합니다. “네, 네, 제가 빚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빚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빚을 자각하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빚을 갚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내가 너에게 빚졌어”라는 말을, 채권자가 빚 갚는 일이 채무자에게 진정으로 큰 걱정거리임을 알 수 있는 어조로 말합니다.

죄악에 대한 자각과 영적 투쟁에서의 성공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 투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남을 것이다. 너에게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 자신의 상태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갈 운명인 사람들은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왜 수련을 하겠는가?”라고 말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투쟁 없이 거룩해졌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도 자신의 개선과 정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립니다. 그는 마치 열매를 맛보고 싶어 입을 벌린 채 뽕나무 아래에 앉아, 어떤 열매가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져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노인처럼 행동합니다.

— 게론다,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네가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있다면, 영적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네 죄를 더 크게 볼수록, 죄성에 대한 자각도 더 깊어지고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 게론다, 자신의 죄된 실수를 깨닫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 사람이 자신의 죄된 잘못을 깨닫고도 원치 않으면서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교만이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성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위대한 힘이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하고, 겸손해지며,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덕분으로 돌리고, 그분께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사는 죄인들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 게론다, 성부들이 회개란 사람이 과거의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아니요, 각 죄를 따로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죄성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겸손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마쳤다면 그 죄들을 잊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그에게 옛 죄들을 상기시켜 주고, 생각으로 그를 짓누르며, 그의 시간을 뺏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교만이 싹트는 것을 본다면, 자신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죄를 떠올리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 게론다,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겸손함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에 이기심이 섞이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으로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내가 또 이런 짓을 할 수 있

있을까?”와 “어떻게 내가 이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말에는 이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말에는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깨달은 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 “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토록 하찮은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는 없으니, 저 혼자서는 결코 고쳐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후에는 자신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지은 후 고통을 겪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추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상처 입혔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세속적인 정신과의 유대를 끊으면, 그 후 종종 원치 않는데도 그 정신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죄인 안에서 시작된 선한 양심의 가책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책은 그가 저지른 잘못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의 영혼을 책망합니다. 조용히 투쟁이 일어나고, 사람은 무의식중에 자신을 낮추며 선한 절망, 즉 자신의 ‘나’에 대한 절망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⁷⁸ 를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그런 사람이 정직하게, 깊은 겸손을 가지고 수련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

— 헤론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스스로를 도울 수 있습니까?

—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아파한다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통회와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 마르코스 은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그 죄의 정도에 맞게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쉽게 같은 덫에 빠질 것입니다.”⁷⁹ 즉, 죄가 작으면 회개도 적게 필요하고, 죄가 무거우면 더 큰 회개가 필요하다. 자신의 타락의 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 정도에 상응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은 쉽게 똑같은 죄나 심지어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

⁷⁸ 요한복음 15, 5.

⁷⁹ 참조: 『자비』 (러시아어 번역본), 제1권.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560쪽.

—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타락에 대해 그 심각성에 걸맞게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타락과 슬픔 사이의 불일치를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관찰할 때, 단 한 번의 [영적] 진단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끝없이 [영적] 미생물학적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영적] 미생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벌레를 으깨버려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끝내 시작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시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분석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고, 저런 욕망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욕망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한탄만 하며 여전히 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헛되이 낭비하고, 스스로를 헛되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병에 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회복되면 다시 한 번 “어떻게 그때 내가 그렇게 병에 걸렸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다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요. 자신의 잘못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 형제여, 상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불행과 비참함에 대한 감정도 피해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니?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니? 네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렸니? 그 실수를 깨달았니? 고해성사까지 했니? 만약 그렇다면, 그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네 길을 계속 가라. 다음 번에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할 기회가 생겼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그저 기억 속에만 간직해 두어라.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로 인한 실망은 무의미합니다. 실수를 슬퍼만 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아픈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울기만 할 뿐, 그가 건강해지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 계론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마땅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조차 슬퍼할 필요는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슬퍼해야 하지만, 그 슬픔은 당신의 실수에 상응하고 비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경솔함으로 인해 다시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즉,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의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슬퍼했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조금 다잡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어느 정도 선한 무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기 책임입니다

— 게론다, 하지만 영적 여정의 시작 단계에 있을 때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 우리가 영적 삶의 초기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부 정직하고 예민한 영혼들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려, 우리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옷 소매가 새 배설물로 더러워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며 이것이 배설물이 아니라 꽃잎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면,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그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경험이 없다면, 섬세한 작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람이 영적 삶의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면, 그에게 영적 출혈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고통받으며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저는 제 실수를 보지 못하고, 제 마음은 돌과 같습니다.

—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분별력 있게 대해야 합니다. 영혼의 고뇌와 절망이 깃든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마귀가 자신의 꼬리로 사람을 휘둘러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주의 깊어야 합니다. 마귀가 회개라는 ‘오른쪽’에서 사람을 붙잡으면, 슬픔과 절망이라는 ‘왼쪽’으로 내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 무너뜨리고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한다. 즉, 그는 또 다른 회개, 즉 영적 불안으로 가득 찬 회개를 가져와, 그 회개로 사람을 짓밟으려 한다. 예를 들어, 마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다.” 마치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마귀는 그를 영적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가 당신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원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거야. 네가 원할 때가 아니라.”

— 게론다, 영혼에 종종 낙담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낙담과 마음의 무거움은 대개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사람이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람은 고해성사를 통해 영적 지도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

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그가 저지른 죄가 아주 사소할지라도 원수는 그 죄를 그 사람의 눈에는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그 죄를 부각시켜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악마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에게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크게 상심하게 했거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다는 등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이처럼 악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나 만약 악마가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선을 염려한다면, 왜 무감각한 사람의 양심을 유혹[깨우치]러 가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무감각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악마는 그에게 큰 죄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적 즉 마귀가 자신의 눈앞에서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내는지와 달리,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마귀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지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회개만 있다면, 왜냐하면 그의 죄는 악마의 죄보다 적고, 죄를 경감시켜 줄 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흠으로 지어졌으나, 부주의하여 미끄러져 진흙에 더러워졌을 뿐이다.

영적 싸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우리 영적 기계의] 바퀴를 마귀가 돌리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양 속삭이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삭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말합시다. 사람이 단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의 삶에는 회개와 겸손이 들어오고 그는 영적인 높이로 올라갑니다.

— 게론다, 그렇다면 자기 책망은 영적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스스로에게 “아, 이 멍청한 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책망은 마귀를 비웃기 위해 겸손함으로, 또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지, 자신의 불행에 대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책망이지, 절망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이 선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믿고, — 이 말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나’에 대해 절망하지만, 자신의 행실로 끊임없이 0에 0을 더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투쟁을 계속한다면, 이는 그가 영적 성숙에 도달했다는 징표이다. 이 경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의지의 ‘0’들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0’들의 앞에 ‘1’을 붙여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0’들은 가치가 높

아지고, 그는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라는 겸손한 상태 속에는 선한 영적 상태가 숨어 있다.

돌보기를 통한 영적 수행

— 게론다, 사람은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사람은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면 죄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주의 깊게 살필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 큰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 그런데 수많은 걱정으로 짓눌린 사람은 어떻게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 그런 사람이 하루 중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예수님의 기도에 할애하고, 또한 자신의 [영적] 이득과 손실을 계산할 정해진 시간을 갖는다면 좋습니다. 보세요: 식료품점 주인은 매일 자신의 돈을 계산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빚을 챙기지 않으면 파산하고, 빚의 늪에 빠지게 될 테니까요.

—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고해성사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 이는 그들이 자기 수양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심한 수양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실수조차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눈먼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볼 수 있지만, 두 눈이 모두 건강하게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더 잘 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망원경과 현미경까지 갖추고 있다면,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조각 성화를 나는 사흘 만에 완성할 수 있지만, 며칠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손에 들면 그 안에서 많은 결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점의 성화를 만드는 데 일주일, 한 달, 심지어 2년 동안 작업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5년 동안 작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저는 확대경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수행 또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수록 그의 영혼의 눈은 더 맑아지고, 그러면 점차 자신의 죄를 점점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성자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눈이 [영적인] 현미경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큰 영적 성취를 이룰수록, 더 강력한 영적 현미경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스스로를 더 큰 죄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맨눈으로 제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게는 그 손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지금 간신히 보이는 이 잔털들이 마치 거대한 사이프러스 숲처럼 보일 것입니다! “형제여,” 제가 놀라 말하겠지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동굴에 사는 원시인이란도

된 건가?” 자신 안에서 이러한 영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낡은 사람을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사람은 우리 안에 사는 악의에 찬 “세입자”입니다. 그가 떠나게 하려면, 우리는 그의 거처를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5장. 회개가 지닌 위대한 힘에 대하여

“자신 안으로 들어와...”⁸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매우 높이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어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머무르시게 하려면, 그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시고 그에게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늘에서는 한 명의 회개하는 죄인 때문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⁸¹* — 복음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마음이 굳어지고 어리석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작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끔찍한 영원한 고통으로 이끄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낙원 같은 기쁨들마저 잃게 되는데, 그 기쁨들은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 곁의 낙원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다. 보라, 복음서에는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탕자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죄 가운데 살 때 그는 자기 자신 밖에서, 이성과 의미 없이 살았는데, 이는 죄가 상식 밖의 것이기 때문이다.

— 게론다, 아바 알로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성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⁸² 그가 무슨 뜻으로 말한 것입니까?

⁸⁰ 누가복음 15, 17.

⁸¹ 누가복음 15, 7.

⁸² 참조: 『성인과 복된 교부들의 수행에 관한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3. 42쪽.

— 영적인 삶을 위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사람은 단 한 순간에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⁸³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회개는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요! 회개는 신성한 은총을 흡수합니다.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겸손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만약 그가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뿐입니다. 그는 망한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생각에는 내면의 탄식과 내면의 통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만, 사람에게에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온 영혼과 생각과 마음으로,”⁸⁴ — 찬송가 작사가가 말하듯이. 하지만 나는 아바 알로니우스가 더 확고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수하고, 회개하며 — 바로 그 순간 용서를 받습니다. 만약 제게 수행자의 정신이 있다면, 서서히 제 상태를 공고히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한, 저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게론다, 연로한 사람도 영적으로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까요?

— 사람이 늙으면, 환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회개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육체적 힘이 넘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따르는 신음은, 자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절뚝거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며, 이를 깨달음으로써 회개하게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남은 몇 해의 삶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지나간 수많은 세월이 남긴 경험을 활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자비로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회개의 눈물

회개는 눈물로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사람은 새로운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함으로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통하게 울었다*”⁸⁵ 고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실수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즉, 진심 어린 회개가 사도 베드로를 씻어 주었고, 그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 땅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먼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다음 성세례 성사 안에서 하

⁸³ 이 경우 장로는 사람의 사후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타락에서 일어나 세속적 삶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역자 주.

⁸⁴ 참조: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위한 정례 기도 캐논, 제7곡.

⁸⁵ 마태복음 26, 75 및 누가복음 22, 62.

나님의 창조물인 물과 신성한 은총인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⁸⁶ 사람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 게론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취하여 그를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세례 성사에서 그분은 물을 사용하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 네, 물은 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제는 성세례 성사에서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사람은 원죄에서 씻겨나가고, 죄에서 정화되며, 하느님의 은총이 그에게 내리고,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새롭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세례의 결과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리스도께 와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⁸⁷ 성세례 성사 안에서 사람은 타락 이후 하나님의 새롭고 온전한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성세례를 더럽히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많은 신성한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성세례 성사 후에 자신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회개를 통한 세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가슴이 아파진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회개의 눈물로 씻김을 받고, 그에게 다시⁸⁸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옵니다.

— 게론다, 저는 이미 수년 동안 제 죄를 두고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자네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아프지 않은 건가?

— 아프긴 한데, 아마 그 아픔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 눈물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라. 물론 눈물은 회개의 뚜렷한 징표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다가도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웃기 시작하곤 한다. 마음의 아픔과 내면의 한숨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보다 더 높은 차원의 내면의 눈물이다. 한 불쌍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신부님, 저는 정말 무정한 사람입니다! 제게는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 버렸습니다. 아, 제 마음이 얼마나 무정한지!” 감수성이 매우 예민했던 이 불쌍한 사람은 울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매우 무정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신음했으며, 그 신음과 한숨이 마치 이 불쌍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울다가도 금세 웃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번덕스러운 봄날의 날씨와 같다. 예를 들어, 불우한 사람을 보고는 그런 사람이 가

⁸⁶ 요한복음 3, 5.

⁸⁷ 요한복음 3, 5.

⁸⁸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말할 때, 장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작용하여 회개한 죄인 안에서 그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숨이 멎을해져 조금 울다가도 곧바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남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또는 기도 중에 눈물을 조금 흘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내 기도가 눈물과 함께 드리지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라고 말하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달래곤 한다.

하지만 위로받을 수 없는 눈물도 있다. 이 눈물은 ‘탕갈라슈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눈물에는 회개가 없고, 상처받은 이기심만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사람은 자기의 타락에 대해 이기적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긁어대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두 배로 고통받는다. 내전 당시 반란군 무리의 한 두목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어느 날, 아홉 명의 자녀를 둔 한 가난한 가정이 그의 손에 잡혔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단의 우두머리는 그를 땅에 내동댕이치고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때 이 불쌍한 사람은 그의 하인이었다. “이봐, — 불쌍한 사람이 소리쳤다. — 설마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가! 나한테는 아홉 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널 어깨에 메고 다녔던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나?” 두목이 그 불쌍한 사람을 잔인하게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본 갱단 동료 중 한 명이 그에게 소리쳤다. “이봐, 그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야?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그러자 곧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악당은 동료의 지적에 자신의 이기심이 찢려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런 눈물은 이기적인 것이며, 유다의 회개와 비슷하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다에게 대답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네가 죄를 지었다고 왜 말하는 거지?” 이 말에 유다는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은전을 내던진 뒤 떠나가, 이기심 때문에 목을 매어 죽었다.⁸⁹ 하지만 만약 유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끝없는 회개의 수고

— 게론다, 기쁨을 낳는 눈물이란 무엇입니까?

— 기쁨을 낳는 눈물은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로 인해 슬퍼할 때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낳는 눈물에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으므로, 이를 ‘기쁨의 슬픔’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슬프게 했다는 사실에 슬퍼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⁸⁹ 마태복음 27장 3-5절 참조.

위로를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면에서 신성한 위로를 느끼며 영적인 기쁨에 이를 수 있습니다.

— 게론다, 수련하는 사람이 평생 회개하며 살 수 있습니까?

— 네, 올바르게 수련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보지 않고 오직 넘어짐만을 보며 끊임 없는 회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 마리의 악마와 싸웠지만, 지금은 어쩌면 온 악마의 군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정욕을 뿌리 뽑고 덕을 심으려고 더 큰 힘을 쏟을수록, 그 정욕의 뿌리 주위에는 더 많은 적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잡아당겨 아래로 끌어내리고, 수행자가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의 진전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진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넘어지면 [영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투쟁을 확대하며, 점점 더 많은 ‘탕갈라쉬’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하는 사람에게 회개는 끝없는 수공예와 같다. 누군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고, 땅에 묻은 뒤, 결국 잊어버린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 없이 울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을 품으며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삶의 변화

죄에 빠지는 것을 멈추기 위해, 사람은 그 죄를 유발하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도움을 받아 술을 끊고자 한다면, 술집 근처조차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노력과 선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욕망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그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끊기 위해 노력하며, 회개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에게 이 욕망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이 하느님께 전해지면, 하느님께서는 그를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은총이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마귀에게조차 은총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어떤 죄에 빠졌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 즉 최악된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타락을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타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

총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회개가 없고 죄를 유행처럼 여긴다면, 그의 상태는 악마적인 것입니다.

— 게론다, 그리스도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한 명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 이 강도가 울타리를 넘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강도의 회개로 낙원을 훔쳤다.*”⁹⁰ 즉, 현명한 강도는 자신의 위대한 회개를 통해 심지어 낙원까지 “훔쳐낼” 수 있었습니다.

— 게론다, 삶을 바꾼 사람이 예전의 죄 많은 습관대로 살지는 않지만, 가끔 예전의 죄 중 하나에 빠진다면, 그것은 그에게 회개가 없다는 뜻인가요?

— 아, 그가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넘어진다면, 그에게는 죄를 다소 완화시켜 줄 만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회개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회개하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의 진정한 회개가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매우 겸손하게 행동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승의 옷과 비슷한 검은 옷을 입은 이 여성은 작은 예배당에 와서 그곳을 정리하고, 촛불을 켜습니다...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엄청난 유익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예전의 죄 많은 삶을 간신히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정작 그들 안에는 여전히 낡은 사람이 살아 숨 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 회개하여 예전처럼 음행과 방탕 속에서 살던 삶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이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막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영적인 사람인 척하며 설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 어쩌면, 게론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 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는 — 특히 그들이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라면 — “이제 사람들은 카라이스카키스⁹¹와 콜로코트로니스⁹²를 잊고 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동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면, 당분간은 그 죄를 기억하며 자만심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매우 주의 깊어야

⁹⁰ 『옥토이흐』 제1음조 참조. 부활절 아침 예배의 이파코이.

⁹¹ 카라이스카키스 게오르기오스(1782–1827) – 헬라(그리스)의 민족 영웅, 1821년 그리스 혁명의 저명한 지도자. – *역자 주*.

⁹² 콜로코트로니스 테오도로스(1770–1843) – 엘라다의 민족 영웅, 1821년 그리스 혁명의 저명한 지도자. – *번역자 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미지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들은 이를 신성모독적인 생각으로 여겨 몰아내야 한다. 이러한 배제는 그들이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의 [영적] 존재가 그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혐오하며 깊은 겸손을 가져야 한다. 만약 그가 과거의 삶에서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만 조금 간직한다면, 나중에 그 “해롭지 않은” 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까지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낡은 사람에 대해 아주 사소한 자만심 하나라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순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삶을 변화시킨 사람은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에 대해 가졌던 그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 이기적으로 남의 생각을 바로잡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사람들의 생각도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과거 죄 많은 삶이 사회나 주변에 상처를 남겼다면, 그 사람이 올바르게 기독교인답게 행동할 때 그 상처는 저절로 아물게 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회개의 말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내 죄가 내 앞에 드러나도”⁹³

— 게론다, 고해성사 전에 잊지 않도록 자신의 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익한가요?

—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진정으로 아파한다면, 그 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합니다. 내 영혼이 아파하며, 나는 저지른 죄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죄를 지은 순간부터 고해성사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그 죄는 내 안에서 계속 ‘작용’하며, 내 마음을 찢어 상처를 주고 나를 책망합니다. 즉, 나는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죄가 나를 전혀 찢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죄를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들으면, 마치 그게 다 하찮은 일인 양 웃어넘기곤 합니다. 여기에는 뻔뻔함과 무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완전히 사탄적인 태도입니다. 선지자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의 죄악을 내가 고백하리니, 내 죄를 내가 돌보리라.”⁹⁴ 그리고 또: “나의 죄가 내 앞에 가시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의식 때문에 내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⁹³ 시편 50편 5절.

⁹⁴ 시편 37, 19.

반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자기 진단”에 몰두하며, 이 일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들은 마치 미묘한 영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끝없이 꼼꼼하게 자신의 죄를 기록하고, 이 죄들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며 머리를 싸매지만, 정작 고치지는 않습니다. 반면, 만약 그들이 하나씩 자신의 큰 결점을 깨닫고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작은 결점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 게론다, 사람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실까요?

— 아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찬양은 “나의 하나님, 저를 태워버리려고 번개를 내리치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찬양에는 회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회개

— 게론다, 아바 이사악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의지 없이 행해지는 모든 회개는 기쁨을 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⁹⁵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의지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 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겸손함은 없는 경우입니다. 저는 성 이삭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다는 말인가요?

—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불쾌한 결과를 피하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활함에 능숙한 사람은 회개한 척하며, 교묘하게 행동하고, 가식적인 친절로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들을 오도하려 한다. 그러나 죄인이 지옥의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고해 신부에게 찾아가는 것조차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즉,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며,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 뒤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회개와 고해성사를 권한다. 고해성사만 하는 것은 결코 권하지 않는다.

⁹⁵ 참조: 『성 이삭 시리아인의 수도자적 말씀』. 모스크바, 1993. 11쪽.

보라: 지진이 시작되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큰 동요에 휩싸여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 보인다. 반면 대다수는 잠시 정신을 차리지만,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꽤 심하게 흔들렸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 지진이 당신을 깨웠나요?” — “깨웠어요, 깨웠죠!” — 그가 대답했다. “깨우긴 했죠,”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게 될 거예요.”

회개는 사람에게 신성한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 헤론다, 신성한 위로란 무엇입니까?

— 신성한 위로는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이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값싼 물건을 망가뜨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어떤 도구를 부숴 버리고는, 자신이 입힌 피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속상해하며 울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를 끼쳤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며 더 처절하게 울면 울수록, 아버지는 아이를 더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야, 속상해하지 마. 별일 아니야. 새 도구를 사면 되니까.”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의 다정한 사랑을 보고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오히려 더 처절하게 울게 됩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마침 지금 우리에게 이 악기가 필요했는데, 내가 부러뜨리고 말았어.” “내 아이야,” 아버지가 다시 위로해 줍니다. “별일 아니야, 그 악기는 낡은 거였으니까.” 그러나 아이는 계속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속상해할수록 아버지는 아이를 더 세게 품에 안고, 입맞추며 어루만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죄악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함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받고 슬퍼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자신의 아버지—를 슬프게 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신성한 기쁨을 주시고 그의 내면을 더욱 달래 주십니다. 비록 그런 사람의 슬픔 속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위로가 있다.

그러나 신성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로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그러면 신성한 위로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어느 날 성산에서 한 가지 유혹이 일어나 일부 수도사들이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중 한 명이 우연히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 정말 당신을 뵈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를 위로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는 내가 그를 위로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 이유는 그가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정하건대, 그에게 엄한 질책을 한 사람은 옳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도사의 말을 큰 놀라움으로 들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위로를 구하다니! 만약 위로를 구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신성한 위안이 그의 내면에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는 내가 “별일 아니니 걱정

하지 마세요. 당신의 죄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당신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었으니까요.” 같은 말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자, 말해 보세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위로입니까?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입니다. 신성한 위로는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 게론다, 죄를 짓고 넘어진 후 회개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적·육체적 쇠약을 느끼는 사람은, 그 회개가 옳바르지 않다는 뜻인가요?

— 첫날에는 영적, 육체적 쇠약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는 내면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신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 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죄를 잊지 않지 않나요?

— 네, 자신의 죄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슬퍼하고 위로를 받으며, 슬퍼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저지른 죄로 인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그는 다시 스스로를 때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이 야말로 사람에게 신성한 위로를 가져다주는 회개입니다.

제4부.

어둠의 흑암의 세력

“어둠의 흑암 세력은 무력하다.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마귀에게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제1장.

주술에 대하여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종 천국과 천사들, 성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듯이,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자 지옥의 고통과 악마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아실 테니까요. 어느 날, 티베트에서 온 한 청년—주술사—가 제 칼리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갓 젖을 떼 세 살배기 아기였을 때, 그는 아버지에 의해 30명으로 구성된 티베트 주술사 집단에게 맡겨졌는데, 그들이 그에게 주술의 비밀을 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술의 11단

계까지 도달했는데, 최고 단계는 12단계였다. 열여섯 살이 되자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티베트를 떠나 스웨덴으로 향했다. 스웨덴에서 그는 우연히 한 정교회 신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 젊은 마법사는 정교회 신부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던 홀에서, 청년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다양한 마법 묘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미나라는 이름의 고위 악마 중 한 명을 불러내어 “물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유리잔 하나가 저절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수도꼭지 아래로 날아가 물이 팔팔 쏟아져 잔이 가득 찼고, 그 후 닫힌 유리문을 뚫고 그들이 앉아 있던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청년은 그 잔을 집어 들고 물을 마셨다. 그 후, 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그는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제에게 온 우주와 하늘, 별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4단계 마법을 사용했고 11단계까지 도달하고 싶어 했다. 그러고는 사제에게,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만약 그가 사탄을 모독했다면,” 젊은 마법사가 내게 말하길, “나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년은 물었다. “그럼 왜 당신도 나에게 어떤 표적이라도 보여주지 않는가?” — “나의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사제가 대답했다. 그 후 그는 작은 십자가를 꺼내 젊은 마법사의 손에 쥐어 주며 말했다. “또 다른 기적을 행해 보거라.” 청년은 미나—가장 만 악마—를 불렀지만, 미나는 자작나무 잎사귀처럼 떨어져 그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청년은 사탄 그 자체를 불렀지만, 사탄은 그의 손에 든 십자가를 보고는 마찬가지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탄은 그에게 단 한 가지만 명령했다. 서둘러 스웨덴을 떠나 다시 티베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청년은 사탄을 꾸짖기 시작했다. “이제야 알겠소. 당신의 위대한 힘은 사실 위대한 무력함이었군요.” 그 후 청년은 그 선한 사제로부터 신앙의 진리를 배웠다. 사제는 그에게 성지, 성 아폰 산, 그리고 다른 성스러운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스웨덴을 떠난 청년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 그곳에서 신성한 불을 목격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미국으로 향했는데, 이는 자신이 아는 사탄 숭배자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최고의 설교자로 만드셨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성 아폰 산으로 왔습니다.

이 불쌍한 청년은 유아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법사들이 모든 악마의 무리와 함께 그에게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이토록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 그가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 — 하물며 그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싸움을 벌이고 있겠는가! 사제들이 그에게 주문을 외우면, 이 불쌍한 청년의 팔에 있는 혈관이 터져 피가 흐릅니다. 악령들은 그 불쌍한 청년을 끔찍하게 괴롭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가 그들과 친하게 지낼 때, 그들은 그

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그를 도와주며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그 자신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리니, 그 후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끔찍하리라.*”⁹⁶

주술사들은 또한 다양한 악마적인 “성물”들을 이용합니다

— 헤론다, ‘주술사’란 누구입니까?⁹⁷

— 주술사들입니다. 그들은 점술에 다윗의 시편과 성인들의 이름 등을 사용하지만, 이를 악마를 부르는 행위와 혼합합니다. 즉, 우리가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신성한 은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시편과 성물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정반대의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한 은총에서 멀어지며, 그 후 악령들이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행하게 합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달라고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당은 그 청년에게 시편에서 무언가를 낭송했고, 청년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쌍한 청년은 촛불처럼 서서히 시들어가고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는 손바닥에 어떤 견과류와 씨앗을 쥔 채 그 청년에게 시편 50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⁹⁸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손을 꼭 쥐었다가 그 안에 쥔 견과류와 씨앗을 내던졌는데, 이는 악마들에게 제물을 바쳐 그들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시편을 이용해 그 주술사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 헤론다,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나 성화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모든 행동 뒤에 어떤 속임수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물을 이용해 불쌍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술사들이 촛불을 켜고, 성화상 앞에서 ‘기도’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 그 사기꾼들을 믿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길, 그가 사는 도시에서 어떤 터키 여성이 돌 하나 위에 성모 마리아 성화를 올려놓고는 이제 그 돌을 “사람들을 돕는 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성모 마리아께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 돌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보는 기독교인들은 이로 인해 혼란에 빠집니다. 그중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려가지만, 그 후 악마는 그들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왜냐하면 터키 여성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돌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⁹⁶ 마태복음 12, 45.

⁹⁷ 『규칙서』 참조.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101쪽. 제6차 세계 공의회 제61조.

⁹⁸ 시편 50, 19.

경멸이므로 악마가 즉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은총이 떠나고, 귀신 들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돌이 자신들을 치료해 줄 것이라 믿으며 온 힘을 다해 그 돌—탕갈라슈카와 함께 있는 그 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불구가 되어 버립니다. 도대체 악마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터키 여성은 무슬림인데, 그녀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령 그 터키 여성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 말했다고 해도, ‘무슬림인 그녀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와 무슨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그녀가 주장하듯이, 돌이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지인에게 이 일이 발생한 도시의 교구 행정부 책임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을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게론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성상함을 달라고 합니다...

— 사람들이 당신에게 성물 주머니를 달라고 하면, 차라리 십자가를 주는 편이 좋습니다. 성물 주머니는 만들지 마세요. 요즘은 주술사들도 성물 주머니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겉에는 성화나 십자가를 붙여 놓지만, 안에는 온갖 주술용 물건들을 넣어두죠. 사람들은 겉에 성화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고 헛갈려 합니다. 저에게도 며칠 전 이브라힘이라는 터키인에게서 받은 성물주머니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성물주머니 겉면에는 십자가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다양한 성화상들을 종이처럼 말아서 안에는 양털, 작은 나무 조각, 핀, 각종 구슬 및 이와 유사한 물건들을 넣는다고 한다.⁹⁹ 교회가 이 마법사를 고발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영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영매들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마음대로 모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법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고해성사를 받으세요. 당신은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는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다가 나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와 고해성사 전 상태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 “자, 들어보세요. 혹시 그 미혹당한 자가 준 어떤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나요?” —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가 대답했다. “그가 저에게 준, 겉모습이 복음서를 닮은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그 상자를 받아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개의 꼬인 작은 성화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을 풀어가 보니, 안에

⁹⁹ 제61조 제6항은 “부적 제작자”에게 6년간의 참회를 부과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교회에서 파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양한 주술적 물건(예를 들어 머리카락, 양털, 발톱, 뱀이나 박쥐의 뼈 등)을 넣어 만드는 부적이나 탈리스만을 제작하는 주술사들을 지칭한다. 주술사들은 이러한 물건들에 주술을 통해 미리 악마의 영향을 가한다.

는 구슬, 양모 조각, 나무 조각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내가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그 상자를 빼앗은 후, 그는 악마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보라, 악마가 얼마나 교묘한지!

불쌍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런 부적이나 탈리스만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술사들과 얽혀서 그들로부터 ‘축복’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마법 물건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태우고 재는 땅에 묻거나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런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악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다. 어느 날, 여러모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던 한 청년이 내 칼리바를 찾아왔다. 그는 이미 4년 넘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죄 많은 삶을 살았으며, 최근에는 집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성산에 정기적으로 오던 그의 친구 두 명이 큰 고생 끝에 그를 설득해 함께 가도록 했다. 그들은 그를 내게 데려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우라누폴리스에서 다프니¹⁰⁰ 까지 그들은 배를 타고 항해했다. 배가 성산의 여러 수도원에 정박할 때마다, 그 청년은 기진맥진한 채 배 갑판에 쓰러지곤 했다. 배에 타고 있던 그의 친구들과 수도사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바치며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애썼다. 엄청난 고생 끝에 그들은 그를 내 칼리바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 불쌍한 청년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어떤 악령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은 나는, 그에게 아폰의 한 영성 지도자를 찾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써 치유를 얻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그곳에 가서 고해성사를 받았다. 아폰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에 올랐을 때, 그 청년은 친구들에게 영성 지도자가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부적을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그걸 버릴 수가 없어!” — 불쌍한 청년이 말했다. 친구들이 아무리 일어나서 부적을 바다에 던지라고 설득해도,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자 친구들이 큰 고생을 하며 그를 두 팔로 들어 갑판 위로 데리고 나갔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청년은 그 악마 같은 부적을 몸에서 벗어 던졌다. 그는 그것을 바다에 던질 힘조차 없었다. 그저 손을 뻗을 뿐인데, 악마 같은 부적이 저절로 바다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그는 양손이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고, 지쳐 있던 몸이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생기가 넘친 청년은 기쁨에 차 증기선 위를 뛰어다녔고, 곧이어 철제 난간과 선체에 손을 대며 자신의 손 힘을 시험해 보았다.

주술을 행하는 자들은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한다

— 게론다, 주술사들은 사람이나 일어나는 사건 등에 대해 어떤 계시를 받기도 합니까?

¹⁰⁰ 다프니 – 성산(Svyatogorsk)의 중심 부두. – 역자 주.

— 때로는 악마로부터 무언가를 듣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많은 것을 지어내곤 합니다. 아콘다리크에서 봉사를 맡고 계신 분들,¹⁰¹ 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도원을 방문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법을 행하는 자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놀랍게 들리나요? 한 번은 이곳에서 열린 밤샘 기도회에 주술을 행하는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가장하며 모두를 속였습니다.¹⁰² 한 여성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저주가 걸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로 그 저주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술사들이 기도회에 와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기도회에 다니는 걸 보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사기꾼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머리를 얼마나 현혹시키는지! 그런 거짓말쟁이 중 한 명이 한 소녀를 속이려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파이시 신부님께서 우리 둘이 결혼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셨대. 그러니 이 작은 물건을 받아서 목에 걸어. 하지만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절대 보지 마!”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어떤 주술적인 부적을 건넸다. 다행히도 그 소녀는 그것을 목에 걸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파이지 신부님이 이런 ‘물건’들을 다루시는구나!” — 그녀는 격분했다. 망설임 없이 책상에 앉아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페이지나 되는 편지를 깔끔한 필체로! 그녀는 나에게 가장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욕해라, 욕해라,” 나는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별일 아니야. 나한테 네 욕은 마치 향유나 다름없어. 넌 속지 않고 악마의 목걸이를 목에 걸지 않았으니까!”

— 그녀가 당신을 알고 있었나요, 게론다?

—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도 그들을 몰랐죠. 그녀도, 그 사기꾼도요.

악마적인 주술 행위

— 게론다, 오늘 찾아와서 영혼을 불러냈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선 저는 그들에게 제대로 혼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은 기독교 신앙을 배반한 것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악마를 불러내어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진심으로 고해성사를 보며, 앞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고해신부의 축복을 받아 성체를 모시며, 정결을 지키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

¹⁰¹ 아르콘다릭 – 그리스 수도원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 – *역자 주*.

¹⁰² 아우구스티누스(칸디오티스)(1907년생) – 1967년부터 1999년까지 플로리나 대주교를 역임했다. – *역자 주*.

아이들이기 때문에 — 죄를 경감시켜 줄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놀이인 양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른이었다면, 그런 행위는 그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악마가 그들 위에 상당한 권세를 얻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악마는 이미 이 아이들 모두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 헤론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요?

—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 짓입니다... 그들은 탁자 위에 물이 담긴 유리잔을 놓고, 그 주위에 알파벳으로 원을 그립니다: 알파, 비타, 감마, 그리고 그 밖의 글자들. 그런 다음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영, 즉 악마를 부릅니다. 유리잔이 탁자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글자 앞에서 멈추고, 그렇게 해서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온 아이들이 영을 불러냈고, 그가 나타나자 “신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넌 누구야?”라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사탄!”이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있어?”라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있지!”라고 그가 대답했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다! 하나님은 없는데, 악마는 있다니!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은 계시냐고 묻자, 그는 “그래, 계시지.”라고 대답했다.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소녀가 나서서 그 유리잔을 깨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잔을 깨뜨려, 나머지 아이들도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할 때, 밀랍 인형을 사용하는 주술사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밀랍 인형은 마치 장난감과도 같으며, 주술사들의 취미와도 같습니다.

— 게론다, 그들은 인형으로 무엇을 하나요?

— 그들은 밀랍으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듭니다. 누군가 찾아와, 예를 들어 적을 실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인형의 눈에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실명시키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들은 그 밖에도 다른 악마적인 행위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죄 많은 삶을 살면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다면, 악마의 영향이 그 사람의 눈을 공격합니다. 고통 때문에 눈이 마치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듯합니다! 그 사람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만, 의사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매, 초능력자, 투시자 및 그들과 비슷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심지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지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다. “자, 보세요,” 예지자가 대답한다. “당신 친척 중 한 명, 피부가 약간 어두운 편이고 키가 평균보다 조금 큰 여자가 당신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척 중에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시작한다. 그의 친척 중 그 점술가가 묘사한 사람과 조금이라도 닮지 않은 사람

이 있을 리가 없다. “아,”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의 ‘원흉’을 찾아내며 말한다. “그러니까, 그녀가 나에게 저주를 건 거구나!”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 불쌍한 여자는 그가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 전혀 모른다. 어쩌면 그녀가 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녀를 향해 증오로 불타오르며 그녀를 보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주술사를 찾아가고, 주술사는 말한다. “자, 이제 네게 걸린 저주를 풀어줘야겠군. 그러려면 나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해야 할 거야.” —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혼란에 빠진 남자가 말한다. “그가 누가 나에게 저주를 걸었는지 찾아냈으니,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그리고 돈을 내어준다.

보라, 악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는 유혹을 만들어 낸다. 반면 선한 사람은 — 설령 실제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해도 — 결코 피해자에게 “누구누구가 너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 들어봐, —라고 말하겠지요, — 온갖 나쁜 생각을 품지 마세요.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는 양쪽 모두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이웃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 좋은 의미에서 — 깊이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 헤론다, 주술사가 병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 무당이 병자를 치료하게 하려고? 악마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무당은 “치료”할 수 있다. 바로 그 악마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 무당과 악마는 친구이자 동지이기 때문이다. 무당은 악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즉,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낼 때, 무당은 대개 악마에게 자신을 지배할 권한을 준 친척이나 지인 중 한 명에게 그 악마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속에 악마가 깃들어 있던 사람은 “나는 고통받았는데, 어떤 치유사가 나를 고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술사에게는 홍보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온 악령은 그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맴돌게 된다. 가령, 악마의 영향을 받아 한 사람이 등이 굽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무당은 그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등이 굽었던 사람은 곧게 펴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사고로 인해 등이 굽게 되었다면, 무당은 그를 치유할 수 없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다양한 신성한 [상징과 물건]을 사용하여 병자들을 “치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가 하는 일을 듣고 나는 그 허구와 악마의 술책에 경악했다. 주술사는 치료 세션 중에 십자가를 손에 들고 다양한 교회 찬송가를 부른다. 예를 들어, 그녀는 “성모 마리아여”를 부르고, “당신의 태중의 아기가 복되시도다”라는 가사에 이르렀을 때 십

자가 옆에 침을 뱉는데, 즉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기 때문에 탄갈라슈카가 그녀를 돕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악마의 영향으로 병든 일부 사람들을 — 예를 들어, 정신적 우울증[우울증]에서 — “치유”한다. 의사들은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지만, 그녀는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악마를 쫓아내므로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마를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이 주술사를 성녀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그녀는 은밀히 그들의 영혼을 해치고 파멸시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불이나 뱀을 피하듯이, 주술사나 주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일으킨 병들만을 “치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주술사와 어울리다가 직접 주술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병에 걸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 당시에는 보험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병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그 청년에게 그 지역의 수호성인인 ‘정직한 세레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직한 세레자’는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교회를 지어 준다면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청년은 그 환상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불쌍한 아버지는 “이 아이는 내 자식이잖아. 아이가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환자의 아버지는 ‘정직한 세레자’를 기리기 위해 교회를 지으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악마는 환자에게서 떠나갔고, 청년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악마는... “기적”! 치유된 후 청년의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교회를 지으겠다고 서원했는데,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할 때가 왔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유 자금이 없었기에, 성당을 짓기 위해 그들은 소유한 모든 토지를 팔았다. 청년의 아버지는 파산했고, 그의 모든 자녀들은 노숙자가 되어 버렸다. “이 정교회는 정말 썩어빠졌어!” — 그들은 분노에 차서 말하며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보라, 악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마도 그 지역에는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없었을 텐데, 악마는 그곳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잡초를 뿌릴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어떤 경우에 주술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 게론다, 어떤 경우에 주술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 주술이 효과를 발휘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내어준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마귀에게 어떤 중대한 비밀을 제공한 뒤, 회개와 고해를 통해 자신을 바로잡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고해성사를 한다면, 저주가 — 설령 삼으로 퍼서 그에게 얹

어놓는다 해도 —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술사들이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마귀와 ‘공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중년의 한 남자가 내 칼리바를 찾아왔다. 그는 뻔뻔하고 무례한 태도로 나타났다. 멀리서 그를 보자마자, 나는 그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직감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미 오랫동안 끔찍한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들은 아무 이상도 찾지 못하거든요.” — “당신 안에 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악마에게 자신을 지배할 권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악령이 당신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 “아뇨, 전 그런 짓은 전혀 안 했어요,”라고 그는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런 짓을 한 게 없다고? — 내가 말했다. — 그 여자를 속였던 일은, 잊어버린 건가? 자, 그 여자가 주술사에게 가서 너에게 저주를 걸었어. 이제 가서 속았던 그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 고해성사를 받아라. 게다가 네가 건강해지려면, 너를 위해 주술적인 기도도 읽어줘야 해. 하지만 네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모든 고해 신부들이 모여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악마는 여전히 네 몸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아내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집에서 끔찍한 소동을 일으키고, 밤중에 벌떡 일어나 온 가족을 깨우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해성사는 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악마에게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는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 호자를 찾아갔는데, 그 호자가 “행운을 빌며” 집 안을 뿌리라고 어떤 물을 주었던 것이다. 이 남자는 그 악마적인 물 뿌리기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다. 그러자 악마가 그의 집에서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주술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 헤론다, 주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그 위에 힘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 주술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와 고해를 통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술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원인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고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걸린 저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칼리바에 찾아와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제 도움을 청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닥친 악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즉,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저주가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통이 멈추기 위해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 계론다, 만약 저주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더 이상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거나 신부와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 그의 가족들은 사제를 집으로 초대하여, 그 불쌍한 사람에게 병자 성사를 집전하거나 성수 기도식을 거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수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이 조금이라도 물러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자녀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상태에 있던 한 여성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고, 그 덕분에 아이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아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신부님,”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고해성사를 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집으로 오셔서 성수 축복 기도를 집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아들에게 그 성수를 마시게 하세요. “하지만 아이가 그 물을 마실까요?” “마실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내가 말했다. “먼저 성수 축복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가 신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고해성사를 받으면 악마를 멀리 떨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여자는 내 말을 따랐고 그녀의 아들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해성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행한 여성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남편은 주술사들과 얽혀서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조차 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그녀는 남편의 재킷 옷깃에 작은 십자가를 꿰매어 넣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다리를 건너 강 건너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리에 올라서자, 그는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나스타시! 아나스타시! 네 재킷을 벗어 봐, 그래야 우리도 너와 함께 다리를 건널 수 있으니까.” 다행히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는 대답했다. “벗을 생각이나 하겠어? 몹시 춥잖아!” — “벗어, — 같은 목소리가 그를 설득했다. — 벗어, 그래야 우리가 다리를 건널 수 있어.” 젠장, 악마야! 악마는 그 남자를 다리에서 강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싶었지만, 그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악마는 그 불쌍한 남자를 다리 가장자리로만 밀어낼 수 있었다. 가족들은 밤새도록 그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다리 위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추위가 아니었다면 그는 재킷을 벗었을 것이고, 그러면 악마는 그를 강으로 밀어 떨어뜨렸을 것이다. 이 남자를 구한 것은 그의 옷에 수

놓아진 십자가였다. 그의 불쌍한 아내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다. 만약 그녀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의 옷에 십자가를 수놓았을 수 있겠는가?

주술사들과 악마들의 공모

— 게론다,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 어떤 주술사라도 도울 수 없는 것입니까?

— 도대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하물며 마귀와 손잡은 마법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그는 여전히 마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술사에게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드린다면 — 그때 악령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주술사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술사—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사기꾼—이 그를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소박한 사람이라, 자신을 찾아온 자가 주술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지. 환자가 예수 기도를 외우자, 악령들이 주술사를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주술사는 자신을 “치유”하러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의 집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헤론다, 그 병자는 악마를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까?

— 그는 악마를 본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술사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바닥을 굴러다니고, 쓰러지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두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 주술사들의 삶이 달콤하고, 악마들이 그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마들에게는 마법사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 무당들은 악마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도록 계약을 맺고, 몇 년 동안 악마들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악마들은 무당들에게 “도대체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무당들이 악마들이 내리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후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칼리바 마당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티베트 출신의 그 젊은 무당과 이야기를 나누던 적이 있었죠.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나 내 양손을 움켜쥐고 등 뒤

로 꺾어버렸다. “지금 당장 하지펜디¹⁰³ 가 와서 널 풀어주게 해 봐!”라고 그는 도발적으로 내게 말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 내가 화를 터뜨렸다. — 당장 여기서 꺼져!” 나는 신을 모독하는 자를 밀쳐냈고, 그는 땅에 쓰러졌다. 도대체, 그가 성인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발로 차려 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발이 내 입술 바로 앞에서 멈춰 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나는 그를 마당에서 있게 둔 채 내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보니 그가 온몸에 가시와 나뭇가지가 얹힌 채, 내 칼리바 근처에 있는 잡초로 뒤덮인 골짜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탄이 나를 벌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내가 너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탄이 나를 이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어둠의 흑암 세력은 무력하다.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마귀에게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제2장.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하여

— 헤론다,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몇 마리나 있었나요?¹⁰⁴

— “*악령들이 많더라*,”¹⁰⁵ —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린 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¹⁰⁶ 그리고 보십시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안에 많은 악령이 깃들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모든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는 데, 하물며 성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신비입니다! 한때 제가 ‘성스러운 십자가’ 칼리바에 살던 시절, 한 방문객이 찾아와 철제 노크봉으로 작은 문 근처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제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뒤를 온갖 악마들이 대열을 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온통 검은 악마 떼였습니다! 저는 그토록 많은 불결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생애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초능력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기도문 사이에 악마를 부르는 주

¹⁰³ 즉, 성 아르세니오스 카파도키아스.

¹⁰⁴ 참조: 루카 8, 26 이하.

¹⁰⁵ 루카 8, 30.

¹⁰⁶ 루카 8, 30; 군단(교회 슬라브어: *레게온*) – 3천에서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부대.

문을 끼워 넣고, 기독교 서적을 오컬트 문헌과 뒤섞었으며, 그 모든 일 끝에 악마들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를 보고 저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정신 질환자로 간주한다. 반면 어떤 사제들은 정신 질환자들을 귀신 들린 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자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¹⁰⁷

— 게론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왜 더러운 영이 자신에게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네, 그는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성이 손상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후자의 경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일 뿐, 즉 이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그와 쉽게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남부 그리스에서 온 한 방문객이 내 칼리바를 찾아왔다. 그는 그곳의 온갖 힌두 교도들과 어울렸고, 그 결과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는 추악한 욕설을 내뿔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 불쌍한 사람의 눈은 광기 어린 상태였고, 눈알이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듯했다.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악마들을 불러들이게 된다.” 라고 내가 그를 훈계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제발 도와줘,” 그가 애원했다. “오직 너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들어봐,”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란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해 주길 바라면서, 정작 네가 직접 그 더러운 영들을 불러내고 있잖아!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너를 위해 축사 기도를 받게 한 다음, 다시 내게 오면 그때 이야기 하자.” — “안 갈 거야,” — 그가 대답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적어도 교회에는 가자. 내가 램프의 기름으로 너에게 기름 부어 주겠다.” — 내가 그에게 제안했다. “싫어.” — 그가 대답했다. “네가 나를 도와주길 원해.” 그러고는 그는 쪽으로 물러나 내 마당에 있던 방문객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한 무리의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 말을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채 소리쳤다. “이봐, 네가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수고하신다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한 분 아버지, 땅에 한 분 아버

¹⁰⁷ 장로는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정신과 의사의 치료와 고해 신부의 영적 도움이 필요한 반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성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은 자신이 귀신 들린 상태가 된 원인인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며 고해성사를 통해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가 계시다! 게다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군주가 있다!” — “악마 같은 소리를 그만둬!” — 내가 그에게 대답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 — 그가 말했다, — 지금 네가 나를 헛갈리게 했어!” — 그가 말했다. “어서 가버려!” — 내가 그에게 명령하자, 그는 옆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럼 너는 누구 편이야?” — “그리스도 편입니다,” — 내가 말했다. “거짓말이야, — 그가 말했다, — 넌 그리스도 편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나인데, 넌 나를 때리고 있으니까.” 악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 헤론다, 이 모든 말을 악마가 직접 한 건가요?

— 네, 악마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성산에 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의 반대편 끝에서 아픈 산까지 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순종했다면, 도움을 받았을 텐데.

악마적인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귀신에 들릴 수 있다

교만이 많은 사람은 정신이 흐려진 사람이다. 그의 머리는 마치 배기가스로 자욱한 것처럼 흐릿하다. 그는 중대한 죄를 짓고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한다. 마귀는 악의적이지 않으니까, 아니...” —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반문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귀가 완전히 자유롭게 활개 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는 우리 모두를 찢어발겼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악마에게서 선한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인가? 네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은 정신이 그렇게 흐려져서, 네가 그를 돕고자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네가 “그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과연 [그를 그런 생각에서 해방시키려는 시도]가 압박일까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으며, [악마가 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서서히 사탄 숭배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 숭배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악마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심지어 그들의 외모에도 악마적인 무언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탄적인 음악을 통해 불쌍한 아이들까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도와달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록 음악 CD를 거꾸로 재생하면 사탄을 부르는 노래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¹⁰⁸ 심지어 “사탄을 찬양”하는 지경에 이르러, “사탄이여, 나는 너에게 내 자신을 바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 게론다, 그러니까 교만이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정당화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지적을 하면,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믿으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성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새로 시성된 성자들을, 그다음에는 옛 성자들을.... “이 성인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고,”라고 그런 사람은 말하며, “저 성인은 이런저런 결점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런 사람은 비난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며 우리 교회의 공의회들까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의회들에서,”라고 그는 말하며, “온갖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 그의 견해로는, 우리 교회의 공의회들조차도 틀렸던 셈이다. 결국 그런 사람은 “그럼 도대체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인가?”라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른다. 자, 사람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미친 것은 아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가 된다.

한 번은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칼리바에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내게 왔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성 아폰 산에 살지 않는 한 영성 지도자를 찾아다녔는데, 그 영성 지도자는 악마가 자신에게 덤벼들까 봐 두려워하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했다. “자, 그럼 나를 축복해 주시오!”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뭐, 이 얘기는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버지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 보시게. 파이시 신부님도 내가 신이라는 데 동의하실 거야.” 그렇게 그는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걸고, 내가 그를 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다. 하지만 내가 묵주를 짚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 뼈격거리는 묵주로 뭘 하는 거야? — 그가 외쳤다. — “나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질렀다!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다 저질렀다... 내 안에 악마가 깃들어 있다. 나는 신이 되었다. 네가 내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너, 이 멍청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넌 그저 끊임없이 이 주술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을 뿐이야!” 그가 어떤 추악한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자, 어서 여기서 나가, 저주받은 자야!” — 내가 그에게 소리쳤다. 나는 그를 한바탕 혼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려 짐승처럼 변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아버지에게 내팽개쳤다. “받아, — 그가 말하길, — 네 상금이나 가져가, 난 졌다.”

¹⁰⁸ 장로는 일부 음반에 담겨 있어 청취자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스의 록 음악 연구가 E. 다디의 저서 『록 음악』에는 서양 및 그리스의 유명 록·팝 음악가들의 노래와 음반 16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잠재의식 수준에서 인식되는 사탄 숭배, 마약 복용, 방탕한 행위 등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참조: 엘. 다디. 『록 음악』. 테살로니키, 1993. — 역자 주.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성물에도 반응한다

— 게론다, 사람이 귀신 들린 건지 정신 질환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이는 경건한 마음만 있는 평범한 의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악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성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흥분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악마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수를 조금 마시게 하거나 성유로 십자가를 긋고자 하면, 그들은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안에 있는 악마들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성물에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불안해하며, 심지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들에게 단순히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성산 수도원에서 열리는 밤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온 순례자 중 한 명이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의 좌석에 앉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조각이 박혀 있는 제 십자가로 그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몸을 떨더니 벌떡 일어나 성당 구석으로 도망쳤다. 밤샘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나는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악령에 사로잡혔음을 깨달았다.

가끔은 내 칼리바로 아이들을 데려와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곤 한다. 때로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아의 유물을 조금 가져와 손바닥에 짚 쥐곤 한다. 여러분도 직접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두 손은 짚 쥐고 있지만, 만약 아이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이는 성유물의 조각이 숨겨진 그 손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쳐다봅니다. 반면, 아이에게 악령에 사로잡힌 증상이 전혀 없고, 단지 예를 들어 뇌 질환 같은 것을 앓고 있을 뿐이라면, 아이는 성유물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성유물의 일부를 미리 담가 둔 물을 아이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악령이 깃들어 있다면, 그들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도망칩니다. 어느 날, 악령에 사로잡힌 한 어린아이가 제게 데려왔습니다. 먼저 아이의 갈증을 자극하기 위해 과자를 넉넉히 먹인 다음, 성유물에서 나온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야나키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맛있는 물을 마시게 해 줄게.” 그 물을 조금 마시자마자 아이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나를 태워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나를 타게 해!” — 불쌍한 아이가 소리쳤다. “그 물은 너를 타게 하는 게 아니야, — 내가 말했다. — 그 물은 다른 누군가를 타게 하는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에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아이는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광란의 발작에 빠졌다. 아이 안에 깃들어 있던 악마가 아이의 몸을 뒤틀어 놓았다.

수년 전 이곳 수도원에 찾아왔던 그 학생을 기억하시나요? “제 안에 악마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죠, “그 악마가 저를 무척 괴롭힙니다. 저는 그 악마 때문에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악마가 저로 하여금 온갖 추잡한 말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악마가 내면을 꽉 조이고, 여기저기를 꽉 움켜쥐는 게 느껴 집니다.”라고 말하며, 그 불쌍한 청년은 자신의 배와 가슴, 갈비뼈, 팔을 가리켰습니다. 그 불쌍한 청년은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상처 입히지 않고 위로하기 위해, 나는 말했다. “자, 들어봐. 너에게는 악마 따위가 전혀 없어. 네게 일어나는 일은 외부에서 오는 악마의 영향일 뿐이야.” 우리가 함께 성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곳에 있던 수녀님들께 이 불쌍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제단으로 들어가 성 아르세니우스의 유물을 조금 취한 뒤, 제단에서 나와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 다시 물었다. “자, 악마가 네 몸을 어디에서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니? 네 생각에는 악마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그는 자신의 옆구리를 가리켰다. “어디? 여기?”라고 내가 물으며 성유물로 그를 건드렸다. 아이고, 그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너 날 데었어, 날 데었어! 난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온갖 추악한 말을 내뱉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피조물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소서.” 기도하며 나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성유로 성호를 그어 주었다. 이 일은 약 2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자 악령이 그를 흔들기 시작하더니 땅에 쓰러뜨렸고, 그 불쌍한 사람은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다. 먼지로 뒤덮인 그의 정장은 마치 걸레처럼 변해 있었다.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온몸을 떨며 격렬하고 경련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서 있기 위해 그는 성화상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처럼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악령이 그에게서 빠져나갔고, 그 불쌍한 사람은 진정되었다. 그는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현재 살아 있고 건강하며 기분도 아주 좋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 게론다,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할 때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 게론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발작 중에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불쌍한 이들이 자기들이 광란의 발작 중에 한 말을 기억하게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겸손해지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요청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스스로 — 한 인간으로서 — 그 필요를 느끼고 요청하는 것인지

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카잔차키스의 책¹⁰⁹을 많이 읽었고, 그 책들에 담긴 신성모독적인 내용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녀에게 귀신 들린 발작이 일어나며 끔찍한 목소리로 “나 불타고 있어, 나 불타고 있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붙잡아 내가 그녀에게 십자가를 굿도록 했다. 그러자 그녀는 “물, 물!”이라고 외쳤다. “물을 가져다 주세요.”라고 나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부탁했다. “안 돼, 안 돼!”라고 그들은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마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말했다. “이 불쌍한 여자가 물을 마시고 싶어 해요. 물을 가져오세요.” 나는 그녀가 느끼는 타는 듯한 통증이 언제 악마 때문인지, 언제 갈증 때문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 그 불쌍한 여인은 물 두 잔을 마셨다. “제 몸속에는,” 그녀가 나중에 말하길, “마치 타오르는 숯처럼, 그런 타는 듯한 열기를 느낍니다. 설령 물 한 통을 다 마셨다 해도, 제 안에서 느꼈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녀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것이다!

— 게론다, 만약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친다면, 어떤 경우에는 악마가 그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가 사람으로서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악마가 말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은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으로서 말할 때는 입술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귀 기도를 바칠 때 그가 비명을 지른다면, 이는 그 사람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며, 예를 들어 악마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라, 왜 가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악마가 그 사람을, 혹은 그를 꾸짖는 사제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악마가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자들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마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그를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이 읽은 영적 서적의 내용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소리쳐 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매우 주의하십시오. 그의 말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가 “너가 나를 태우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를 태우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내가 그를 태우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망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마를 태우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두 번 망한 것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자가 “아, 이 더러운 여자들아!”라고 소리치다가, 어떤 수녀 한 명에게 “하지

¹⁰⁹ 카잔차키스 니코스(1885-1957) — 유명한 그리스의 신성모독자이자 반기독교 작가로, 가장 신성모독적인 소설 『마지막 유혹』(M. 스코세이지의 영화로 많은 이에게 알려진)을 비롯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 신앙의 성지를 모독하는 다른 책들의 저자이다. — *번역자 주*.

만 너는 순수하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수녀가 악마가 한 말을 믿는다면, 그 순간 그녀는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니 악마와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수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데려와졌다. 수도원장은 형제들을 교회에 모아, 그들이 묵주를 짚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했다. 이 수도원에는 람프사키아의 주교인 성 파르테니우스의 머리가 모셔져 있었다.¹¹⁰ 하나님의 은총이 귀신을 크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수도사들은 묵주를 짚으며 귀신 들린 이를 위해 기도했고, 동시에 원장님은 한 수도원의 사제 수도사에게 귀신 들린 이에게 주문을 외우도록 지시했다. 이 사제 수도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숨겨진 교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규칙에 정해진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는 교양이 풍부하여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다른 수도사들이 그가 무언가 잘못하는 것을 보아도, 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감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수도원 내에서 가장 덕이 높은 수도자로 여기며,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생각들을 키웠다. 그날 마귀는 이 수도사에게 해를 끼칠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는 불쌍한 수도사가 마치 자신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교활함을 동원했다. 그래서 그가 귀신 들린 자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귀신이 소리쳤다. “내가 타 죽는다! “너 이 무자비한 자여, 나를 어디로 몰아넣는 것이냐?”” 그 수도사는 악마가 타는 것은 바로 자신이 기도를 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나, 사실은 다른 형제들의 기도가 악마를 쫓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불쌍한 그 수도사는 악마에게 대답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네, 성 파르테니우스의 행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은 실제로 그가 악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인이셨잖아요! 실제로, 한 번은 성 파르테니우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내고 있었는데, 악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타들어 간다, 타들어 간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성 파르테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들어오라.” 그러자 악령이 성자에게 대답했다. “파르테니오여, 네 이름만으로도 나는 타버린다!” — 하고는 자신이 괴롭히던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수도사는 마치 성 파르테니오인 양 행세하려다 스스로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 순간부터 악령은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후 수년 동안 그 불쌍한 사람은 고통받으며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한곳에 머물지 않았다. 때로는 세상 곳곳을, 때로는 성 아폰 산을 헤매었다. 그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 그가 처한 상태는 그를 정신적 고갈과 육체적 쇠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는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떨렸습니다. 보세요, 한때 그는 훌륭한 사제였으나, 그런 상태

¹¹⁰ 성 파르테니오스 람프사키오스의 기념일은 2월 7일이다.

에 처해서는 더 이상 신성한 전례를 집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¹¹¹ 보시다시피, 악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 게론다, 커피 섭취와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사람의 신경계가 흥분된 상태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신경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탄갈라슈카가 그 상태를 이용합니다. 커피에 악마적인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갈라슈카가 카페인이 신경에 미치는 작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돕는 일

— 게론다, 어딘가에 악마가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에 깃들지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기도로 악마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 네, 악마는 한동안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머물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 안에 숨어 물보다 조용히, 풀보다 낮게 엎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기도로 그와 싸우면 그는 괴로워하고 분노하여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악마를 대적하는 중포와도 같습니다. 어느 날 제 칼리바에 한 귀신 들린 청년이 데려왔는데, 그는 끊임 없이 예수님의 기도를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청년의 아버지는 수도사였지만, 수도복을 벗고 세속으로 돌아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는 귀신 들린 채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 수도사들이 세속으로 돌아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수도사들의 본보기를 눈앞에 두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악령이 그 청년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는 닭처럼 매우 큰 소리로 꺽꺽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라고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나가라.*” — “나도 떠나고 싶단 말이야!” 악령이 소리쳤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는 쉬지 않고 기도만 읊조리고 있잖아! 아, 정말 파키스탄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헤론다, 그 청년이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도 왜 악령이 그에게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 아마도 그 소년 스스로 악마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권리를 허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마에게도 상관이 있으니, 그는 그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 게론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¹¹¹ 참조: *스타레츠 파이시*, 『성산 수도사들과 성산의 역사』,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2001. 101쪽.

—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하느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불쌍한 사람의 처지가 되었던라면, 제 안에는 다섯, 여섯 마리의 악마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악마가 깃들어 있었을 테니까요. 부디, 이토록 심하게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도와주소서.” 즉, 먼저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 다음, 예수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때로는 귀신 들린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오히려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교만한 생각을 품는다면, 예를 들어 “자, 이제 내 기도로 악령이 쫓겨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하게 되고, 우리는 마귀가 그 불쌍한 사람 안에 머물도록 돕는 꼴이 됩니다.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언제나 겸손과 아픔,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제 영혼이 무척 아팠던 한 귀신 들린 여성이 기억납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죄에 굴복하여 악마에게 “예”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 이미 수년 동안 더러운 영이 그녀를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영은 그녀의 육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여러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열여섯 살 난 딸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가족은 밤마다 성당에서 지내며 밤샘 기도를 드린다. 만약 이 불쌍한 여자가 남자였다면, 나는 그녀를 내 품에 꼭 껴안았을 것이다. 신성한 사랑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힘껏 껴안으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몹시 괴로워한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극하지도, 반박하지도 않고 그저 그를 위해 아파해 준다면, 귀신은 잠시나마 떠나게 된다. 겸손은 악마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격이다. 어느 수도원에서 예배가 끝난 후, 순례자들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성유물을 가져다 놓았다. 갑자기 몸에 더러운 영이 깃든 순례자 중 한 명이 수도원장에게 달려가며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뭐, 억지로 이 유해에 절하게 하려는 건가?” 수도원장은 겸손과 자비로 대답했다. “아니요, 억지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요.” 그러자 “그럼 난 억지로 할 거야!”라고 외치며, 귀신 들린 자가 성유해 쪽으로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보시다시피, 수도원장의 겸손과 자비로움이 악마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악마들은 겸손과 자비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헤론다, 불행한 이들이 성인들의 기념일에 성인들의 이름을 딴 성당에 가서 엄숙한 예배에 참석할 때, 성인들의 은총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보 축일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당 안에서는 소란이 일어납니다. 다른

날에 와서 성인의 유해나 성화에 경배하게 하십시오. 설령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이 주보 축일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은총을 받은] 사람이 참석할 것임을 안다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귀신 들린 발작을 겪고 있는 사람 주위에 모여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한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가 제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완두콩 인형이 되어 버렸어요.” 그 아이가 귀신 들린 발작을 겪고 있을 때, 주위에는 까마귀 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일은 제 칼리바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 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서커스 공연이라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결점이 있고, 그 결점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게론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신성한 성찬식이 도움이 됩니까?

—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잦은 성체 영성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때까지 불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순교자에 속하므로, 그들에게는 자주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며, 치유받기 위해 고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아, [그 사람이 상응하는 참회를 마친 후에] 영성체를 해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고해성사도 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사를 영성체한다면, 더러운 영이 그를 더욱 강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한 귀신 들린 자를 성찬잔 앞으로 데려가 영성체를 시키려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물을 뱉어 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인간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실 정도로 낮추셨는데, 이 불쌍한 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을 뱉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보십시오: 마귀는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헤론다, 프로스코미디아 때 기도를 올리기 위해 귀신 들린 자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 네, 물론입니다. 사제들이 프로스코미디아 중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귀신 들린 이들의 이름을 기릴 때, 그 불쌍한 이들은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 게론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정기적으로 성체를 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 악령이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람이 악령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신다면, 악령이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올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악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물러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동시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수록, 악은 더 빨리 물러납니다. 사람이 악령의 영향에서 얼마나 빨리 해방될지는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이는 언제 건강해질까요?” — “당신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견고하게 만들 때, — 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 그때 당신의 자녀도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아이는 처음에는 영적인 삶을 살았으나, 아버지는 이를 반대하며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유흥업소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죄에 휩쓸려 더러운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 후, 그 안에 있던 악령이 그를 지배하자, 그 불쌍한 아이는 더러운 의도를 품고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친아들의 침해를 피하기 위해, 불쌍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섬 중 한 곳으로 떠나야만 했다.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는 회개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아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수도원과 성지를 방문하고, 모든 성인의 행적을 읽고 깊이 체득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안정시킨 후에야 비로소 아들은 치유되었다.

정책에 대하여

— 게론다, 오늘 우리 수도원에 귀신 들린 여성이 데려와졌고, 사제를 불러 그녀에게 주술 기도를 읽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 그런 경우에는 그녀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여인의 고해신부가 그녀에게 퇴마 기도를 읽어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부모가 중대한 죄를 지어, 그로 인해 악마에게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한 지배권을 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악마를 뒤따르게 하기 마련이니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면 죄는 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악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이유로 이 불쌍한 여인이 귀신 들림에 빠지도록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 게론다, 귀신 들린 이들에게 축복 기도가 도움이 됩니까?

—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마다 다릅니다. 축사 기도는 악마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내주지 않았고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에게 읽어줄 때 도움이 됩니다. 또는 정신을 잃어 고해성사를 할 수 없는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

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가 자신의 죄, 즉 귀신에 들리게 된 원인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야 — 필요하다면 — 그에게 축출 기도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악령은 고해성사 성사 안에서 해방 기도가 읽힌 후에야 빙의된 사람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제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축사 기도를 읽어주곤 합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축사 기도를 받으러 데려오였던 일이 기억납니다! 바로 오늘도 한 노인을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더군요. 이 불쌍한 사람의 왼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나요?”라고 제가 묻자, “어릴 때부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다 그 불쌍한 분의 머리 왼쪽에 작은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국은 출생 시 외상으로 생긴 것이었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네 안에 더러운 영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고, 그에게 축귀 기도를 외우며 “나아가라, 더러운 영아...”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결국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조롱거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렸다’고 여겨지는 아이들 중 실제로는 몸속에 귀신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돌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제게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성수를 마시게 했으나, 그 불쌍한 청년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 제가 그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 언제부터 이 병을 앓기 시작했나요?” — “여섯 살 때부터요, — 그가 대답했습니다. — 저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살해당한 할아버지의 시신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그 직후부터 그 아이에게 온갖 기이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그 불쌍한 아이는 단순히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어른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겪은 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불쌍한 아이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게론다, 축귀 기도는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읽어도 됩니까?

—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축출 기도를 바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부심이 아니라 고통과 겸손한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더러운 영에게 “명령”할 때: “나아가라, 더러운 영아,”라고 명령하면, 이는 마귀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분노하여 귀신 들린 자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심지어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봐, 저 사람이 온 세상 앞에서 너를 우스꽝스러운 꼴로 만들었잖아! 자, 이 신부 목덜미를 한 대 때려 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은 사제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 결과 도망가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제와 그의 예식서입니다... 어느 날

한 사제가 축사 중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더러운 영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 “그래, 맞아. — 악마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빌려 대답했다. — 네가 나에게 명령하니까 내가 나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 나는 사제들에게 주술 기도를 읽을 때, 절대로 “나아가라, 더러운 영아!...”라는 말을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언한다. 마치 악마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의 친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제를 집으로 초대해 퇴마 기도를 읽어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신부님이 기도회를 집전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퇴마 기도는 —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귀신 들린 이들의 순교자 같은 삶

무슨 말을 하든, 자신 안에 악마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고통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지지만, 동시에 악마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에서 불결한 영에 사로잡힌 스물세 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이었죠! 무서운 추위가 몰아쳤고, 성당 안에는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짧은 소매의 얇은 셔츠만 입은 그 청년은 성당 현관에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가가 따뜻한 모직 스웨터를 건네주었다. “이 스웨터를 입어라.”라고 내가 말했다. “정말 춥지 않니?” “춥다니요, 신부님,” 그가 대답했다. “전 온몸이 불타오르네요!” 보시다시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이다.

타고난 예민함을 지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령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속삭이며 자살로 몰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건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사제들조차 지겨워할 정도로 골칫거리였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 불쌍한 사람은 자신에게 축귀 기도를 해 달라고 성당에 왔지만, 사제들은 그를 쫓아내곤 했다. 그러자 악마가 그에게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한테도 가지 마, 그도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악마는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우스의 은총으로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된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후 악마가 그에게 어떤 유혹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된 그는 어느 날 성 아르세니우스 존자의 성유해를 참배하기 위해 이곳 수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¹¹² 그때 수도원 아래쪽 문 근처에서 악마가 성 아르세니우스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다시는 네 발이 이곳에 닿

¹¹² 성 아폰 산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 수도원에서는 주중 금식일(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수도원 문을 하루 종일 열지 않는데, 이는 수도사들이 이 날들 동안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영적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외 요일에는 순례자들이 수도원을 방문하여 성지를 참배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수도원 문이 열립니다. — 역자 주.

지 않게 하라. 나도, 파이시우스도 너를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악마는 그를 쫓아냈다. 이해가 되나? 그 후 그 불쌍한 사람은 성 아르세니우스를 모독하기 시작했고, 나를 욕하기 시작했지... 뭐, 나를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인을 모독하다니!.. 결국 그 불쌍한 사람은 다시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 여기서 사람이 단순히 뻔뻔하게 행동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서 떠나간다. 하물며 성인을 모독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 후 그는 성 아폰 산에도 와서, 내 칼리바에 찾아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왜 너도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 거야? 뭐, 내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거야?” — “어리석은 자여,” 내가 그를 타일렀습니다. — “너에게 나타나서 쫓아낸 자는 마귀였어. 성인이 아니었어. 성인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아.”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 믿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매일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지 아느냐?

하지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고통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며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귀신 들리는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스스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면, 더 이상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공격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받음, 즉 악마의 영향에 노출되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죄인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3장. 무서운 미혹

수행과 미혹

— 게론다, 저는 유혹이 두렵습니다.

— 잘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주의 깊게 [스승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받습니다.

— 게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유혹에 대한 소인이란 무엇입니까?

—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영적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신을 억지로 고행에 몰아넣으며, 어떤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이 바로 미혹의 시작이다. 강요하는 것과 고행 속에서 자신을 억지로 몰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느 날 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적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 “내가 미혹에 빠진다고? — 그가 분개하며 말했다. — 난 고기조차 먹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고해성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성상에 “고백”하고 있었다. “너는 정교회 신자인가, 아니면 개신교 신자인가? — 내가 그에게 물었다. — 어떤 책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읽었느냐?” — “뭐가 문제냐? — 그가 나에게 되물었다. —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는가!

— 게론다, 육체적 수련이 정욕과의 싸움에 도움이 됩니까?

— 육체적 수행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 사용된다면 도움이 됩니다. 몸이 겸손해지고, 육신이 영에 복종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건조한’ 수행, 즉¹¹³에 몰두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에게 환상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수행은 마음의 정욕을 키우고, 교만을 키우며, 자만심을 부추겨 미혹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형식적인’ 수행을 바라보며 영적 성취를 이뤘다고 결론 짓게 된다. “나는 이런저런 육체적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런데 저 형제는 이 점에서 부족하다. 나는 이미 어떤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또 다른 성인은 이미 능가했다...” — 그리하여 그는 금식과 기도를 더욱 늘려 나간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모든 수행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욕을 끊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만심 때문에 육체적 고행을 하던 한 수도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위대한 고행자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극한에 이르러, 밥도 먹지 않고 옷도 전혀 빨지 않

¹¹³ “건조한” 수행이란, 성인은 마음의 정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행과 금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은 채 끔찍한 악취와 오물 속에 누워 있었다. 오물 때문에 그의 옷은 완전히 썩어 버렸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옷을 가져와 빨아 주려고 했다. 하지만 빨아 볼 게 뭐가 있었겠는가!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성 요한 쿠슈니크¹¹⁴ 는 이미 내가 앞질렀다.” —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내가 말했다. “네 생각에 성 요한 쿠슈니크가 오물을 통해 성스러움에 도달했다는 말이냐?” 며칠이 더 지나자, 그가 다시 내게 와서 선언했다. “성 막심 카브소칼리비트¹¹⁵ 도 이미 내 뒤로 남겨뒀다.” —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를 뒤로 남겨뒀다는 거야?” — 내가 물었다. “뭐, — 그가 대답했다. — 아주 간단해. 성 아폰 산에서 팡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 “이봐, — 내가 말했다, — 참 대단하군! 성자 막심은 무형의 경지에 이르러 날아 다녔지, 너처럼 팡이처럼 빙글빙글 돌지는 않았어!” 그 후 이 사람은 자신 안에서 ‘죽을 운명의 기억’을 ‘가꾸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입했다. “지금 나는 지옥에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는 — 마치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인 양 —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악마가 되었고, 사탄이 되었으니, 내 추종자들을 모으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미혹에 빠지고 말았다.

상상에 대한 주의

— 게론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장면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장면들을 피해야 합니까?

— 마귀가 환상이나 상상력을 이용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상은 좋은 것이며, 현명하게 사용된다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풍경을 본 사람들이 1년 후에도 그 풍경을 실제 모습 그대로 정확히 기억해 내고,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마귀는 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보거나 읽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 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상力で 그려낸 그림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영적인]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그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 뒤에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던 한 소박한 여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리스도께 이 세상, 즉 현생에서 그분을 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왜냐하면 — 그녀가 말하길 — 내세에서는 어차피 그분을 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성체를 영하려고 다가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피 묻

¹¹⁴ 성 요한 쿠슈치크의 기념일은 1월 15일이다.

¹¹⁵ 성 막시모 카브소칼리비토의 기념일은 1월 13일이다.

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 모습으로 성배 안에 그녀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환상은 사라졌고, 그 여인은 성체를 영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원수는 그녀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이어서 그녀의 상상력을 부추기며 끊임없이 그녀에게 자신의 ‘영화 상영회’를 펼쳐 보였다. 어느 날, 성 아폰 산을 떠나 세상으로 나왔을 때, 나는 한 집에서 이 불쌍한 여인을 마주쳤고, 그녀가 그곳에 모인 남녀들에게 자신의 환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를 제정신으로 되돌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그녀의 황당한 상태가 드러나고 그녀가 겸손해지도록, 모두의 눈앞에서 그녀를 심하게 꾸짖었다.

— 게론다, 그 환시들은 그녀의 망상이었습니까?

— 공상과 망상입니다.

— 헤론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이 환상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이용해 그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그런 ‘환상’에 대해 영적 지도자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악마는 참으로 교묘한 자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혹자는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사건조차 이용해 그를 미혹에 빠뜨릴 수 있다. 내가 스토미온 수도원에 살 때, 겨울에 저녁 기도를 드리며 난로를 피우곤 했다. 가끔 도시에서 수도원으로 찾아오던 여성들이, 저녁 기도 시간 동안 성상벽에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상에서 어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이나 해 보세요! 수도사가 저녁 기도를 드릴 때, 성모 마리아 성화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나는 생각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 성화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제가 신성한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성모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모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서서 성화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화가 그려진 판자는 낡은 것이어서 뒷면에 나무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난로가 제대로 달아오르자, 나무 못 하나가 달아올라 팽창하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성화에 못을 박아 넣었고, 소리는 멈췄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 “아니요,” —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

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상력이 서서히 자라나면, 그 사람의 온 삶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마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그건 눈에 보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마귀는 사람에게 교만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마귀의 환상은 서툰 솜씨로 이루어져 있어, 심지어 신성모독에까지 이릅니다. 한 번은 미혹에 빠져 있고 더러운 영을 품고 있던 사람이 제 칼리바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 그가 말하길, —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그는 마치 제게 “당신이 한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악마가 당신에게 교만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든 간에,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설령 귀신 들린 자에게서 수천 마리의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최고의 천국적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즉 영적 체험[신의 임재]이 없는 사람이 부주의하다면, 그는 쉽게 미혹에 빠질 수 있다. 마귀는 교활하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살짝 자극하여 기분 좋은 무언가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여 그 기분 좋은 것이 영적이고 신성한 것이라고 사람에게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마귀는 그를 미혹에 빠뜨린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영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은 말합니다. 네, 당신은 정말로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느낀 것은 진정한 영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악마는 천사의 모습이나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사나 성자로 위장한 악마는 자신의 내면에 품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주위에 퍼뜨립니다. 반면 진정한 천사나 성자는 언제나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퍼뜨립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은 비록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와 빛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를 구별해 냅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순수함을 지니고 있으며 천사와 영적 유대감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기주의자나 육신에 치우친 사람은 교활한 악마에게 쉽게 현혹됩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이 겸손한 생각을 하나만 품기만 해도 마귀는 사라진다. 어느 날 저녁, 저녁 기도 후, 나는 내 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나는 스토미온 수도원에 살고 있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수도원 근처에 위치해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로 쓰이

던 한 건물에서 현악기와 클라리넷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이 음악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원의 주보성인 축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니 사방이 온통 고요하고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나는 이 모든 음악이 악마가 나를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보낸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벤치로 돌아가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했다. 갑자기 방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천장과 내 머리 위의 층이 사라지고, 지붕이 열리더니 하늘까지 닿는 빛의 기둥이 보였다. 이 빛나는 기둥의 꼭대기에는 긴 머리와 수염을 가진 금발의 청년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다. 그의 얼굴 절반이 내 시야에서 가려져 있었기에, 나는 그의 얼굴을 온전히 보려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그리스도를 뵈는 영광을 얻었도다.” — “제가 감히 그리스도를 뵈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 내가 대답하며 십자 성호를 그었다. 바로 그 순간 빛과 거짓 그리스도는 사라졌고, 천장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누군가의 마음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다면, 악한 자는 그 사람에게 교만의 생각을 심어주고, 환상과 거짓 빛을 이용해 유혹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혼돈 속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그러므로 결코 빛을 보거나 신성한 은사를 받거나 그와 유사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구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람에게 겸손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한때 제가 시나이 산의 성 에피스티미아 동굴에서 지낼 때, 한 탕갈라슈카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거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단 세 네 개가 있었습니다. 밤에 하늘이 맑고 별이 반짝일 때면, 나는 동굴로 가곤 했는데, 그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비추곤 했다. 어느 날 밤, 라이터를 켜려고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 갑자기 한 바위에서 프로젝터와 같은 밝은 빛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와, 주위가 환해졌다! “아니, — 내가 말했다, — 이런 ‘프로젝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내가 뒤로 돌아서자, 빛은 금세 사라졌다. 저 악마 녀석은 내가 라이터 불빛을 비추며 사다리를 내려가는 걸 정말로 원치 않았던 모양이다! “아, 참 안타깝군,”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다니! 내가 그에게 빛을 비춰 주지 뭐!” 이게 바로 ‘자비’라니!

— 게론다,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 그건 알 수 있죠... 끔찍한 일이에요!

꿈은 거짓이다

— 게론다, 저를 괴롭히는 더러운 꿈들이 있습니다...

— 음란한 꿈을 꿔볼 때는,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절대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낮에 당신을 유혹하지 못했다면, 밤에 찾아올 테니까요. 때로는 하느님께서도 악

마가 꿈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의 낯은 사람이 아직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원수가 꿈속에서 사람에게 다가와 온갖 꿈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낙담에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에 전혀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십자가를 긋고, 베개에도 십자가를 긋고, 그 위에 십자가와 작은 성화 몇 점을 올려놓은 뒤, 잠들 때 예수님의 기도를 외우십시오. 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수록, 원수가 더 자주 찾아와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른들에게만 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꿈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비록 작은 천사들인 잠든 아기들에게조차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때로는 잠든 아이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기쁨에 차서 꿈속에서 웃거나, 큰 기쁨을 느끼며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악한 자가 가져다주는 꿈은 잠자는 동안 사람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적대적인 영향입니다.

— 게론다, 만약 잠자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때로는 낮 동안 사람이 겪는 불안한 상태나, 그가 느끼는 여러 가지 두려움, 의심 등이 그러한 무거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탄갈라슈카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만 한다면,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의심을 어떤 조합으로든 뒤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너무 맑아서, 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그 무거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다. 악마는 어떤 모습, 심지어 성자의 모습까지도 취해 꿈속에 나타날 수 있다. 한 번은 그가 한 병자의 꿈속에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아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 아르세니우스다. 네가 죽을 것임을 알려주러 왔다. 내 말 들리나?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은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성인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설령 환자가 정말로 죽을 운명이고, 성인이 그에게 죽음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다 해도, 성인은 다정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네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기에, 이 세상에서 너를 데려가실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도록 하라.” 성인은 결코 환자에게 “내 말 들리나? 너 죽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헤론다, 사람이 꿈에서 비명을 지를 때는 왜 그런 것입니까?

— 비명을 지르면 더 낫습니다. 그럴 때 깨어나니까요... 많은 꿈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피곤할 때, 그 불안이나 피로가 내면에서 그를 갇아먹고, 그는 불안한 꿈을 꾸니다. 저는 낮에 자주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러다 꿈속

에서 누군가를 꾸짖곤 하죠. “이 무신론자야!”라고 소리치며, “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곤 합니다.

— 게론다, 사람이 자신의 꿈을 통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을까요?

— 아니요, 꿈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 아무리 즐겁거나 불쾌하더라도, 그 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꿈의 95%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들은 꿈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극히 드물지만, 그런 꿈조차 해석하기 위해서는 순결함과 그 밖의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의로운 요셉¹¹⁶과 선지자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께 말했습니다. ‘왕께서 꾸신 꿈과 그 꿈의 뜻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¹¹⁷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과연 어떤 경지에 이르렀던가! 그는 사자 구덩이 속에 사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사자들은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¹¹⁸ 아바쿰이 다니엘에게 음식을 가져왔을 때, 다니엘은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단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¹¹⁹ 정말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를 기억하셨겠습니까?

—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 꿈을 꾸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티켓값도, 휘발유값도 쓰지 않으니까요! 꿈속에서는 단 1분 만에 현실에서는 몇 시간이나 며칠이 걸릴 법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시간은 무효화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은 시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천 년은 마치 어제 지나간 하루와 같으니...”¹²⁰

환상에 대한 주의

— 헤론다, 우리에게 자신이 겪은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어떤 성인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심하고 절제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상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해도,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이 환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기는커녕, 오

¹¹⁶ 창세기 37, 5–11 참조.

¹¹⁷ 다니엘서 2장 25–46절 참조.

¹¹⁸ 단 6, 16 이하 참조.

¹¹⁹ 다니엘서 14장 30–42절 참조.

¹²⁰ 시편 89, 5.

히려] 어떤 면에서는 감동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환상에 대한 그런 태도는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진정으로 성자가 나타났는데도 그 사람이 그 환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게 알리고, 그분을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지 아십니까. 주의가 필요한데, [성자 대신] 탄갈라슈카가 와서 [악마의] “텔레비전”을 켜고 자신의 방송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을 돕고자 하여 그녀에게 어떤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이후, 마귀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환상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너를 어떤 더 높은 사명을 위해 예정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악마는 자신의 일을 시작했고 그녀는 그의 지배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녀는 환상을 보았고, “파이시 신부님께 편지를 써서 네가 본 모든 환상을 기록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편지를 썼고 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그녀를 제대로 망가뜨렸습니다. 네, 그녀의 모든 환상은 진짜였지만, 거의 모두 유혹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환상 중에서 오직 첫 번째와 마지막 것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고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환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결국 그 불쌍한 여인은 나의 조언을 따랐고,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 악마적인 환상들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혹된 사람의 특징

— 헤론다, 사람이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이는 그의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겉으로는 일종의 거짓된 ‘무감정’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자만심—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거창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가 다른 모든 사람을 불쌍한 존재, 마치 개미처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혹된 사람은 그가 내뿜는 말만으로도 그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자로 여겼던 한 미혹된 사람을 기억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고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포도주가 든 병을 들고 계셨고, 그 병에서 그 사람에게 한 모금 마시게 하셨으며, 그 후 그 사람은 예지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예지력자”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도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건가요?” — “당신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 그 미혹된 자가 대답하며, 그 사람이 실제로 저지

른 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그 사람은 공포에 질려 내게 찾아와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자, 들어보세요, —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설마 성인들이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건 오직 악마뿐이다. [그 미혹당한 자의 입을 통해] 악마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모르겠나?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 진실은 어쨌든 악마가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돌던 한 남자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이 “기적 행자”는 두 여자를 모두 버려진 작은 예배당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에피트라킬을 집어 들고 몸에 걸쳤다. 그 여자는 무척 놀랐다! 세속적인 사람이 에피트라킬을 걸치다니! “당신, 신부님이세요?”라고 그녀가 물었다. “신부니 뭐니 하는 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가 대답하며 사제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쌍한 여성들은 그가 미혹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환상과 광기

— 게론다, 미혹에 빠진 사람은 병에 걸린 것입니까? 어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까?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혹은 한 가지이고, 정신 질환은 또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미혹에 빠지면서 정신 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저는 성 아폰 산에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던 한 수도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도원을 떠나 아폰 산을 방황했습니다. 그는 소위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축복을 받으려고 네다섯 번이나 저를 찾아왔고, 매번 저는 그가 수계를 받은 그 수도원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그는 칼리바를 사서 그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7개월 동안 그런 은둔 생활을 한 뒤, 그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수도원으로 돌아가라.”라고 나는 그를 설득했다. “지금은,” — 그가 대답했다. “수도원에서 퇴소 허가서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 “조심해라,” — 내가 그를 훈계했다. “아주 조심해야 한다. 적어도 어떤 장로님께 의지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해라.” — “그 순종이라는 건,” 그가 내게 대답했다. “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 “자, 자,” 내가 그를 설득하려 했다. “어느 수도원에라도 들어가 달라고 부탁해 봐.” — “내가,” 그가 내게 대답했다. “은둔자가 된 뒤 다시 되돌아갈 거라고? 네가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청해.” — “왜 하필 나 혼자 청해야 하냐,”라고 나는 그를 돕고자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청할 테니,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 “자, 이거야,” 그가 내게 대답했다.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렴. 만약 네가 침묵 속의 삶이 지겨워져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면, 가서 들어가라고 청해라!” 그가 저렇게 — 뻔뻔하게 —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를 내버려 두었다. 얼마 후, 나는 그 수도사에게 부정한 영이 깃들었고, 게다가 그가 미쳐버렸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악마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내 아들이, 네가 내 발 앞에 절하면, 내가 네게 성령의 일곱 은사를 주리라...” 불쌍한 그 수도사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곧 성령의 일곱 은사를 받아 모두를 제 발 아래 꿇게 하리라!” 그리고 땅에 엎드려 악마에게 경배했다. 그가 경배하자마자, 악마는 그를 뒤흔들었고, 그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 악마의 흔들림으로 인해 그의 정신 상태도 뒤흔들렸다. 그는 프로테피스타트가 되고 싶어 했고, 성 키노트¹²¹)에 와서 건물 안에 있던 수도사들을 자물쇠로 가둔 뒤, 프로테피스타트의 지팡이를 집어 들고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카리에스의 수도사들은 성 키노트의 계단을 따라 새로운 “프로테피스타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도사 중 몇몇은 조용히 지프를 타고 그 환자를 뒤쫓아가, 카리에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현재 귀신 들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정신 질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게론다, 미혹에 빠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많은 악령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혹에 빠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혹된 이들에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상에는] 경건함이 조금은 있지만 정신이 혼미한 고해신부들이 두세 명 있다. 이 고해신부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말하길, “사제이므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성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올바른 [속지 않은] 영성 지도자를 찾아 그에게 영적 양식을 얻어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장로들”은 심지어 제 이름과 제 사직까지 사용하며, 마치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죄를 경감시켜 줄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식초를 포도주인 양 속이는 양심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전직 회계사는 현재 북부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¹²¹ 아폰 산의 성스러운 키노트는 아폰 산에 위치한 20개 공동 생활 수도원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성스러운 키노트 회의에서는 아폰 산 수도원들의 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안들이 논의되고, 수도원들의 활동이 조율되는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네 명의 에피스타트(epistates)로 구성된 성 에피스타시아가 임명된다. 프로테피스타트는 성 에피스타시아와 성 키노트의 의장이다. — 역자 주.

내 수련생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통찰력의 은사와 더불어 “다섯 가지 은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모읍니다.

— 게론다, 그 사람은 성직자입니까?

— 아니요, 평신도입니다. 한 번은 다프니에서 저를 만났지만, 제가 그를 보지 못하도록 재빨리 도망쳤죠. “진정한 자녀”라니! 다행인 건 그가 술을 좋아한다는 점뿐입니다.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그 고통을 상업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기꾼 중 한 명이 어떤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한 손이 무덤에서 썩지 않은 것은, 그의 영혼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 그 불쌍한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어서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해야겠다.” 그녀에게 꽤 많은 돈을 받아낸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말했다. “자, 첫 번째 위험은 피했군요. 지금은 당신 남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불쌍한 여자는 계속 사기꾼에게 돈을 주었고, 그는 마치 남편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재산 절반을 가로챘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 빠진 자들은 코앞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병자들에게 십자 성호를 긋고 마치 그들을 치유하는 척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사제를 집으로 초대해 병자성사나 관련 기도를 청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사기꾼들에게 찾아갑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사기꾼들에게 엄청난 돈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마을에서 두 명의 미혹된 자가 매우 수익성 좋은 사업, 즉 진정한 협동조합을 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귀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에게, 예를 들어 심한 두통을 일으키거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그 마을 주민 중 누군가에게 요통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악마는 그 미혹당한 자 중 한 명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누구누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심한 두통이 있다.” 적절한 기회를 잡은 그 미혹당한 자는 아픈 마을 사람에게 말했다. “네가 왜 머리가 아픈지 내가 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병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정말이야! — 아픈 사람은 놀라워했다. — 이거 정말 놀라운 계시잖아! 그럼 머리가 낫게 하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해?” — “누구에게 가면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 미혹된 자가 말하며 그를 다른 미혹된 자에게 보냈다. 보시다시피,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 속에 가두기 위해 어떤 교활한 계락을 꾸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명의 미혹된 자를 ‘의료 협동조합’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진단을 내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치유하는 척했죠! 마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미혹된 자들의 값싼 은사

— 게론다, 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종종 미혹된 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입니까?

— 마귀의 은사는 값이 싸고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된 자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달래며 그들의 정욕을 정당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거나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받는 대신, 바로 이런 미혹자들—즉 마귀 그 자체—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괴로워하면서도, 마귀가 자신을 옹아매고 자신에 대한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 게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미혹된 자들을 믿는 것입니까?

— 사람들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작 그들 자신은 어깨에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그 가방 속에는 아무나 아닌 바로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악마가 완전히 눈에 띄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기꾼들이 메고 다니는 자루에서 악마의 뿔이나 꼬리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공포에 질려 소리칩니다. “아, 이게 뭐야? 뿔? 꼬리?” —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뿔이라니, 꼬리라니! 그건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달래며, 그들을 속여 악마의 짓을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위장하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 수도원에 어떤 ‘미혹된 자’가 이끄는 일행이 찾아왔다. 그 사기꾼은 주위에 열 명 가량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기독교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가요?”라고 내가 물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떤 모임에 속해 계신가요?” 그들은 침묵했다. “고해 신부님은 계신가요?” 침묵. 그러더니 그들은 내게 다가와 절을 하기 시작했다. 이 미혹된 자는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미혹 상태에 머물게 하려 했던 것이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파이시이 장로님을 뵈었는데, 그분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그와 만나서는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와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그는 정말 수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고 서 있던 그의 불쌍한 추종자들을 보니, 그들이 이 사기꾼에게 휩쓸려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 게론다,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 말은 해 주었지만, 그들이 이곳을 떠나자마자 그 교활한 자가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그들을 자신의 길로 돌려보낼 테니까요.

— 게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유혹받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이 무지 때문에 미혹된 자를 따르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를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미혹된 자의 교정

— 게론다, 어떤 미혹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자신의 무능한 상태를 깨닫고, 영적 지도자에게 모든 생각을 고백하며, 영적 지도자가 말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성한 은총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라: 하느님의 심판과 뜻은 심연과 같다. 아,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머릿속이 미혹된 생각들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자주 아픈 산을 찾아와 내 칼리바에 들르곤 했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전혀 듣지 않았다.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해석하곤 했다. 그리고 성산을 떠난 뒤, 그는 설교를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큰 [영적] 피해를 입혔다. 그는 마치 내가 그에게 설교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말하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오래전, 나는 그에게 축복의 뜻으로 몇 권의 책을 주었는데, 그는 심지어 그 책들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나와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설교’ 도중, 잠시 동안 신성한 은총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자 그는 가장 더러운 말로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성모독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하며 흠어졌습니다. 그 후 경찰차가 도착해 그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조차 모독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 오직 당신의 피조물들이 도움을 받고 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 게론다, 만약 어떤 미혹된 자가 자신이 미혹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의 추종자들도 회개할까요?

—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그는 겸손해져야 하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을 올바른 [영적]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미혹된 사상이 알려지고, 그 자신이 여전히 미혹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부드럽고 신중하게 깨우침을 주고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혹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의 추종자

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이 미혹이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면, 유혹에 빠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제4장.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한 자”¹²²

오순절파의 미혹에 대하여¹²³

— 게론다, 오순절파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환상이 나타나고, 여러 언어로 말하며,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상상일 뿐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악마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 이는 악마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파의 이단에 빠져 그들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성 정교회로부터 받은 거룩한 세례를 짓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하노라”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적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불쌍한 사람들은 악마의 영향력 아래 빠지게 되고,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오순절파들이 말하길, “오순절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오순절의 성령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영들의 무리일 뿐이다. 무슨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헛소리를 지껄일 뿐이며, 심지어 자신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모든 헛소리를 녹음기에 녹음해 놓고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테이프에는 이런 언어로 ‘할렐루야’가 몇 번, 저런 언어로 몇 번...” 그 정도는 둘째 치고, 이 온갖 헛소리 속에서 세계 어느 민족의 언어에서든 “할렐루야”와 비슷한 소리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테니! 보라, 이런 “방언 말하기”는 바로 악마의 짓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악마적인 행위를 성령의 역사로 여기며, 마치 성 오순절 날 성도사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신들도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 게론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¹²² 디모데후서 3, 13.

¹²³ 오순절파 — 1907년 미국에서 창설된 개신교 계열의 종파. 오순절파의 이단적 견해에 따르면,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들이며, 그 결과 “낮선 언어로 말하는 것” (소위 “글로술랄리아”), 예언 등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오순절파는 오직 자신들의 종파만이 교회의 성질을 지녔다고 인정하며, 천년왕국론을 고수하고, 성전승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입장을 취한다. — 역자 주.

— 그들은 “나는 유아 때 세례를 받았을 때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깨닫고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고, [이 이단적인 세례 이전에 저지른]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는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세례 성사에서는 대부가 유아를 대신하여 보증인이 되며, [그를 대신해] 신앙고백을 낭독하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과연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이들에게 불공정한 일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은 유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사를 영접함으로써 신성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 어떤 죄로 인해 성세 성사를 더럽힌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회개와 고해성사가 있어, 사람이 저지른 죄를 씻어줍니다.

불 위에 걷는 이들에 대하여¹²⁴

— 게론다, 성 콘스탄티노스 축일에 불 위에 걷는 사람들이 달궈진 숯 위에 걸어도 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 그것은 악마적인 현상이자 동시에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어떤 성화나 십자가를 들고 숯불 위에서 춤추는 것은 뻔뻔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므로, 악마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마가 그런 후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악마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 즉 숯불 위에 걷는 일에서는 그들 자신의 교활함도 그들을 돕습니다. 불 위에 걷는 사람들은 공연이 열릴 장소에 미리 도착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즉, 그들은 타는 후 숯은 적게 남기고 재는 많이 남기는 플라타너스 나뭇가지를 태우며, 춤을 추면서 어디를 밟아야 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왜 그들은 불에 태워도 숯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돌참나무나 딸기나무 가지를 모닥불에 넣지 않는 걸까? 자, 다른 누군가가 모닥불을 피워 주면, 그제야 그들이 가서 숯 위에 밟으며 춤을 추게 하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네요! 불 위에 걷는 사람들은 맨발로 숯 위에 걸터다니는데도 타지 않잖아요.” — “그게 당신에게 놀랍게 보이나요?” — 내가 그에게 물었다. “악마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수년, 아니 이제는 수세기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타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점이 놀라운 일이지, 누군가가 숯과 재 위에 잠시 걸터다녔다고 해서 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¹²⁴ “불 위에 걷는 자들”(그리스어 ἀναστενάρια) — 프라키아와 마케도니아(북부 그리스)의 일부 마을에서 널리 퍼져 있는, 타오르는 숯 위에 걷는 이교도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 — 역자 주.

— 헤론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육받은 사람들조차도 환생을 믿는 것입니까?

— 환생은 사람들, 특히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편리한 교리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마귀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죄악된 삶 속에 묶어 둡니다. “뭐 대수겠어, — 마귀는 환생을 믿는 이들에게 속삭입니다. — 이번에는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올 때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도 또 돌아오고... 너는 진화를 겪게 될 거야!..” 그 후 사람들은 “이 죄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뭐 대수겠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은 부주의하게 살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라, 악마가 이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지옥에 가두는 모습을! 나는 환생에 대한 거짓 가르침보다 더 큰 악마의 교활함과 날조함을 본 적이 없다. 악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모으기 위해 이것을 꾸며냈다. 그리고 만약 악마가 한 번이라도 너를 붙잡는다면, 그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 같으냐? 환생 이론은 모든 힌두교 이론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

어느 날 늦은 밤, 한 청년이 내 칼리바를 찾아왔다. “내가 저녁 기도를 드리려던 이 시간에 찾아오다니,”라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아직도 그런 헛소리에 빠져 있나?”라고 그가 대답하고는 떠나버렸다. 다음 날 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너는,” 내가 물었다. “예전에 해시시를 해본 적이 없니?” “네,” 그가 대답했다.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하지만 그 환상을 봤을 때는 해시시를 전혀 피우지 않았어요!” — “혹시,” 내가 그에게 물었다. “환생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은 없니?” — “그래,” 그가 대답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환생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고, 거기에 이기심이 섞이면서 악마가 그에게 천 년 전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꿈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지! 그 후 환상 속에서 그는 “하늘로 승천”했지만, 하늘에서는 아직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내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악마가 그를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네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은,” 내가 그에게 말했다. “다 허구일 뿐이야. 그런데 넌 그걸 믿었던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믿는 교양 있는 사람들도 있다. 내 칼리바 근처에서 한 마리의 당나귀가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당나귀는 활기차서 나는 그 이름을 나세르라고 지어주었다.¹²⁶ 어느 날 스위스에 살던 그리스인 순례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제가 당나귀를 나세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다음에 왔을 때 과자가 든 상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¹²⁵ 환생 – 육체적 죽음 이후 영혼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 끝없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반복한다는 잘못된 종교적 관념.

¹²⁶ 나세르 가말 압델 (1918–1970) – 1956–1970년 이집트 대통령 – 역자 주.

는 평범한 상자였고, 다른 하나는 선물용 상자였습니다. “이 과자들은 당신 거예요,”라고 그는 말하며 평범한 과자가 든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케이크들은 나세르를 위한 거예요. 그 때 이미 그가 진짜 나세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그와 마주쳤을 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슬퍼서 제 가슴을 꿰뚫을 정도였어요!” 즉, 그는 나세르가 환생해서 당나귀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걸 믿었다! “형제여,” 내가 그에게 말했다. “정신이 온전한 거야? 내가 그 당나귀를 나세르라고 부르는 건, 그가 활기차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다른 일화를 하나 더 들려줄게. 몇 년 전, 독일군이 그리스를 점령하던 시절 그곳에서 전사한 독일 병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한 무리의 독일인들이 크리트 섬을 찾았다. 독일인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장을 봐 온 짐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한 농부가 그들 곁을 지나갔다. 사람 무리를 본 당나귀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독일인 중 한 명은 울부짖는 당나귀가 전쟁에서 전사한 자신의 형이 당나귀로 환생한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알아보고 울음소리로 인사한 것이라고 생각한 독일인은 군대식 경례 자세를 취하며 한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어이없는 일이었죠!..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독일군은 농부에게 달려가 물었다. “이 당나귀를 얼마에 팔 건가요? 제가 살게요.” — “엿이나 먹어, 알잖아 어디로...” — 농부가 대답했다. 하지만 독일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 마르크를 세고 있었다. 더, 더... “제발 가라, — 농부가 설득했다. — 나 좀 지나가게 해줘.” 더 많이, 더 많이... 결국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농부에게 말했다. “바보야, 너 정말 바보구나. 그 사람이 너한테 당나귀 값으로 ‘메르세데스’ 한 대 값이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 그냥 넘겨줘.” 농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다가, 당나귀의 고삐를 풀고 안장을 벗긴 뒤 그 동물을 독일인에게 넘겨주었다. 독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나귀를 데려가 독일로 끌고 갔다!

— 게론다, 이거 다 사실인가요?

— 이보다 더 진지할 순 없지! 나도 한 진지한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야.

힌두교의 고행 수행에 대하여¹²⁷

— 게론다, 힌두교도들은 요가에서 행하는 강도 높은 금욕 수행 덕분에 일정한 자제력을 얻게 되는 건가요?

¹²⁷ 이 장에서 노인이 말한 내용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요가와 명상 기법을 사용하는 뉴에이지의 종교적 흐름 전반과도 관련이 있다.

— 그들은 물론 이 모든 수행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정교회의 절제와 전반적인 영적 금욕은 언제나 가장 높은 영적 목표, 즉 영혼의 성화를 염두에 둡니다. 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탄적이고 세속적인 금욕은,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종이 인형 카라요즈처럼 손과 발을 비틀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¹²⁸ 이 “금욕가”들을 보고 일부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감탄하게 하고, 조롱받을 만한 악마들이 그들을 비웃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동양의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다리를 쭉 펴기 시작하여, 한쪽 다리는 한쪽 어깨 뒤로, 다른 쪽 다리는 다른 쪽 어깨 뒤로 넘기고, 그런 자세로 앉아 기도한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주먹으로 자갈이 든 자루를 두드리기 때문에 손에 굳은살이 생기며, 그 후에는 돌이나 판자 등을 부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양 종교의 신도들이 이야기하는 감각과 체험은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혀를 뺨어 코끝에 닿게 하거나, 반대로 혀를 안으로 집어넣어 혀끝으로 후두에 닿게 하면, 그들은 일종의 자극을 느끼고, 간지러운 듯한 달콤함을 경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넥타르[신들의 음료]를 마셨다.” 그런 다음 이러한 “고행자”들은 손가락으로 귀 근처의 신경을 꺾 누르면 에서 “우-우-우-우...” 하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악이군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눈을 누르면, 눈앞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혹은 눈을 크게 뜨고 태양을 뻘히 쳐다보다가, 눈을 감으면 빛을 보기도 한다! “자, — 그들이 말한다, —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보았다!” 그러자 악마가 그들에게 말한다. “아-아, 그래서 너희는 빛을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마.” 악마는 그들의 상상력을 부추기고, 그 후 그들은 더 이상 손가락으로 눈을 누르거나 태양을 쳐다보지 않아도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정교회 수도사들]를 마귀는 종종 어떤 빛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런 것을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빛을 등지고 서 있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 스스로가 마귀를 자극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마귀에게 빌미를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 헤론다, 그러니까 악마가 직접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건가요?

— 네, 그는 그들의 상상력을 극도로 부추기고 자극한 다음, 그들을 미혹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중 일부는 인도 스승들을 찾아갑니다. 인도인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도들에 대해 온갖 모독적인 말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것이 모독임을 알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는 “말할 수 없는 동사들”을 읊조리기 시

¹²⁸ 카라요즈 – 그리스 민속 그림자 연극의 주인공이자 광대. – 역자 주.

작합니다. 그들은 광란과 정신이 나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힌두교는 많은 해를 끼쳤다

인도인들은 지적인 민족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자연의 경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운 마음을 지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위 철학이라 불리는 것, 미혹적인 가르침, 그리고 주술에 몰두한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이론으로 유럽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양의 종교적 흐름을 이끄는 자들을 보라: 그들 자신은 체격이 황소와 비슷하지만, 그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은 굽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 스승들은 우리 그리스에도 찾아와, 사람들에게 열반—게으름을 피울 기회, 환생—을 미끼로 삼아 속이고 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자신의 책에서 성경, 『자비』, 성부들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들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과거에 정교회 신자들이 힌두교 이론을 믿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어떤 이들은, 뭐랄까, 올바르게 긍정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지지하며 그 교사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 게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에 정교회 신자들이 있습니까?

— 아주 적습니다. 사도 토마스가 인도에서 세운 교회의 신자들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들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들에 있는 정교회 신자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종교나 종교 운동들이 기적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은 우리 신앙의 기적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전능하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그분이 원하셨다면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온 세상이 즉시 그분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¹²⁹

정교회에는 기적과 신성한 은총이 존재한다. 힌두교에는 주술과 철학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기적을 주술로, 신성한 은총을 철학으로 대체합니다. 마귀는 구루와 주술사, 그리고 그들과 유사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마귀에게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¹²⁹ 행 20, 29.

동양의 종교적 가르침에 폭 빠진 사람이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러한 “기적 행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귀의 속임수임을 이해해야 한다. 마귀는 진리를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거짓말만 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미혹합니다. 동양의 가르침에 접한 사람들이 이전에 정교회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적이 있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동양의 마술사들의 삶이 불결하고 뒤엉켜 있는 반면, 정교회에서는 순수한 삶과 더 높은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됨을 보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 정교회에서 그들은 거룩함을 지니고 참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정교회의 선함은 사람이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넘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단 신자나 그들에게 현혹된 자들, 그리고 그들과 유사한 이들이 행하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영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으나, 그 자체로 어떤 긍정적인 인간적 토대를 지닐 수는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과 사랑을 지니고, 온전히 이웃을 위해 자신을 바치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또한 자신의 금욕적 수행, 금식,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단지 기분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구하는 것은 값싼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에게 천상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 다양한 힌두 철학이나 요가 등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위 영적인 상태나 황홀경에 도달하고자 이를 행합니다. 그들은 쾌락을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기를 갈망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동정심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동양 종교의 신자가 해변에 앉아 자기 집중에 몰두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수행에 몰두하는 동안 바다에서 사람이 익사하며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친다면, 그 동양 종교의 신자는 그 비명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의 기도를 올리고 있던 정교회 수도사가 있었다면, 익사하는 사람의 비명을 듣자마자 즉시 목주를 옆으로 치워두고 바다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가

— 게론다, 재림 전에 예언자 일리아와 에녹이 회개를 설교하러 지상에 온다면, 세상이 그들의 설교를 이해하고 정신을 차릴까요?

—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미혹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적을 보여,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니,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¹³⁰

어떤 사람들은 미혹된 자들을 예언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개신교 신자가 가족 여행 가방을 들고 끊임없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그 가방에는 영어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일리아다!” 이 개신교인은 반소매 셔츠를 입고, 영어로 된 성경을 지니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곤 했다! 그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종교에 속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에이, 지금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아직 땅에 살던 시절에는 어떤 종교도 없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톨릭, 개신교, 오순절교, 모든 이단과 이단적 분파들까지 — 이 개신교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예언자”인지 분명해지지 않나요?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냈는지! 그의 모든 편지는 성경 구절과 다양한 개신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한 무더기씩 보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영국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곳에서 보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믿었고, 심지어 한 잡지에 ‘예언자 일리아가 왔다’는 기사를 게재하려까지 했다.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군요!

미혹된 자들의 말을 듣기만 해도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런 믿음은 자신의 ‘나’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 ‘나’ 뒤에는 탄갈라슈카가 숨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를 신으로 삼아 신성한 은총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론들로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오도하려 한다. 그런 미혹된 사람 중 한 명, 마흔다섯 살쯤 된 남자가 할키 신학교¹³¹ 졸업생인 척하며 다양한 힌두교 이론을 설교하고 있었다. “이 모든 미화된 인도식 어리석은 말들을 퍼뜨리면서 —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동시에 할키 신학교 졸업생인 척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게론다, 그리스에 퍼진 일부 유사 종교적 흐름들이 왜 비종교적 단체, 클럽, 협회 등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가르침 내용이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¹³⁰ 막 13, 22.

¹³¹ 할키 섬(콘스탄티노플에서 멀지 않은 프린체프 제도)에 있는 신학교 — 세계 총대주교청 산하 교육 기관. 1844년에 설립되었다. 3개의 고등학교 과정과 4개의 대학 과정이 있었다(러시아의 신학교 및 신학 아카데미와 유사). 신학부는 1971년에 터키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고, 고등학교 과정은 1984년에 폐쇄되었다. — 역자 주.

—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성 콘스탄티노스 대제께서 우상 숭배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의 국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들은 우리를 다시 우상 숭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스크 건축을 허용하고, 온갖 구루들이 우리 땅에 자신들의 수도원을 세우고, 자유롭게 강연을 하고, 다양한 개종 센터를 개설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프리메이슨도 우리 나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회를 상대로 온갖 종교적 교리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카드집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정신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두 청년이 나에게, 성지를 여행하던 중 아브라함의 무덤에 경배하기 위해 헤브론에 갔는데, 그곳에서 유대인 모자를 쓰겠다는 조건으로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유대교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을 썼다면, 정통 기독교 순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끔찍한 [영적]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파리의 한 로마 가톨릭 교회 입구에는 “요가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 수업을 제공합니다”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도대체 어디까지 와버린 것인가! 그리고 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미쳐버린다. 그들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른다. 일부 로마 가톨릭 신자, 개신교인 및 그와 유사한 사람들은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정교회 세례를 받으면 정신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신교인이 정교회 신자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부탁받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를 세례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니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겁니다.” — “하지만 그는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도대체 이걸 모르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개신교인을 바다로 데려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뒤, 그가 내 칼리바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지만, 제 정신 상태는 세례로 인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자, 들어봐, 설마 네 정신 상태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건 아니겠지?” — 내가 그에게 물었다. — “이봐, 만약 네가 세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가치를 이해하여 그 위대함을 위해 이 성사를 갈망했다면, 그때야말로 네 정신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왔을 거야. 하지만 지금, 네가 단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성세례 성사에 임했다면, 도대체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마법처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 주술과 기적을 혼동하고 있다. 그들은 금과 청동을 구분하지 못한다. 보라: 어떤 개신교도가 예를 들어 정교회 세례를 받고, 그 후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가, “아니, 이것도 내 취향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다시 개신교나 정교회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한 가톨릭 신자가 정교회 세례를 받고 수도사가 되어 9년 동안 정교회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칼리바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교회 신자로서 아직 세속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제 세속으로 나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게다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말해 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그게 왜 중대한 죄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교회로의 귀환

요즘의 기이한 사람들은 옳은 것에서가 아니라 기이한 것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주술로 유명한 인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국, 바로 곁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신비로운 삶을 간직하고 있는 성 아폰 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한다! 한 학생이 나에게 인도에 가서 3년 반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떤 종교가 참된 것인지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다. 결국 한 인도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이 찾는 것은 정교회에 있습니다. 빛은 그곳에서 나옵니다. 아톤 산으로 가서 거기서 당신이 찾는 것을 찾으십시오.”¹³² 그리하여 그 청년은 그리스로 돌아와 아톤 산에 도착했습니다.

— 게론다, 다양한 동양 종교 의식과 연루되었던 정교회 신자가 이를 회개할 때, 정교회는 그를 다시 교인으로 받아들입니까?

— 그런 사람에게는 큰 회개와 성유(聖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정교회로 돌아와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규정에 따라 먼저 동방 종교들의 이단을 서면으로 배격하고 정교회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그 후에 사제가 그에게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를 위한 기도’¹³³를 낭독하고 성유로 기름 부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젊은이들—우리 동포들—이 복음서 한 줄도 읽지 않은 채 브라만교나 불교 서적, 코란 등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인도 구루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교회로 돌아오지만, 이미 그 동양의 종교들에서 온갖 종류의 [영적] 세균에 감염된 뒤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그 후 진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먼저 [삶의 경험을 통해] 정교회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 후에 — 만약 정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¹³² 하나님께 호의를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수많은 예 중 하나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사람의 목소리로 말한 암나귀의 이야기이다(민수기 22:18-35 참조).

¹³³ 참조: Εὐχολόγιον τὸ Μέγα. “Ἀστήρ” 출판사, 아테네, 1986. 591쪽.

다면 — 떠나면 됩니다. 정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한 뒤, 자신이 듣게 되는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들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교회를 알게 된 사람은 가짜와 진짜 금을 구별할 수 있고, 금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안에 카라트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며, 반짝이는 모든 것을 금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오직 이기적인 사람들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정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제5부. 고백의 힘에 대하여

“내면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이는 고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사람은 겸손해 집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려지며,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제1장.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백을 통해 사람은 해방된다

— 헤론다, 기독교 초기에는 모든 교회 신자들이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 공개적인 고해성사에 이점이 있습니까?

— 기독교 초기 시절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시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공개적인 고백이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 왜 그렇습니까, 헤론다? 그 시절 기독교인들은 신앙심이 더 깊었습니까?

— 그들에게는 신앙심이 더 깊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처한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옛날과 다릅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온갖 생각과 정욕 속에서 숨이 막혀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어떤 곤란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고해 성사도, 교회에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다니고 있니?”라고 묻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고해성사는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니?”라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저를 치유해 주시길 바라며 찾아왔습니다.” —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치유하겠니? 당신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당에 다니며,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 물론 당신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그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면 말이죠. — 그러면 저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다른 삶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건가요?” — “이봐요, 신부님,” — 그런 사람들은 반박하며 대답합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다른 세상 같은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다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죠. 저는 무당도 찾아가고 초능력자도 찾아갔지만, 그들은 저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만이 저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이나 가나! 당신은 그들에게 고해성사와 내세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이 모든 건 동화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약에 의존해야만 하거든요”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마법처럼 [수고 없이] 치유될 수나 있겠는가?

그리고 보라,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들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고해 신부에게 가지 않고, 결국 심리 상담사에게 가서 “고해”를 하게 된다. 그들은 심리학자들에게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만, 이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조언으로] 마치 환자들이 건너야 할 강 한가운데로 그들을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불쌍한 사람들은 그 강에서 익사하거나, 간신히 반대편 강둑까지 헤엄쳐 가지만, 물살에 휩쓸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반면 영적 지도자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와서 고백을 마친 사람들은 위험이나 두려움 없이 다리를 건너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여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찾을 수 없으니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지 않는다”고 변명합니다.

—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모든 고해 신부는 에피트라킬을 두른 순간부터 신성한 권능을 지니게 됩니다. 그는 성사를 집전하며 신성한 은총을 가지고 있으며, 회개한 이에게 사죄 기도를 낭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고백한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고해 성사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어느 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 남자가 내 칼리바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예지력을 부여받았으며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에 대해 무엇을 예견하십니까?”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고해 신부를 찾아가 그에게 고해하십시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

기처럼 폭 주무실 수 있고, 지금 드시는 약도 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고해 신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죠.” 이처럼 사람들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내게 찾아오지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럼 결국 아픈까지 가는 표 값만 헛되이 쓴 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새로운 함정을 꾸민 것을 본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한 서원을 이행한다면—예를 들어 성지로 순례를 간다면—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그래서 종종 많은 순례자들이 큰 양초와, 이러저러한 기적을 행하는 성화에 매달겠다고 약속했던 은 장신구를 들고 수도원과 성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은 장신구를 걸고, 넓게 십자 성호를 긋고,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고해성사도 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지도 않으니, 그로 인해 탄갈라슈카를 기쁘게 하는 셈입니다.

— 게론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 어떻게 내면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평안을 느끼려면 마음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이는 고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하여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려오며,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고백하기 전까지 사람의 [영적] 정점은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 안개 너머를 매우 흐릿하고 모호하게 보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지면, 사람은 마치 안개 속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는 마치 강한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에 안개가 걷히고 지평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고해성사를 하러 보내고, 고해성사를 마친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헤론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이 알 수 있다면, 그냥 저에게 말해 주세요.” — “설령 제가 정말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해도,”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그 후에 오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정말로, 상대방이 다른 [영적]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이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고백을 통해 사람은 내면의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깨끗이 비우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토마토 몇 그루를 심으려고 텃밭을 갈고 있을 때, 한 방문객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게론다, 뭘 하고 계십니까?” — “뭘 하고 있냐고요? — 제가 말했습니다. — “글쎄요, 제 텃밭에 고해성사를 하고 있죠.” — “설마, 헤론다,” 라고 그는 당황하며 말했다.

— “설마 텃밭도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 “물론 필요하죠. 제가 텃밭에 고해성사를 시켜주면, 즉 땅에서 돌과 잡초, 가시 같은 것들을 깨끗이 치워내면, 그곳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하나같이 튼튼하고 건강해진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반면 텃밭을 ‘고백’ 없이 내버려 두면, 그 밭에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누르스름하고 주름진 토마토들이 자라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바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 게론다, 제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과 상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당에 와서 성상 앞을 서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여왕이시여, 제가 헌금함에서 돈을 가져가도 될까요?” — “가져가라,” — 그의 생각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가져가겠습니다,” — 그는 자신의 생각에 대답하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교구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헌금함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 그는 의아해했다. “설마 누군가 돈을 훔치는 건가?”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무엇이였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다시 왔고 모든 일이 반복되었다. “나의 여주인이시여, 제가 헌금함에서 돈을 가져가도 될까요?.. 좋아요,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교구 평의회 위원은 그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했다.

항상 곁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 예를 들어, 네가 사막 어딘가에 있다고 치자 — 그럼에도 네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살아 있다면,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네 스승이 되어 주신다. 그분은 너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신다. 가령,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쳐 주시니, 너는 그 구절을 이해하게 된다.

— 헤론다, 제 영적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악마의 유혹인가요, 아니면 제 부주의 때문인가요?

—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설령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조차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저 개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저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결정이 아무리 현명해 보일지라

도, 저는 그것을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여깁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보세요, 의사 조차도 난치병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을 내렸는지 확신하기 위해 다른 의사와 상의하잖아요. 하물며 어떤 학생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할 줄 안다 해도, 그는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바로잡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겸손해지도록 이를 마련해 두셨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 지도자에게 털어놓고, 그와 상의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적 투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시련을 자초하게 되고, 악한 자가 그를 혼란스럽게 하여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참회 과제를 정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 여정을 걸어가며 조언을 구할 고해 신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길을 잃고, 기력을 소진하며, 뒤처지게 된다. 그런 사람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자만과 교만으로 행동하게 되므로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머물게 된다. 반면,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와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나아가 의견을 구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는 후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지도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올바른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통조림 깡통 뚜껑에 불과하죠. 하지만 제가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오면,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제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로부터 나에게 온 사람이 경외심을 품고 왔다는 것이 두 더하기 두가 네와 같이 분명해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 나를 이러한 선한 상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경우, 누군가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 주시므로,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그가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영적 삶에는 영적 지도자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 그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영적 서적 읽을 시간을 마련하여 삶을 꾸리고, 성당에 다니며 성체를 영한다면, 이 생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영적 지도자가 지켜봐야 합니다. 영적 삶에서 예를 들어 영적 서적을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만, 영적 지도자가 없다면 사람은 읽은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데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도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차를 세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테네를 떠나 플로리나로 향한다고 치자. 물론 지도도 있고 지도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는 어느 키오스크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앞으로 갈 길이 괜찮은지 물어본다. 만약 묻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하거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플로리나 대신 카발레에 도착하거나 차와 함께 절벽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묻지만, [다른 쪽으로 돌아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 가고자 했던 곳과는 다른 곳에 도착해 버리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경고해 준 도로상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나 다른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조심해라: 이런 곳에는 급커브가 있고, 저런 곳에서는 길이 높은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진다...”라고 경고해 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 신자는 고해 성사를 통해 그를 돕고 조언을 해 줄 영적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며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영적 지도자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영혼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좋은 의사를 찾아나서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도 좋은 영적 지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 영적 지도자—영혼의 의사—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에게 보내십시오

— 게론다, 종종 우리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도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덕분에 자신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고해성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 질문하며 찾아올 때, 먼저 “고해 신부님이 계십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저 역시 제 칼리바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해 신부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해 신부님께 가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고해 신부님을 두고 그분께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마가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수녀가 수도원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고통받는 여인의 아픔을 한 번 나

누고, 이야기를 들은 뒤 그녀를 고해 신부에게 보낸다면, 저는 그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여인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한 번도 고해성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절망에 빠져 있다면, 수녀는 그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준 뒤 다시 고해 신부에게 보내고, 그 여성에게 자신도 그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해 주면 됩니다.

수녀의 의무에는 사람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들어주며 돕는 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사람들 자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의 변화, 타인에 의한 변화, 그리고 마귀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 수도원에 와서 인간적인 위로를 얻지만, 수도원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낡은 노래는 계속된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 모두 각자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 만약 [대신에] 수녀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니,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거짓으로 달래고 고해 신부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은 수녀로서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짓된 선교 활동에 몰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수도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교 활동”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수도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영적 지도자의 의무 범위에는 사람들의 문제가 포함되며, [더 나아가]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들은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지만, 그 일은 수녀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직 기도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름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편지를 보내온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묵주를 짚으며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하는 영적 지도자”

사람이 주치의가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있도록 신경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곁에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 의사는 환자 곁에 있으면서, 비록 경험이 그리 풍부하지 않더라도 의학 교수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환자와 가까이 있는 의사는 그를 정기적으로 진찰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도록 보낼 수 있

기 때문이다. 내가 결핵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¹³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눈치챘다. 많은 부자들은 결핵에 걸렸음에도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다. 그들을 치료하러 의학 교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교수들은 자택에 있는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부유층을 위한 특별 병동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원 치료를 받으며 지속적인 의료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의사는 환자와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며 이러저러한 치료를 처방하고, 자신이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부작용이나 원치 않는 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의사는 이러한 관찰에 따라 처방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완전히 다른 치료 과정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혼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에는 때때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멀리서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유혹에 빠진 한 여성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이것저것 해 보라. 그러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내 말을 따랐고, 유혹은 사라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반대의 유혹에 빠졌고, 첫 번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성격의 여성은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녀에게 새로운 “처방”을 내려주었을 것이다. 즉, 다른 조언을 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물어볼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내가 그녀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 멀리서 조언을 해 주지 않는다.

가정 내 영적 지도자

— 게론다, 부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자신을 변명한다면, 아무리 많은 영적 서적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선의로 대하고, 영적 지도자가 있으며 그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중재자” 없이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고, 아내에게는 또 다른 영적 지도자가 있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두 장의 판자를 서

¹³⁴ 1966년

로 다른 두 목수가 각자 제 방식으로 다듬는다면, 두 판자를 서로 맞추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부부가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둔다면, 그 지도자는 그들의 ‘돌출부’ 즉, 결점을 ‘다듬어’ 줍니다. 한 사람의 결점을 다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다듬음으로써 [그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균형을 잡고 매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조차 남편과 아내가 각기 다른 영적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로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부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람으로서] 완전히 잘 맞지는 않았지만,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두고 조화롭고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어간 가정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적 지도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파악한 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 지도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엄하게 지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부모의 말만으로는 문제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을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에 예를 들어 아내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영적 지도자는 남편을 불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신부는 그들의 친척이나 지인 중 한 명에게 신중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해 신부 변경

— 게론다, 어떤 이유로든 영적 지도자를 바꿔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전에 이전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했던 죄들을 새로운 영적 지도자에게 다시 고백해야 합니까?

— 네, 사람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이 어떤 영적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환자가 새로운 의사에게 자신의 병력을 이야기하여, 의사가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 지도자를 바꾸고 싶어 하며 이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전 영적 지도자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볍게 영적 지도자를 바꾸는 데는 좋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엔지니어와 현장 감독이 자꾸만 바뀌면, 그 건물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은 그들과 상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장로와도 상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장로와 저런 장로를 만났고,”라고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파이스

신부님께도 이 일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를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가 내 문 앞까지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두드리기가 두려워서 돌아간 경우 말이죠! 이처럼 이 사람들은 한 영적 지도자에서 다른 영적 지도자로 이리저리 떠돌며, 고정된 영적 지도자를 두지 못한 채 끝을 맺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다른 고해 신부에게 그 죄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들은 같은 죄를 다시 짓고, 또 다른 세 번째 영적 지도자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결국 이 영적 지도자들 각각 앞에서 그들은 마치 그 죄를 단 한 번만 저지른 것처럼 상황을 포장합니다. 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영성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 영성 지도자가 고해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에게 무언가를 털어놓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영성 지도자에게 고백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도울 수 없고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릴 지인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곤 한다. 내가 한 공동 생활 수도원에서 수련 수도사였을 때,¹³⁵ 수도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한 남자가 우리에게 들어왔던 일이 기억난다. 그가 수도원에서 얼마 동안 지낸 후, 마음속에서 수도원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을 수도원장이나 수도원의 다른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 예리소스(¹³⁶) 출신으로 수도원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에게 털어놓았다. 그 수도사가 일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부엌 근처에서 양파를 껍질을 벗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곁에 있었고,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수도사와 일꾼은 나로부터 두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수도사는 일꾼에게 큰 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요,” 그가 말을 꺼냈다. “수도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 “그게 말이 됩니까?” 노동자가 놀라며 물었다.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수계 받기 전까지 그곳에서 한 동안 지내며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은 없었나요?” — “아니, 무려 2년이나 지켜봤다고요!” 수도사가 불평했다. “와, 정말,” 노동자가 놀라워했다. “그럼 왜 그전에 떠나지 않았어?” — “이젠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떠나지 않았잖아요.” — “이럴 수가!” 노동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 그런데 수도사가 되라고 강제로 출가시킨 건 아니잖아?” — “아니요,” — 그가 한탄했다. “,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 “참 이상한 일이네,” —

¹³⁵ 1953–1956년 에스피그멘 수도원에서.

¹³⁶ 예리소스 – 할키디키 반도에 위치한, 성산 아폰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 역자 주.

노동자가 고개를 저었다. “— 그럼 수도원장님께는 이 얘기를 했어?” — “아니요,” — 수도사가 대답했다. “그럼 나한테는, — 노동자가 의아해하며, — 왜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수도사는 노동자에게 자신의 모든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보시죠? 그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이구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지만, 대신 노동자에게 “고백”하러 간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자는 다음 주말에 자기 마을의 어느 커피숍에 앉아, 술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 “고백”을 다시 이야기할 것이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릴 것이며, 결국 그 불운한 수도사에 대해 온 마을 구석구석에서 험담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수도사가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사전을 몇 권이나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고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 게론다, 세속인의 고해 신부가 자리를 비운 경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유혹에 대해 영적 형제 중 한 명과 상의해도 될까요?

— 뭐,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적 형제는 때로는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때로는 전혀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돕고자 하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영적 형제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적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해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적 지도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 직면한 문제가 심각하고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미리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경우에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과 상의해야 합니다. 한 엔지니어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다른 엔지니어는 다르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두 엔지니어의 계획 모두 훌륭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장.

올바르게 고해성사하는 법

자신의 상처를 다시 감아야 한다

— 게론다, 제 영적 투쟁 중에 넘어질 때면 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투쟁은 투쟁인 법입니다. 이 투쟁 속에서 상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됩니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니까요.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전장으로 뛰쳐나갑니다. 무엇보다도, 병사들은 부상을 통해 경험을 얻고,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적의 총알과 파편을 이전보다 더 잘 피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투쟁 중에 상처를 입는다면, 겁먹지 말고 영적 지도자인 신부님께 달려가 상처를 보여 드리고, 영적으로 치유받

은 뒤 다시 “*선한 업적*”을 이어가야 합니다.¹³⁷ 우리가 영혼의 무서운 적인 정욕들을 찾아내지 않고, 그것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어떤 이들은 [소위] 정욕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겠습니까? 신부님을 비웃으려고요?”

—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다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상처를 치료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정말로 호기심 때문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을 속이기 위해] 악마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들까지도 이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져 진흙에 젖었을 때, 고해성사로 영혼을 정화하지 않고 ‘다시 넘어져 또 더러워질 테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면, 우리 영혼에 굳어버린 오래된 더러움의 층 위에 끊임없이 새로운 더러운 층들이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백의 필요성

— 게론다, 성자 마르코스 은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회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한다.”¹³⁸ 그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 두 가지 방식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신자는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약처럼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견뎌냅니다. 성 마르코는 하나님과 고해 신부에게 고백하지 말고 단지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¹³⁹ 네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한다*,”¹⁴⁰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네 안에 악이 있다면, 네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¹³⁷ 디모데전서 6, 12.

¹³⁸ 참조: 성 마르코 수행자,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제155장. 『선행에 대한 사랑』 (러시아어 번역본). 제1권.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553쪽.

¹³⁹ 참조: 그리스어 “εξομολογούμεναι.”

¹⁴⁰ 참조: 시편 106, 1.

— 헤론다, 고해성사를 처음 받으러 갔을 때, 영성 지도사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 영적 지도자를 처음 찾아갈 때는, 평생에 걸친 전반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의사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려주듯이 말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 이런 폐 질환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았고, 전신 마취나 국소 마취 하에 이런 수술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고해성사 때 회개하는 사람은 고해신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고해신부는 그 사람의 [영적] 상처를 찾아내어 치유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단순한 타박상 하나라도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고해 신부에게 처음 찾아갈 때는, 예를 들어 고백해야 할 백 가지 죄를 안고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고해성사를 받으러 올 때는 이미 백 열 가지 죄를 안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해성사를 통해 “악마의 모든 계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악마는 그에게 더 큰 공격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에는 이미 150가지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죄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사람은 고백할 때 아주 미미한 양의 죄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고해

— 왜 때로는 양심이 우리를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 이는 어떤 정신적 붕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유혹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는 위업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이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힘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그는 고해를 통해 내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해를 통해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보충하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투쟁할 결의를 찾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유혹이 그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슬프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더욱 무너지고, 생각에 짓눌리며,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전혀 영적 투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만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요?

—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영적으로 자신을 바로잡는 일도 자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시 결단력과 투쟁의 힘을 얻기 위해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로잡은 후, 사람은 자신의 [영적] 기계를 가동시켜, [도망치는] 마귀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영적 수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 게론다, 제가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어쩌면 네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고해성사는 성사(聖事)이기 때문이다. 고해성사에 가서 영성 지도자에게 네 죄를 솔직히 털어놓아라. [네게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고집이 없는가? 이기심은? 자매를 상처 입히지는 않는가? 누구도 정죄하지는 않는가? 내가 고해성사에 갈 때, 무슨 특별한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하나? 아니, 나는 “분노와 비난으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성 지도자는 나를 위해 사죄 기도를 읽어 준다. 하지만 사소한 죄들도 나름의 무게가 있다. 심각한 죄가 없을 때 티혼 신부님¹⁴¹)께 고해성사를 하러 가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래알이야, 아들이야, 모래알!” 사소한 죄들이 모여 거대한 모래 더미를 이루는데, 그 무게는 큰 돌 하나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수많은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자란 환경과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자란 환경을 비교해 보면,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고해성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하라. 고해성사에서는 단순히 “나는 시기하고, 화를 낸다”와 같은 식으로 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실족에 대해서도 고백해야 한다. 하물며 교활함 같은 중대한 죄를 고백한다면, 그 죄를 저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지도자에게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가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숨김으로써 건강에 큰 해를 입히는 환자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 사람이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정확히 보여준다면, 영적 지도자는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힌 사람은 먼저 그 피해자에게 가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 영성 지도자에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만약 사람이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미리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영성 지도자에게 그러한 죄를 고백한다면, 그의 영혼은 평온을 되찾을 수 없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경우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 상처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찾을 수 없어 적어도 편지로라도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이에게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¹⁴¹ 티혼 장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파이시* 장로 『성산 수도원 장로들과 성산 수도원 이야기』.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2001. 13-39쪽.

— 헤론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우리가 쉽게 똑같은 죄에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어떤 중대한 죄를 지은 후, 바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나요?

— 그런데 왜 나중에 미루는 건가요? 썩게 하려고요? 썩은 것을 버리지 않고 오래 둘수록 더 썩어가는 법이잖아요. 굳이 두세 달을 기다렸다가 중대한 죄를 고백하러 갈 필요가 있나요? 가능한 한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상처가 있다면, 한 달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치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성 지도자가 더 많은 시간을 내거나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장 고해 신부님께 달려가, 저지른 죄를 간략히 고백한 다음, 고해 신부님께 시간이 더 생기실 때 찾아가 대화를 나누거나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해 신부님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두 마디로 요약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혼란스럽다면, 많은 말을 쏟아내면서도 고해 신부님께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트 한 권을 통째로 저에게 보내오기도 합니다. 20~30페이지에 달하는 작은 글씨로, 마지막에는 몇 페이지의 추신까지... 비록 그들이 쓴 모든 내용이 한 페이지에 다 담길 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고백 중에 자신을 변명함으로써 우리는 양심을 무겁게 만듭니다

— 게론다, 고해성사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까?

— 그 죄를 지은 순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상처가 아물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고해성사 중에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 와서,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는 점을 고해사제에게 고백할 때 — 비록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화를 낸 상대방은 한 대 맞을 만했을 지라도 — 나는 고해사제가 나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했다는 사실은 고해사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아무리 양심을 짓밟아도 내면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고해성사 중에 자신을 감추기 위해 내세우는 자기합리화들은 그의 양심에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반면,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과장하여 고백하고 고해신부로부터 무거운 참회를 받아들일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허락도 없이 포도 한 알만 딴 사람 중에는 마치 포도 바구니 여러 개를 훔친 것처럼 느끼며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 죄를 고해 성사할 때까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 포도 바구니 통째로 훔쳐가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단지 포도 한 송이만 따갔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찮은 죄를 과장하여 자책하고, 자신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 하나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성한 위로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이 경우 신성한 정의가 드러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 주시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고해 신부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퇴역 장교가 지극한 회개의 마음으로, 여덟 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일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의 공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그 공은 단 하룻밤만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돌려주었다. 이 일을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웃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은퇴한 후, 그는 직무 수행 중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준 모든 사람—심지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지금 그는 시골에서 살며 저축한 돈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95세의 마비로 몸이 마비된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는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나체를 보게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시달립니다. “함(함)이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그 대가로 벌을 받았다면, 어머니의 나체를 보고 있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¹⁴²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회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 게론다, 사람이 영성 지도자에게 자신이 고상한 수행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과장할 수도 있습니까?

— 그건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백 후

— 게론다, 고해성사 후에 마음에 어떤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가요?

— 굳이 무거움을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고백을 통해 모든 과거는 지워집니다. 새로운 ‘신용 장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사람은 완전히 변화합니다. 당황함, 분노,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고요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아도 너무나 뚜렷해서,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고해성사 전과 후에 사진을 찍어보라고 권합니다.

¹⁴² 창세기 9, 20-27 참조.

그래야 그들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선한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내적 영적 상태는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사는 기적을 행합니다.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갈 때, 사람은 [은총으로 인해] 스스로 신이 되며, 그 결과 빛을 발하고 신성한 은총이 그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 게론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고백 직후에 회개한 사람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까?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서서히 당신 마음속에서 싹트게 될 것입니다. 고백 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빛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 분께 감사하고 빛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동시에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 ‘나의 죄악을 내가 알고, 내 죄가 내 앞에 드러나 있나이다,’¹⁴³ 스스로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게론다, 제가 어디선가 읽은 바에 따르면, 내세에서 악마들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단 하나의 악한 생각조차도 이유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 보라, 회개하고 무언가를 숨길 의도가 없이, 사람이 영성 지도자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말한다면, 그 문제는 종결된 것이다. 악령들은 그에게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의 죄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죄들로 인해 내세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게론다, 사람이 청년 시절의 죄를 고백한 후에도 다시 그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한다면, 그런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 청년 시절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고백했다면,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에서 그 죄들을 고백한 순간부터 하느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과거의 죄, 특히 육체적인 죄들을 다시 들추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 중에 한 병사 곁에 수류탄이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사를 지켜주셔서 수류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그 병사가 터지지 않은 수류탄을 발견해 손에 들고, 돌려보며 호기심에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전투 중이 아니라 전투가 끝난 후에 수류탄이 터져 그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

— 게론다, 만약 영적 지도자가 어떤 죄로 인해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이 그 일로 크게 상심하여 슬픔에 빠진다면, 여기에는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까?

¹⁴³ 시편 50, 5.

— 물론이지요, 여기에는 이기심이 빠질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느님을 향한 슬픔을 느낀다면, 그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고해신부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생각, 실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고해신부로부터 부드러운 말이나 엄한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고해신부는 사랑과 보살핌에 이끌려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만약 제가 영성 지도자의 꾸지람이나 심지어 단순한 지적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조차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결국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수의 대패질을 받아들이지 않는 널빤지들이 옆으로 내팽개쳐져 콘크리트 거푸집이나 비계로 쓰이다가, 결국 짓밟히고 시멘트에 뒤덮인 채 다른 건축 폐기물과 함께 불타버리는 것처럼,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파멸하게 됩니다.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 어떤 점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저 겸손하게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의 지도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 지도자와는 다르게 어떤 것을 본다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할까요?

—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해 신부의 행동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그 신부는 고해의 비밀을 깨고 고해 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해 비밀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성 지도자와 특정 시간에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에 그와 동시에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다른 사람이 영성 지도자를 찾아오고, 영성 지도자는 우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처음에 그 사람을 상담하러 초대했으니, 나를 경멸하는구나.” 하지만 고해 신부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에게 이를 설명한다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망치게 될 것이다. 반면, 문 밖에 남아 있던 사람이 유혹에 빠지거나 잠시 낙담한다고 해

도, 그 해악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내 칼리바에 찾아온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들과 동시에, 친척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서야 겨우 나를 만나러 오도록 설득해 낸 한 남자가 내 곁에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을 무척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를 껴안고, 염주와 성화를 건네주었다. 다른 이들은 서운해했다. “우리에게는 장로님께서,” 그들이 말했다, “전혀 관심을 안 주시네요!” 하지만 그들이 유혹에 빠졌던 그 불쌍한 사람은 방탕한 자였고, 나는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 곁을 떠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령 그 사람들이 천 번이라도 유혹을 받았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기적으로] 유혹받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한 사람을 파멸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올바른 관계

영적인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자신과 연결시키려 하기보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 노력한다. 만약 그가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면, 그는 기뻐하고, 그가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련한다. 이 경우 양쪽 모두 각자의 보상을 얻으며 모든 것이 제 궤도를 따라 흘러간다. 그러나 수련하는 이가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쓴다면, 즉 자신의 행동이 지도자를 얼마나 실망시키거나 기쁘게 할지에만 신경 쓰면서, 그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기쁘게 하지 못하며, 게다가 신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즉,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나 영적 지도자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 행동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 수녀가 성가대에서 노래하며 “내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수녀 원장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글썄, 그런 수녀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리스도를 위해 노래한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갈 것이다. 노래도 잘할 것이고, 수녀 원장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 게론다, 고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 보라: 만약 그가 미리 고해 신부에게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고, 그의 마음이 그 욕망에 빠져 있었다면, 비록 고해 신부의 말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잘못이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버리곤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영적 지도자에게 묻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해 놓고 있는 경우다.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바로 자신이 원했던 대로 행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순종

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고해 신부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글쎄요, 신부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때도 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가 한 말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겠다. 자녀가 있는 45세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16세 남학생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다. 그 소년은 집을 나와 자신의 담임 선생님과 동거했다. 그의 아버지가 내 칼리바를 찾아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나는 그에게 고해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불쌍한 아버지는 고해 신부를 찾아갔지만, 다시 내게 돌아왔다. 그가 저를 찾아온 날, 저는 제 칼리바에서 세계 총대주교청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었기에, 그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당신의 고해 신부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저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자,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게론다, 저는 이 여자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 “잠깐만, 친구,” 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 “그분이 제게 ‘이 쓰레기 하나 죽이는 건 모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 지도자가 “이 쓰레기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실제로 그 여자를 죽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말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네 영적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각자에게 영적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습니다...

— 게론다, 사람이 영성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해결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까?

—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마음속으로만 고해신부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경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를 찾아가 “이 약을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하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 약은 음식이나 과자 처럼 “취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음식이나 과자에 대해서는 “나는 케이크나 젤리를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의사는 환자의 병에 맞춰 약을 처방한다.

제3장.

고해 신부는 영혼의 의사라는 점에 대하여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

오늘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죄와 이기심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훌륭하고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단순하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며, 분별력 있게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평안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훌륭한 고해 신부가 없다면 성당은 텅 비고, 정신병원과 교도소, 병원은 환자로 가득 찰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의 사명은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다. 자신의 거룩함으로 신뢰를 심어 주고, 하나님의 감수성 깊은 피조물들로부터 ‘탕갈라슈카’가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을 씻어 내며, 약 없이도 — 하나님의 은총으로 —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보다 더 뛰어난 의사는 없다.

신성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지닌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처한 상태를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가 수많은 돌봄의 부담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각 영혼에게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사역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는 매일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며 지쳐버리고, 그 결과 당연히 각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훌륭한 외과의사의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해 신부는 사소한 가정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각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에게 찾아오는 각 개인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효과적으로 도울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받으러 온 사람 자신도 [영적이지 않은] 문제들로 고해신부님의 머리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을 골라 살지, 아이를 어떤 준비반에 등록시킬지 등과 같이 더 유능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 말입니다.

고백 시간에는 회개하는 사람과 영적 지도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는 영적 자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할 때, 다른 누군가가 지시하는 바가 아니라 성부들이 말씀하신 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사람의 타락과 회개에 따라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술사나 미혹된 자들과 얽혀 있는 경우,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성직자들 중 일부는 그 불쌍한 사람과 대화

를 나누거나, 그에게 충고를 해 주거나,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모든 주술사, 미혹된 자, 그리고 그들과 유사한 자들로부터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 이를 피한다. 즉,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느 쪽과도 관계를 망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좋은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며 그 사람을 파멸로 내모는 것인가?

영적 지도자의 고찰과 경험

— 게론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죄가 만연한 우리 시대에, 영적 지도자의 사역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처음부터 회개하는 이들의 가장 중대한 죄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많은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 지도]에 더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 신부는 회개하는 이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고해 신부는 고해하러 온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해 신부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 신부가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사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참회자가 끊임없이 고해 신부에게 “방해”를 일으키면, 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모든 시간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고해 신부가 부주의하다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벌이는 소동에 항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그런 사람에게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고 고통받게 될 것이다. 경험을 쌓은 고해 신부는 언제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언제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저 역시 제게 온 편지를 열어볼 때 한눈에 훑어보고, 편지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교활한 자가 [우리의 시간을 훔치며] 하찮은 일로 주의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분만 기다려, 문 닫지 마, 잠깐 말할 게 있어. 들어오지도 않을게.” 그러고는 한 시간 내내 문턱에서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열린 문 옆 문턱에서 있으면,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 몸을 떨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갖 [헛된]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가? 그러다 병에 걸리면 세상도, 자신도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되어 며칠 동안 무력해진다.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이미 그를 도울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영적 지도자는 다음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 “아스피린 한 알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 시간이 있어서 단 1분만 시간을 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털어놓곤 합니다. 이는 마치 암 환자가 의사에게 “비행기 시간에 늦을 것 같으니 빨리 수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 등을 파악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성급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주간에 우리는 성산에서 십자가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한 수련생이 제게 다가와 ‘지혜로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수없이 제 칼리바에 찾아왔지만 한 번도 이 주제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하필 이곳,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미묘하고 중대한 질문들은 걸어가면서나 언덕을 오르는 도중에는 논의할 수 없는 법입니다.

신자가 성찬을 얼마나 자주 받을지는 그의 영적 지도자가 결정한다

— 게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적합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며,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¹⁴⁴ 사람이 언제 부적합하게 성체를 영합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합당하지 않음을 자각하며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통회와 겸손을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무언가로 인해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성찬식에 나아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후에야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 헤론다, 어떤 사람들은 고해 신부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찬을 받을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 성체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면, 마귀가 이를 틈타 그 사람을 [유혹으로] 유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성체 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법의 문자에 따라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성부들의 정신에 따르면 치유를 위해 우리는 신성한 피의 씻음에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신성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회개

¹⁴⁴ 고린도전서 11, 29.

의 비통함으로 인해 원수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오른쪽”에서 우리에게 몰래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습니까?

— 성찬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찬을 받기 전 며칠 동안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을 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해 신부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신자가 성찬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찬을 받기 전 얼마나 금식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인내력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고해 신부는 그 사람을 영적 금식, 즉 정욕을 절제하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금식의 강도 역시 그 사람의 영적 민감도, 즉 자신이 지은 죄를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해 신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 그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싸움을 일으키는 원수가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육체적 타락으로 인해 40일 동안 성체성사 참여가 금지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이 참회의 35일째 되는 날, 마귀는 그 사람을 다시 똑같은 죄로 빠뜨릴 수 있으며, 만약 그 죄인에게 새로운 40일간의 참회가 부과된다면, 마귀는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 그 영혼은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참회의 첫 며칠이 지난 후 고해 신부는 회개하는 이에게 “자, 일주일 동안은 성체를 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주일 후에는 매 성찬식마다 성체를 영하도록 축복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강해질 것이며, 그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세심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는 단순히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성체성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해 고해 신부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금식에 관하여

— 게론다, 계명을 흠잡을 데 없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까?

—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세의 율법입니까?

— 아니요, 복음의 계명 말입니다.

—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올바르게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왜곡하여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삶에는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부들조차도 신성한 규정을 깊은 분별력을 가지고 적용하라고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부들 중 가장 엄격한 분이자 가장 엄격한 정경적 규칙을 제정한 바실리우스 대교부는, 어떤 죄에 대한 정경적 처벌을 다루는 규칙 중

하나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시기를 따지지 말고, 회개의 방식을 살펴보라.”¹⁴⁵ 즉, 똑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에게 고해 신부는 각자의 회개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참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2년 동안 성체 영성체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은 2개월 동안 금지하는 식입니다. 참으로 큰 차이입니다!

— 게론다, 참회는 정욕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까?

— 회개한 사람은 자신에게 부과된 참회가 도움이 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제로 사람을 바로잡으려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형제를 바로잡으려 했던 자에게 “너, 새로운 디오클레티아누스였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며, 바로잡히려 했던 대상에게는 “너는 모든 것을 강제로 했을 뿐, 네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억누르지 말고, 그가 스스로 그 위업을 감당하고 싶어 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실에 기뻐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참회의 정도]는 영적 지도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이들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단호하게 엄격해야 한다. 정욕에 굴복했지만, 그 후 회개하고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분별력 있게 도와 다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많은 성인들이 바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파도키아의 아르세니오스 성인은 영적 지도자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참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자선이나 다른 종류의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그에게 축복을 청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마비된 아이를 보고, 그 불쌍한 이의 고통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먼저 아이를 치유한 다음, 부모에게 참회를 부과하여 앞으로 그들이 더 주의 깊게 돌보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있잖아, 저 영성 지도자는 성부들의 가르침을 정말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야! 정말 까다롭고 똑똑해서, 모든 걸 기억하고, 『피달리온』¹⁴⁶ 을 통째로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피달리온』에 담긴 규정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영성 지도자는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고해 신부가 ‘피달리온’을 집어 들고 찾아온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라. “자, 그럼, 무슨 죄를 지었나? 아, 그런 죄

¹⁴⁵ “그러나... 치유를 시간으로 측정해서는 안 되며, 회개의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 참조: 성 바실리우스 대주교. 이코니아 주교 암필로키오에게 보낸 첫 번째 정경 서신. 『규칙서』 제2규칙.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1992. 310쪽. 또한 참조: 성 바실리오 대주교. 이코니아의 주교 암필로키오에게 보낸 제3정경 서신. 제74규칙.

¹⁴⁶ 『피달리온』(단어의 문자적 의미: 키, 배의 조타기) — 1793년경 성 니코딤 스바토고르츠와 수도사 아가피우스에 의해 편찬된, 해설이 포함된 정교회 성스러운 규범의 가장 완전하고 권위 있는 모음집이다. “피달리온”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성산” 출판사에서 출간을 준비 중이다.

구나. 자, 이런 경우에 대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체성사로부터 몇 년 동안 파문! 자, 다음 사람... 넌 또 무슨 짓을 저질렀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네게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 읽어볼게... 아하, 바로 이런 참회처분이네!”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게론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해 신부는 수십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 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분별력 없는 엄격함으로 교회의 모든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고해 신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먼저 그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고해 신부는 사람들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입니다.

“피달리온”이라는 이름은, 이 책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때로는 이 방법, 때로는 저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치 배를 해안으로 인도하는 조타수가 키를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직진만 하고, 필요한 곳에서 키를 돌리지 않는다면, 조타수는 배를 암초에 좌초시키고, 배를 침몰시켜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고해 신부가 교리를 대포처럼 사용한다면,¹⁴⁷ 즉, 판단 없이 구체적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회개의 정도와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치유하는 대신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허락의 기도

일부 고해 신부들은 다음과 같은 “관례”를 따릅니다. 고해한 이가 성체를 영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그에게 허용 기도를 낭독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해 신부들은 심지어 “모든 경우에 허용 기도를 낭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미 개신교와 비슷해 보입니다... 어느 날, 제 칼리바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해 신부에게 가서 그 죄들을 고백했지만, 고해 신부는 그에게 용서 기도를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한 청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성 지도자가 나에게 용서 기도를 읽어주지 않았으니,”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는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고해 신부님께 가세요,” 내가 그 청년에게 말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용서 기도를 읽어 주시게 하세요. 만약 그 고해 신부님이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를 읽어 주기를 거부한다면, 다른 고해 신부님께 가세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 기도를 읽어주지 않으면, 그는 끊임없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마가 그에게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마가 여전히

¹⁴⁷ 말장난: “ἂν ὁ πνευματικός χρησιμοποιοῖ τοὺς κανόνες σάν κανόνια.”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해방되지 못한 채, 악령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그 사람에게 해방 기도가 봉독되면 악령의 영향은 차단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그 사람의] “거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행한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되며, 정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영적] 투쟁이나 위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제4장.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

영혼을 다루는 기술은 미묘한 일입니다

— 게론다, 까다롭고 고집이 세며 “비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목수였을 때, 저는 뒤틀리고 “비뚤어진” 널빤지와 통나무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를 다룰 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뒤틀린 널빤지를 어느 쪽에서 대패질을 하든, 그 널빤지는 여전히 “버티며” 거친 가장자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자를 다룰 때는 이중 대패를 사용해 한쪽 면에서, 또 다른 쪽 면으로 정성스럽게, 천천히 깎아내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가공을 마친 후 그런 판자들은 매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무 결이 아름다운 무늬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런 판자로 만든 물건들은 매우 튼튼해서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장인은 판자가 약간 비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판자를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에게 자기 수양의 기회를 준다면 영적 삶에서 일곱 마일씩이나 되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게다가, 휘어진 두 판자를 이어 붙일 때 나는 절대 큰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 먼저 그런 판자들을 대패로 다듬어 가능한 한 평평하게 만든 다음, 가느다란 못으로 서로 고정시켰다. 만약 두 개의 휘어진 판자가 서로 밀려나면, 나는 결코 큰 못으로 억지로 눌러 붙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판자들을 억지로 연결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차피 터져 버리고 갈라져 버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이들에게는 신중한 판단과 또 한 번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영적 삶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처방이나 단 하나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영혼은 그 질과 수용력에 있어 서로 다르다. 수용력이 더 큰 그릇도 있고, 더 작은 그릇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크지 않은 반면, 다른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더 튼튼합니다. 영혼의 질과 수용력을 파악한 영적 지도자는 그 영혼의

능력과 유전적 소질,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고해 신부는 고해하는 사람이 처한 상태, 그가 저지른 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뻔뻔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해 신부가 그에게 뻔뻔함을 부릴 권리[구실]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고해자의 영혼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고해 신부는 그가 용기 있게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고해 신부는 세심해야 하며, 사람의 겉모습만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는 들은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특히 고해 신부가 사람을 더 깊이 꿰뚫어 보는 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겉으로는 매우 튼튼해 보이는 널빤지 중에도 속은 썩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널빤지를 대패로 살짝 깎아 보면, 그 속이 어떤지 금방 드러난다. 반면 겉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널빤지라도, 속의 나무는 매우 튼튼한 경우도 있다.

영혼을 다루는 기술은 미묘한 일입니다. 처방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신체는 자신에게 부족한 비타민을 필요로 하며, 모든 질병은 그에 맞는 약으로 치료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다

— 게론다, 어떤 여성이 우리에게 “제 고해 신부님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쩌면 네가 고해 신부님께 네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닐까? 어쩌면 책임은 네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경우를 마주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 깊이 생각하게 하되, 쉽게 변명할 구실을 주지 마십시오. 이 문제들은 매우 미묘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고해 신부님들조차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그녀가 고해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요?

— 고해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점에서도 그녀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고해 신부가 자신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마음에 들어 하고, 그 점을 정당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아, 그 때문에 아내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혼을 원하며 저를 찾아와 아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제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제가 그에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제 대답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고해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해 신부가 모든 사람의 정욕을 정당화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정욕에 맞춰 모두의 마음에 들려고 한다면, 차라리 악마의 마음에도 ‘들어가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내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누구누구 자매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 “아, — 내가 너에게 말한다. — 그 자매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서 나는 너를 옹호하고, 너는 그제 마음에 든다. 잠시 후, 너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그 자매가 내게 와서 너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 “저 자매가 이런저런 짓을 했어요.” — “아니, 정말! —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자매도 변호해 주고, 그녀도 이 말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나는 모두에게 호감을 사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걸림돌을 놓는 셈이다! 반면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자, 이리 와 봐! 자매가 너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면, 네가 그녀에게 그럴 빌미를 준 거야!” 이 말을 들으면 너는 더 빨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내면의 평안은 사람이 올바른 [영적] 입장을 취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임무는 지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을 달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정당화해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영적 지도자는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여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이 경우에만 찾아옵니다. 사람의 정욕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범죄입니다.

고해 신부가 서로 연관된 두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그들 각자와 교감을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생각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고해 신부는 각자의 영혼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사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는 이 사람들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일을 맡아야 하는데, 오직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복음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동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모든 결정은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가 되어, 끊임없이 아스피린을 먹어야 할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해신부는 의견이 다른 사람 각각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며, 누구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는 각 사람에게 결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양쪽의 흠이 다듬어지고, 사람들은 합의와 상호 이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좋은 점만 있습니다. 바로 저는 결코 누구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남편에 대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남성들이 저를 찾아와

아내에 대해 불평을 하면, 저는 그 남성들에게 꾸짖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신의 단점을 지적해 주며, 도움이 되도록 각자에게 필요한 말을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는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가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아니, 역시 신부님이 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셨을 때 옳았어!”라고 한쪽이 다른 쪽을 책망하면, 대답으로 “나한테는, 그분이 너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놨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감정적 격동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옹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 물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 심하게 꾸짖기도 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마음속으로 평온해진 채 떠납니다. 즉, 그들은 저에게서 상심한 채 떠날 수도 있지만, 제 괴로움이 그들 자신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꾸짖을 때에도 여전히 돌벽 뒤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 네, 제가 사람을 건조하고 형식적으로 꾸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활용해야 할 미덕이 있고 고쳐야 할 단점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침을 듣지 못했을 때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대하는 법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심란한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게론다, 저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제 고해 신부님이 저에게 ‘이건 다 네 유전적인 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 청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런저런 이유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는 두통과 위통 약을 먹고는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약을 먹지 않는 게 더 나을까요?” —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당분간은 약을 계속 드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후에야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괴로워할 것입니다.” 약을 끊는다고 해도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해 신부가 [고해자에게] 경고등이 켜질 정도로 상황을 몰아가지 않고, 어떤 일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물론, 고해자 자신도 도움을 받으려면 올바르게 노력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어떤 문제로 약혼한 여자친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녀는 화가 나서 차에 올라타 떠나다가 도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 후 그 청년은 자신이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느껴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이 일을 털어놓았다. 사실상 그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

었지만, 나는 그를 위로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그런데 그 후 그는 그 사건에 대해 아예 떠올리지도 않게 되었고,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도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3년 후, 그런 상태로 그가 다시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제대로 한바탕 꾸짖어 주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은 이미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기에, 그 꾸지람은 필요했다. “정말 모르겠니?” 라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네가 살인을 저질러 그 소녀가 죽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만약 이 청년이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했다면, 그 사건을 잊지 않은 채 계속 고통을 겪었을 테지만, 그 고통에 대해 신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그렇게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죄를 짓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자신의 자제력도 필요합니다. 어느 날, 육체적인 죄에 빠져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한 청년이 제 칼리바를 찾아왔습니다. 그 불쌍한 청년은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그는 두 명의 고해 신부에게 갔었는데, 그들은 그가 중대한 죄를 짓고 있다고 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 그가 결심했다 — 고칠 수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편이 낫겠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자, 나는 그 불쌍한 이를 위해 가슴이 아팠고, 그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어라, 축복받은 영혼아. 네가 할 수 없는 일부터 싸움을 시작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자.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갈 수 있겠니?” — “할 수 있습니다,” —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수 있겠니?” — 내가 다시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월급의 십분의 일을 자선으로 나누어 주거나, 병자들을 찾아가 도와줄 수 있겠니?” —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매일 저녁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 그가 내게 말했다. —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 “자, 그렇다면, — 내가 말했지, — ‘오늘부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바로 시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해 주실 것이다.’ 불쌍한 청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신부님.”이라고 되뇌었다. 보라, 그에게는 경건함이 있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뻔뻔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만약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린 시절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게 네가 그 안에서 보는 선한 점[무언가 선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침이나 아부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

면 이를 통해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변화하게 되는데, 그 역시 신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답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선한 발과 그 위에 뿌려진 악한 씨앗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의 내면이 선하다는 것을 보았고, 그가 저지른 악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임을 알았다. 내가 그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를 아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주어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방식’에 따라 살아간다. 사람에게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에게 “넌 재능이 없어”라고 말한다. 마치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즉,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저지르는 악한 일과 내면에 지닌 선한 면 모두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면,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영적 위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 그 사람에게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점을 말해 주고, 그 안에서 자부심과 고귀함을 키워 준다면, 그는 도움을 받고 성장하며 성공하게 된다.

나의 원칙은 이렇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지녔거나 영적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해 준다. 하지만 그에게 비뚤어진 면을 발견한다면, 나는 무거운 몽둥이를 손에 든다... 나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식이 사람의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모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와 대하는 방식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그가 이미 내면에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수녀가 아름다운 성화를 그렸다면, 나는 그 성화가 잘 그려졌다고 말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교만해져서 건방져진 것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그녀와 교류할 때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물론, 성화 작업실에서 순종을 다하는 수녀가 교만해진다면, 그녀의 붓 끝에서 나오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 캐리커처가 될 것이며,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부터도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겸손해진다면, 다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병적인 현상은 내 취향이 아니다. 저는 온갖 기괴한 꾀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온갖 병적인 일탈을 덮어주기라도 하겠습니까?

— 계론다, 만약 뻔뻔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더 뻔뻔해질 때,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이렇게 말해 주마. 내 배려와 친절, 사랑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친밀감을 나누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더 이상 친절하게 대하

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영적] 법칙에 따르면, 누군가가 너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수록, 너는 더 많이 변해야 하고, 재가 되어 흩어지며, 촛불처럼 녹아내려야 한다.

오래전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겪었던 몇 가지 신성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위로에 대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라고 감사드리는 대신 — 하며 감사의 마음에 흠뻑 젖어 있듯이 엎드려야 할 텐데, 그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뻘뻘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멀리서, 기도로 그를 도울 것이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행동 방식이 그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요?

— 그가 이를 이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내 친절함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보답을 찾지 못하고 그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에게 사랑과 겸손이 있고 건방짐이 없다면, 너도 그에게 대해 소탈하게 대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는 친절하고 소탈하게 대한다. 나는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우리 사이에 형성된] 사랑의 분위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바친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그 사람에게 그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대화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저는 그를 제 형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처럼 대합니다. 저는 햇살처럼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어, 모든 뱀과 전갈, 벌레—즉 그의 정욕—가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 사람이 그것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의 행동으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면서도, 나의 순진함이나 진정한 사랑을 악용해 뻘뻘하게 굴기 시작하면, 그가 더 뻘뻘해지지 않도록 서서히 그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나를 바치기 때문에, 내 양심은 평온함을 유지한다. 스토크리온 수도원에서 지낼 때, 나는 한 소년을 데려와 그를 돕고 동시에 목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를 친절하게 대했고, 형제처럼 여겼다. 하지만 그 청년에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성격을 보았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물었다. “지금 몇 시지?” — “시간은 네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 — 그가 대답했다. 그래, 그때 나는 생각했다. “아니,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겠다. 나도 내 ‘머리’로 조금은 분별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청년이 망가질 테니까.” 사실 나는 그를 대할 때,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겸손함이 있었다면 [영적] 법칙에 따라 감사의 마음으로 흠뻑 젖어 엎드려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스스로 나를 떠났다. 내가 그를 쫓아낸 게 아니다. 보라: 인내와 사랑은 뻘뻘한 자를 더 뻘뻘하게 만들고, 겸손한 자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자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가 된다

— 게론다,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를 그렇게 꾸짖으셨던 게...

—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를 또 한 번 꾸짖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용 같은 조치를 취할 거야!.. 내 방식은 이러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 그 후에야 그를 다듬어 주는 거지. 참, 좋은 방법이지? 사람이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면, 그걸로 꾸짖고 — 당연히 — “심술쟁이”가 되어 버리지. 하지만 어찌겠어? 다들 화가 난 걸 달래주며 착한 척하다가, 결국 우리 모두 지옥에 가게 될까 봐? 제가 꾸짖거나 지적한 사람이 속상해하더라도, 저는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꾸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꾸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꾸짖을 때, 나는 고통을 느끼고 지치기도 하지만, 내 양심은 그 일로 인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후 나는 고해성사 없이도 평온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위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그 위안과 기쁨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 게론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엄한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실천하지 못했기에 저를 포기하기로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 참으로 축복받은 영혼이구나! 내가 네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느냐? 그런 실험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나아갑니다. 에서 안전함을 느끼십시오. 만약 내가 당신 안에서 무질서를 발견한다면, 내가 당신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 사실을 당신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신뢰와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아, 당신은 아직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군요! 설마 내가 이렇게 쉽게 너희의 마음을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의 영혼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 준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 돌을 흔들어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엄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벽으로 향하는 사람을 보고 “가라, 가라, 넌 아주 올바른 길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내 쪽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나쁜 성향이 있다.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괴로워한다. 과연, 사람에게서 나쁜 점을 발견하고도 내가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옥의 고통으로 향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필요할 때면 [그를 구하고자]

소리까지 지르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침묵하는 편이 나을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에 침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네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다시 나에게 또 다른 해를 끼치면 나는 다시 너를 용서한다. 나에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네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네가 [고쳐지고 싶어 하지만]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네가 가능한 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달래며 “그가 나를 용서해 주니, 나에게에는 모든 것이 훌륭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속상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울며,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고치려 할 때, 그에게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이므로 고해 신부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 반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웃어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비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 게론다,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타락을 영성 지도자에게 숨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의 타락을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락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의 영적 삶에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보거나, 그가 무언가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거나 알더라도, 저는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강압이자 불명예로 여깁니다. 이는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한다면, 그를 조롱거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타인을 강제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를 도울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아니면 그가 무지한 상태에 있어 완전한 실패를 겪고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될 때 그렇게 할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이 직접 당신에게 부탁할 때, 그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 주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낡은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게 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그가 덜 아파할 테니까. 보라: 어린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부딪히면, 다른 아이가 밀어서 넘어졌을 때보다 울음이 덜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듣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보다 열 배는 더 겸손해야 하며, 게다가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바를 자신의 삶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100% 하

라고 조언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그것을 150%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나는 여전히 그에게 그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든 질책할 수 있는 대상은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뿐이다. 고해 신부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해 신부가 누군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었다면, 당연히 이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질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네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네게 그럴 권한을 주지 않은 사람의 나쁜 습관을 질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 내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재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램프를 옮기고, 침대를 저쪽 구석으로 밀고, 목주를 저쪽 못에 걸어두는 식이다.

고해 신부님의 고해자에게 대한 사랑

은총을 받은 영적 지도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애타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영혼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이 회개하도록 돕고, 고해를 통해 그 짐을 덜어주며, 마음의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고해 신부는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므로,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신성한 사랑과 다정함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는 고해하러 오는 각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하며, 고해자가 고해 신부의 얼굴에 비친 자신의 고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강한 식초가 아니라 신선한 물이 필요한 우리 시대에 특히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마의 영향에 시달리며 영적인 조언이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꾸짖을 때조차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실수를 미묘하고 재치 있게 지적하며, 웃음이나 농담으로 그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누군가에게 마음속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그를 드러낸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충고를 할 때 그 사람은 빠져서 반발하게 된다. 반면, 우리가 아픔과 사랑을 담아 그 사람을 꾸짖으면, 그 사람은 속상해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저는 한 영성 지도자를 알고 있습니다. 체격이 매우 뚱뚱한 분이죠. 물론 그분의 비만 원인 중 하나는 체질 때문이겠지만, 그 외에도 신부님께서 식사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신부님께서 이웃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얼마나 돌보시는지 아시나요? 이 영성 지도자에게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수련을 별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자비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금욕적인 영성 지도자보다 그에게서 영혼의 더 큰 평안을 찾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옥의 고통 속으로도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그는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